



2013. 1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로컬푸드 연구모임 결과보고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로컬푸드연구모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내면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로컬푸드연구모임
대표의원 박 영 송

‘로컬푸드’라는 그리 익숙하지 않은 주제를 가지고 연구모임을 시작한 게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그동안의 활동 결과를 갈무리하는 시간에 이르렀습니다.

비록 길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저를 포함한 7명의 회원들은 숨 돌릴 틈도 없이 왕성하게 활동하였습니다.

2월 창립대회를 시작으로 3월에는 완주군수 초청강연, 세미나 개최, 4월에는 완주군 1박2일 방문, 5월에는 로컬푸드 인식 설문조사, 6월에는 세종시 로컬푸드 활성화 토론회, 9월에는 완주군 모악산 해피스테이션 방문, 10월에는 이해찬 국회의원과 함께한 완주군수 면담과 모악산 해피스테이션 방문, 그리고 11월에는 연구모임 대토론회를 가졌습니다.

12월에는 우리 연구모임의 회원이신 김장식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일련의 활동을 통해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신생도심과 기존의 농촌지역이 더불어 잘살 수 있는 방안으로 ‘로컬푸드’사업의 활성화가 절실하다는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로컬푸드로 맺어진 상생도시 세종시라는 꿈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먹거리 정책 확립을 통한 생태도시, 건강도시, 경제도시, 복지도시, 문화도시라는 세종시의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 연구모임의 노력과 고민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연구모임의 활동이 세종시 로컬푸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서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함과 동시에 생산자에게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주는 건강한 먹거리 도시, 세종특별자치시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로컬푸드 연구모임 회원으로 항상 로컬푸드 정책에 힘써주시는 김장식의원님, 고준일의원님, 남궁호과장님, 신은주과장님, 허남혁박사님, 이병철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2013. 12.

2013 활동사진



▲ 창립총회 및 제 1차 회의 (2013. 2. 18)



▲ 제 2차 회의 (2013. 3. 25)



▲ 제 1차 현장방문 (2013. 4. 12 ~ 13)

2013 활동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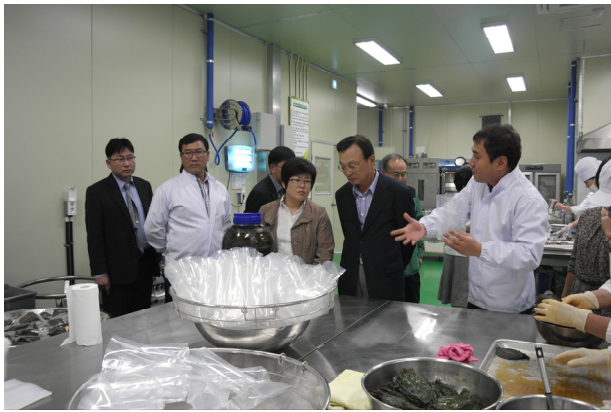


▲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2013. 6. 11)



▲ 제 2차 현장방문 (2013. 9. 14)

2013 활동사진



▲ 제 5차 현장방문 (2013. 10. 7)



▲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와 먹거리정책 수립을 위한 대토론회 (2013. 11. 13)

목 차

I . 연구모임 등록	9
1. 로컬푸드 연구모임 사업계획	11
2. 연구모임 회원 명단	18
II . 주요 연구활동	19
1. 로컬푸드 연구모임 창립총회 및 제1차 회의	21
2. 로컬푸드 연구모임 제2차 회의	22
3. 로컬푸드 연구모임 제1차 현장방문	23
4.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 토론회	24
5. 로컬푸드 연구모임 제2차 현장방문	25
6. 로컬푸드 연구모임 제3차 현장방문	26
7.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와 먹거리정책 수립을 위한 대토론회	27
III . 연구자료	29
1. 생산자와 소비자가 가까워지는 로컬푸드 활성화 정책	31
2.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 토론회	39
3.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와 먹거리정책 수립을 위한 대토론회	79
4.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주민 로컬푸드 인식조사	141
IV . 기타	159
1.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1
2. 언론자료 스크랩	17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로컬푸드 연구모임 결과보고서

연구모임 등록

1 로컬푸드 연구모임 사업계획

201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로컬푸드 연구모임 사업계획

- 연구회는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유통실태를 파악하고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공급 활성화 전략을 수립
- 생산자 그룹과 소비자 그룹의 생태계를 파악하고 두 그룹간의 상호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
- 회원 상호간의 연구 및 정보교류와 친목도를 통하여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전문가 매칭 및 연구지원을 통한 연구모임 활성화 도모

1. 추진방향

-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유통실태를 파악
-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공급 활성화 전략 수립
- 생산자그룹과 소비자그룹의 생태계 파악 및 네트워크 구축 방안 모색
- 연구성과를 시책에 반영하고 보고서 발간을 통한 정보 공유

2.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지역농산물 생산자 및 소비자 그룹
- 사업기간 : 2013. 3월 ~12월
- 사업비 : 5,000천원

○ 사업내용

- 지역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유통실태 분석 등 전문가 매칭 및 과제 수행
- 지역농산물 사용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및 현장방문 활동
- 연구보고서 발간·배포

3. 세부 사업계획

【1】 연구활동 지원

- 사업개요 : 세종시 로컬푸드 관련 전문가 연구 및 모임활동 지원
- 사업내용 : 연구모임 및 활동비 지원(수시)
 - 연구회 구성 발족 및 정기모임
- 사업비 : 1,000천원

【2】 지역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생태계 및 유통실태 분석

- 사업개요 : 지역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 생태계 및 유통실태 분석
- 사업내용 : 전문가 조사 및 분석(조사비, 분석비)
- 사업비 : 1,000천원

【3】 현장방문 및 토론회 개최

- 사업개요 : 지역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현장방문 및 토론회 개최
- 사업내용 : 정기적 현장 방문 및 상호 토론회 (현장방문 교통비, 식비, 토론회비 등)
- 사업비 : 2,000천원

【4】 발간보고서 배포

- 사업개요 : 연구사례집을 발간 배포하여 연구성과 공유
- 사업내용 : 토론 및 연구과제 종합보고서 발간 (연 1회 - 인쇄비)
- 사업비 : 1,000천원

4. 사업추진일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 제출 (2013년 1월 중)
- 연구회 발족 및 1차 정기모임 개최 (2013년 3월 중)
- 지역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 생태계 및 유통실태 분석 조사
(2013년 3월 ~ 8월)
- 현장방문 진행 (2013년 5월 중)
- 2차 정기모임 및 간담회 개최 (2013년 9월 중)
- 토론회 및 보고서 발간·배포 (2013년 11월 중)

5. 기대효과

- 지역 농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생태계를 파악하고, 지역 농산물의 유통실태를 분석하여 지역 농산물의 지역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을 도출하여 세종시의 로컬푸드 운동을 활성화 시킴
- 세종시의회 연구회 활성화로 연구하는 의회 만들기 성과 창출

연구활동비 산출내역

구 분	소요액 (천원)	산출기초
계	5,000	
연구모임 활동비	1,000	○ 연구모임 발족 및 간담회 - 250,000원×4회 = 1,000,000원
자료조사 및 분석	1,000	○ 자료조사 및 분석 - 1,000,000원×1식 = 1,000,000원
현장방문 및 토론회	2,000	○ 현장방문 및 토론회 - 500,000원×4회 = 2,000,000원
보고서 인쇄	1,000	○ 토론 및 연구과제 종합보고서 발간 - 1,000,000원×1회 = 1,000,000원

의원 연구모임 등록 신청서

2013년 1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등록하고자 합니다.

1. 연구모임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로컬푸드 연구모임
2. 연구과제명 :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과제
3. 구성원(7명)

구 분	성 명	소 속	서명날인	비고
대 표	박 영 송	행정복지위원회 의원		
간 사	이 병 철	BC팜 영농조합 대표		
회 원	김 장 식	산업건설위원회 의원		
회 원	고 준 일	산업건설위원회 의원		
회 원	허 남 혁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회 원	신 은 주	세종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회 원	남 궁 호	세종시 농업유통과장		
관 계 자	신 정 교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실 무 자	홍 철 표	행정복지위원회 주무관		

첨부 : 연구활동계획서 1부

신청인(대표자) 박 영 송 (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귀하

연구활동계획서

연구모임명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로컬푸드 연구모임
대 표 자		박 영 송 의원
연 구 내 용	과제명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과제
	목 적	세종시의 로컬푸드 생태계의 진단과 생산, 유통활성화 대책 수립 및 추진 지원
연구활동기간		2013. 3 ~ 2013. 12
연구방법·연구활동내용 및 세부계획		「불 임」
연 구 활동비	소 요 액	5,000,000원
	산출내역	「불 임」
기타사항		

※ 불 임 : 연구활동 세부계획서, 연구활동비 산출내역 각 1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13년 1월 2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로컬푸드 연구모임 대표의원 박영송 (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귀하

연구활동비 지원신청서

연구모임명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로컬푸드 연구모임		
대 표 자	박 영 송 의원		
연구활동비 지원신청액	5,000,000원	연구활동비 지원결정액(A)	
기 수령액(B)			
금회 신청액(C)			
수령 잔액 (D=A-B-C)			
수 령 자	성 명 (예금주)		
	은 행		
	계좌번호		
기타사항			

※ 붙 임 : 연구활동 세부계획서, 연구활동비 산출내역 각 1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제8조 제2항에 따라
연구활동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3년 2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로컬푸드 연구모임 대표의원 박영송 (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귀하

2 로컬푸드 연구모임 회원 명단

구 분	성 명	소 속	비 고
대 표	박 영 송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간 사	이 병 철	BC팜 영농조합 대표	
회 원	김 장 식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 원	고 준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 원	허 남 혁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회 원	신 은 주	세종특별자치시 기술보급과장	
회 원	남 궁 호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유통과장	
관 계 자	신 정 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전문위원	
실 무 자	홍 철 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주무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로컬푸드 연구모임 결과보고서

주요 연구활동

1 로컬푸드 연구모임 창립총회 및 제1차 회의

로컬푸드 연구모임 창립총회 및 제1차 회의

- 일 시 : 2013. 2. 18(월) 17: 30 ~ 19:00
- 장 소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참석자 : 박영송, 이병철, 김장식, 고준일, 허남혁, 신은주,
신정교, 홍철표 (8명 참석)
- 안 건
 1. 연구모임 사업계획서 토론
 2. 연구모임 세부추진 일정 토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로컬푸드 연구모임 2차회의

□ 개 요

- 모임일시 : 2013. 3. 25(월) 16:00 ~
- 모임장소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참석대상 : 박영송의원의외 8명
- 주요내용 :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 및 생산자와 소비자가
가까워지는 활성화 정책 연구발표 및 토의

□ 시간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부 터	까 지	소요(분)		
16:00	16:10	10	○ 인사말씀	박 영 송 의 원 (대 표)
16:10	17:00	50	○ 연구발표 -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 및 생산자와 소비자 가까워지는 활성화정책	허 남 혁 연 구 원 (충남발전연구원)
17:10	17:20	10	○ 휴 식	
17:30	18:30	60	○ 토 론 및 마무리	

3 로컬푸드 연구모임 제1차 현장 방문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로컬푸드(Local Food) 연구모임 현장방문 계획

방 문 목 적

완주군 선구적인 로컬푸드 사업의 살아있는 현장을 방문하여
선진 완주군 사례를 배워 전파·적용하고자 함

방문개요

○ 방문일시 : 2013. 4. 12(금) ~ 4. 13(토)

○ 방문인원 : 10명(박영송 의원 외)

* 박영송 의원, 공무원, 생산자, 로컬푸드 연구회원, 허남혁 총발연연구원

○ 주요방문 내용

- 지역경제순환센터 방문 : 완주군 로컬푸드 주요 정책 강의
- 주요사업장 방문 : 거점농민가공센터, 효자직매장, 용진직매장, 안덕마을 등

세부일정

일 정	시 간	소 요	세부내용	비 고
4월 12일(금)	10:00~12:00	'120	• 지역경제순환센터 방문 (배움터1) - 완주군 로컬푸드 정책 강의(10명)	나영삼 계장
	12:00~13:00	'60	• 중 식(11명)	아하라
	13:00~13:30	'30	• 거점농민가공센터 견학	
	13:30~14:30	'60	• 이 동(효자동 직매장)	
	14:30~16:00	'90	• 효자동 직매장 견학 - 효자동매장 운영시스템 강의	안대성 대표
	16:00~18:00	'120	• 농가 현장 방문(난산 박춘옥)	
	18:00~18:10	'10	• 이 동(구이면 안덕마을)	
	18:10~		• 석식 및 숙박(10명-여성:2,남성:8) - 방3개 - 유명배위원장	안덕마을
4월 13일(토)	07:00~08:00	'60	• 조 식(10명)	안덕마을
	08:00~09:00	'60	• 이 동(용진 직매장)	
	09:00~10:00	'60	• 용진 직매장 견학	김양수 상무
	10:00~		• 복 귀	

4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

I 개 요

- 일 시 : 2013. 6. 11(화) 19:00 ~
- 장 소 :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 3층 대강당
- 대 상 : 시민(단체), 시의원, 관계공무원 등 200여명
- 진행방법 : 발제, 지정 및 자유토론
- 주 최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 주 관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장식의원,
- 후 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로컬푸드 연구모임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연구회

II 진행순서

- ◇ 인 사 말 : 김 장 식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 발 제 : 허 남 혁(충남발전연구원)
 - 세종시 로컬푸드 활성화 의의와 방안
- ◇ 지정토론
 - 좌 장 : 박 영 송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토 론 자
 - 이 기 용 (로컬푸드연구회 회장)
 - 김 영 희 (한솔동 주부)
 - 신 은 주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 박 영 범 (지역농업네트워크 대표)
- ◇ 자유토론
- ◇ 마 무 리

5 로컬푸드 연구모임 제2차 현장 방문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로컬 푸드 연구모임 2차 현장방문 계획

방 문 목 적

모악산 로컬푸드 해피스테이션(로컬푸드 복합교류 공간)을 현장 방문하고 도농상생의 가치를 추구하는 완주군 로컬푸드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세종시의 정책개발·개선에 접목하고자 함.

방문개요

- 방문일시 : 2013. 9. 4(수) 13:00 ~
- 방문인원 : 10명(박영송 의원 외)
 - * 박영송 의원, 공무원, 생산자, 로컬푸드 연구회원 등
- 방 문 지 : 모악산 로컬푸드 해피스테이션(전북 완주군)
- 주요내용 : 모악산 로컬푸드 해피스테이션 현장 방문 등

세부일정

일 정	시 간	소 요	세부내용	비 고
9월 5일(목)	13:00~13:30	'120	• 세종시 로컬푸드 직매장 방문 (세종시 조치원읍 죽림리)	이 병철 국장 (연구모임 간사)
	13:30~15:30	'120	• 출 발(10명)	모악산 해피스테이션
	15:30~16:30	'60	• 모악산 로컬푸드 해피스테이션 현장 견학	
	16:30~18:00	'90	•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 토의	안대성 대표
	18:00~19:30	'120	• 도 착(10명)	
	19:30~20:30	'120	• 석 식 및 귀가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로컬 푸드 연구모임 3차 현장방문 계획

■ 방문개요

○ 방문일시 : 2013. 10. 7(월) 10:00 ~

○ 방문인원 : 7명(박영송 의원 외)

* 시의원(박영송, 김장식), 이해찬 국회의원, 공무원, 로컬 푸드 연구회원 등

○ 방 문 지 : 거점농민가공센터, 모악산 해피스테이션 방문

○ 주요내용 : 임정엽 완주군수 면담거점농민가공센터, 모악산 해피스테이션
현장방문 등

■ 세부일정

일 정	시 간	소 요	세부내용	비 고
10월 7일(월)	10:00~12:00	'120	• 출 발	7명
	12:00~14:00	'120	• 임정엽 완주군수 면담 • 비비정 농가레스토랑(중식)	전북 완주군 삼례읍
	14:00~15:30	'60	• 거점농민가공센터 현장견학	안대성 대표
	15:30~17:00	'90	• 모악산 해피스테이션 방문	“
	17:00~19:00	'120	• 도 착	
	19:00~20:00	'120	• 석식 및 귀가	

세종시 로컬푸드와 먹거리정책 수립을 위한 대토론회 계획안

1 개 최 목 적

- 최근 선진국 도시들이 도시농업과 로컬푸드 활성화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먹거리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먹거리정책위원회를 구성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도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움직임이 커지고 있으며,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고민이 커지고 있으나, 도시의 종합적인 먹거리정책을 고민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음
- 세종시가 먹거리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거버넌스 기구를 확립함으로써, 세종시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건강도시 및 복지도시를 구현하는 동시에, 도시와 농촌의 균형있는 발전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색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개 최 개 요

- 기 간 : 2013 11월 13 일 (수) 14시~16시
- 장 소 : 농업기술센터 3층 대회의실
- 주 관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로컬푸드연구모임 (대표 : 박영송)

3 세 부 일 정

시 간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소요		
14:00	14:05	5 ʼ	• 개 회 및 국 민 의 례	
14:05	14:10	5 ʼ	• 인 사 말	유 환 준(세 중 시 의 회 의 장)
14:10	14:35 15:00	50 ʼ	• 주제발표 [세 중 시 로컬푸드와 먹거리정책 수립방안] [서울시 먹거리전략 2020 수립사례]	허남혁(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정해량(사영양과 미래 대표)
15:00	15:10	10 ʼ	• 휴 식	
15:10	16:05	55 ʼ	• 지정토론(각 15분) • 종합토론(약 10분)	좌 장: 박 영 송(세 중 시 시의원) 토 론 자: 나영삼(완주군청 로컬푸드담당) 정용화(로컬푸드생산자협의회장) 남궁희(세종특별자치시 농업유통과장)
16:05	16:00	10 ʼ	• 폐 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로컬푸드 연구모임 결과보고서

연구자료

1 생산자와 소비자가 가까워지는 로컬푸드 활성화 정책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생산자와 소비자가 가까워지는 로컬푸드 활성화 정책

■ 연구자 (허남혁,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최종정리 : 허남혁(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 정책제안 배경

○ 전세계적인 로컬푸드 열풍 관련 메가트렌드: 기존 글로벌/산업적 먹거리체계에 대한 성찰과 대안 모색

- 1) 저가 식량의 외국조달시대 종말: 만성적 애그플레이션 시대의 식량안보 문제
- 2) 도시농업의 부흥: 도시민의 먹거리 생산활동 욕구 증대
- 3) 소비자 건강문제의 심각화: 비만, 당뇨의 급증
- 4) 소비자의 먹거리 불신 지속 및 근원과 출처에 대한 요구 증대
- 5) 농촌지역 보유자원의 농업 내외 주체간 네트워킹 통한 활용 경향
- 6)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의 부흥: 농식품 영역의 새로운 지역공동체적 주체 형성

○ 로컬푸드의 개념

- 얼굴 없는 농식품 => 얼굴 있는 농식품 (소비자가 생산자를 알아볼 수 있는 농식품)
 - 생산자-소비자가 서로 먼 농식품 => 생산자-소비자가 서로 가까운 농식품 (물리적, 심리적, 단계적)
 - 고투입 산업형 농업에 기반한 글로벌 푸드시스템 => 가족농의 생태농업에 기반한 로컬푸드시스템
 - short chain (프랑스, 이탈리아) / 지산지소 (일본) / Know your farmer, Know your food (미국)
- => 이를 통해 1) 농가경제, 2) 지역경제/지역공동체, 3) 소비자 건강, 4) 환경, 5) 교육이라는 다각적 목표달성 가능: 20세기의 지속가능하지 않은 산업적이고 글로벌한 농식품체계에서부터, 21세기에 걸맞는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새로운 농식품체계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

해외 정책사례

- 미국 농무부(USDA)의 Know Your Farmer, Know Your Food(2009)
- 프랑스 농림식품부의 circuits courts(short chain) 증진정책(2009)
- 일본 농림수산성의 지산지소(地産地消) 추진정책(6차산업화법, 2010)
- 네덜란드 농림부의 다기능적 농업(MFA) 육성과 로컬푸드 정책(2008)
- 영국의 로컬푸드 중간지원기관(Making Local Food Work)



I. 로컬푸드 직판의 활성화를 통한 농민-소비자 상생

☐ 현 황

○ 전세계적으로 농가 생산물의 직판을 장려하는 추세

- 미국/유럽의 농민장터, 일본의 지역농산물 직판장 등이 폭발적 증가세(미국의 농민장터 2012년 현재 7,500개소 이상이며 해마다 1천여개 씩 증가세, 일본의 지역농산물 직판장 17,000여 개소, 프랑스/영국/이탈리아/네덜란드 등 유럽의 거의 모든 국가들에서도 농민장터나 농가직판장 같은 농가직판 형태가 급속히 확산중)
- 직판은 농가가공, 숙박, 음식판매, 체험 및 관광 등 농어업/농어촌 6차산업화 활동의 핵심적 고리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정책적 영역으로 간주되고 있음
- 이에 대한 중앙정부,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농가 직판이 제도적으로 지원받고 있지 못함

- 특히 전국적인 유통채널을 보유하고 있는 대규모 상업농이나 산지유통조직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 이외에 영세 가족소농 및 고령농들의 안정적 판로가 확보되어 있지 못함
- 인터넷 전자상거래 이외의 직판은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임: 하지만 대면접촉이 담보되지 않는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무분별한 장려는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한 실정임

☐ 정책목표

○ 다양한 농가 직판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생산자-소비자 상생

- 직판활동 참여율을 현재의 2배로 늘려나감
-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확대함

☐ 정책내용

○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직판시스템 구축 지원

- 농민장터, 농가직판장, 꾸러미사업, 지역생협, 농가식당 등 소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 중간지원기관 통한 맞춤형 지원, 사후 컨설팅 활성화
- 기존 직판장 및 가판대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 농가들의 직판 조직 결성에 대한 지원 및 관련 지역/광역/전국단위 연합회 결성 지원
- 농민장터(farmers' market), 농가 직판장 등 명칭 사용과 개설의 자격요건 및 지원요건 법제화(직접생산물 판매비중 규정)

- 기존 도로변 직판장의 정비(인증시스템, 온라인 정보제공) 및 다양한 직판장 형태 활성화 지원(농가, 마을, 도로변, 관광지, 도시내, 복합형)
- 기존 상업활동공간에 지역농가 로컬푸드 직판코너를 도입하는 활동의 장려(샵인샵 개념): 대형마트, 하나로마트, 전통시장/5일장 등에 지역농가 직판코너 입점 장려
- 소비자 분양사업의 활성화(CSA의 일종) 지원: 과수, 장독대, 토종작물, 자연보호지역(강화 매화마름, 청산도 구들장논, 예산 황새마을) 등
- 농가 직판시장과 저소득층 식품지원 간의 연계사업 시행: 미국의 WIC 농민장터 프로그램 사례

○ 농가 직판 상품의 다양화 지원

- 농가 수제가공 활성화 지원: 소규모 농업인가공센터 설치 확대 통한 인허가 문제 해결
- 농가 수제가공 관련 식품위생법규 완화

○ 지역 원산지 표시제의 확대 시행

- 우선 시군 수준까지 지역 원산지 표기를 권장하는 자율적 지역 원산지 표시제의 시행: 농산물, 축산물 및 가공품, 대형마트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행
- 더 나아가 생산자명의 자율적 표기 시행 권장
-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원산지 표시제의 의무화: 모든 농축산물에 대한 표시제 시행

II. 친환경 로컬푸드 공공급식과 공공조달 활성화

□ 현 황

○ 친환경 로컬푸드 식재료의 급식 공급이 공론화되고 있는 학교급식과는 달리, 다양한 공공급식 영역과 공공조달에서는 친환경 로컬푸드 식재료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 공공급식: 어린이집, 대학교,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군대, 경찰, 교도소 급식 등
- 공공조달: 공공기관 및 준공공기관의 식품구매행위(지자체 식품지원사업, 명절선물, 일상소비용품 등)
- 공공급식의 시장규모는 학교급식 부문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특히 영양취약계층들이 밀집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급식 및 공공조달(지자체 식품지원) 영역에서 급식의 질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조건 없는 현금지원 방식으로 개별 기관들이 식재료를 구매하고 있는 탓에, 단가 절감을 위해 저가의 질낮은 식재료가 사용되고 있는 현실임
- 학교급식 이외에는 급식 품질 및 영양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 전세계적으로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을 선두로 하여 친환경 로컬푸드 식재료의 공급을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추세임

- 이 영역은 WTO 정부조달협정에서도 예외를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에 따라 정책적인 구매가 가능함

해외의 법제화 사례

미국	농업법 (2008)	SEC. 4302. 지역에서 생산된 농식품의 구매 (1) 장관은 이 법과 아동영양법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들에게 지역에서 재배되고 길러진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을 가능한 최대 한도로 구매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2) 기관들에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조언하고 정책 관련 정보를 웹사이트에 제공해야 한다. (3) 이 법과 아동영양법의 재정지원(국방부 DoD 신선과일채소프로그램 포함)을 받는 기관들이 지역에서 재배되고 길러진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의 구매를 위해 지리적 우선구매권을 사용하도록 허용한다.
프랑스	농어업 근대화법 (LMAP) (2010)	단체 급식, 공공급식, 외식업에 지역산물 공급의무 명시(230-1): 농민이 참여하는 '짧은유통' 생산물을 급식 및 외식부문에 공급하는데 있어 국가는 2010년 수요의 최소 15%, 2012년에는 20%를 달성하도록 한다. 제철 산물, 생산·유통 과정에서 환경영향을 최소화한 산물, 품질·원산지 보증 산물, 또는 환경인증 방식을 통해 재배한 산물"
이탈리아	재정법 488 (1999)	제59조 (고품질 유기농 식품의 발전): 고품질 유기농 식품의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나 병원식당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은 유기농, 지역음식, 전통음식, 지리적표시제 인증 식재료를 제공해야 한다.
핀란드	지속가능한 공공부문 구매 행동 계획 (2009)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급식소에서 식재료 구매시 지속가능성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한다. 지속가능하게 생산된 식재료(유기농, 채식식단, 로컬푸드, 제철)가 2010년까지는 최소 월 1회, 2015년까지는 주 1회 공급되어야 한다.
브라질	학교급식법(2009)	브라질 국가학교급식프로그램(PNAE)에서 최소 30%의 식재료를 지역의 가족농/가족기업으로부터 직구매할 것을 의무화(제14조) - 총 PNAE 예산의 30%인 5억 2천만달러 규모의 로컬푸드 조달이 가능해짐
일본	식육추진기본계획 (2006)	학교급식의 지역산물 사용비율 30% 목표치 설정 (2004년 21%)
	학교급식법	영양교사가 식교육 지도를 실시할 때 학교급식에 로컬푸드를 활용하는 창의성을 지역 실정에 따라 발휘하도록 함

□ 정책목표

○ 공공급식과 공공조달 영역에서 친환경 로컬푸드 식재료의 공급 활성화를 통해 국민 건강의 증진과 지역농업의 활성화 제고

- 2018년까지 공공급식 영역에서 친환경 로컬푸드 식재료 50% 사용 목표(일부 가공품 제외)

□ 정책내용

○ 중앙정부 차원의 공공급식/공공조달 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

- 기관 대상으로 각종 인센티브/별책기준 제정 통한 친환경 로컬푸드 식재료 공급 활성화 장려

○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 확대를 통한 공공급식/공공조달 관리 및 공급기능 지원

- 공공급식 담당자와 지역농민 등 급식 관련주체들 간의 논의의 장 구축 지원

- 학교급식/공공급식 개선 관련 연구조사 및 교육을 담당하는 중앙차원 기구 설치
 - 영국의 School Food Trust, 핀란드의 EkoCentria 사례 등에서처럼 관련 데이터 수집 및 연구조사,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을 담당하는 중앙차원의 기구 설치 필요
- 지역산 제철 과채류의 정기적 제공: 과일류, 과채류
 - 과채류를 활용한 미각교육/식생활교육 시행
 - 과채류 생산농가 방문 등의 도농교류 체험 프로그램 병행
 - 과채류 생산자 단체와 협력하여 지역 수준에서 신선 과채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해외 정책사례(유럽연합의 School Fruit Scheme: 2009년부터 시행중, 미국 농무부의 Fresh Fruit & vegetable Program/FFVP: 2004년부터 시행중)

Ⅲ. 로컬푸드 가치 확산을 위한 범국민운동 전개

□ 현 황

- 전세계적인 로컬푸드 열풍과 정책지원 열풍
 - 이는 정부 정책과 상관없는 사회문화적 현상 또는 신규시장 창출과정으로 볼 수도 있지만, 최근 들어 전세계 각국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미국의 Let's Move, 일본의 Food Action Nippon, 프랑스의 Bien manger, 영국의 Eat Seasonably 등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장려하기 위한 범국가적 캠페인 사례
 - 미국 대통령 영부인 미셸 오바마의 역점 활동이 바로 이 부분임(백악관 kitchen garden 활동과 Let's Move 캠페인 추진)



- 전세계적으로 비농업인들의 먹거리 관련 활동 참여를 통한 대안적인 먹거리 추구활동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
 - 도시민들의 텃밭활동 열풍: 전세계적인 도시농업 활동 및 정책 열풍
 - 유럽의 사회적 농사(social farming) 정책수단 활성화 경향: 사회적 소외계층/질환자들의 농사활동 참여를 통한 치유 및 사회통합 효과와 농촌활성화 효과 제고(농가에서 사용가능한 바우처 제공)

- 건강한 먹거리를 매개로 하는 커뮤니티 활동의 활성화와 정책적 지원 추세: 텃밭 활동 + 지역공동체 차원의 가공, 유통, 조리, 소비활동의 연계(미국 농무부의 community food project 지원사업, 영국 런던 시정부/스코틀랜드/웨일즈 지방정부의 community food 관련 사업지원 프로그램 등)

○ 우리나라에서도 도시거주 비농업인들의 텃밭활동 의향 및 수요의 증가

- 텃밭 참여자들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음: 하지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텃밭 참여자들이 국내산/지역산 로컬푸드 구매에 더욱 큰 의향을 보임(2010년 농촌진흥청 조사)
-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도시농업 관련 정책들이 늘어나고 있음

□ 정책목표

○ 범정부적 로컬푸드 캠페인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로컬푸드의 가치 홍보 및 참여 확산

○ 비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텃밭 프로그램의 제공을 통하여 건강증진, 도시미관개선, 지역공동체 활성화, 여가 및 치유효과, 농촌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적 효과 달성

- 텃밭활동에 참여하는 도시민/사회적 취약계층의 수를 2배로 확대

○ 지역공동체 수준에서 다양한 먹거리 관련 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 정책내용

○ 비농업인의 텃밭 관련 프로그램의 확대

- 도시민들을 위한 개인용 텃밭, 지역공동텃밭, 주말농장, 클라인가르텐 등 다양한 유형의 텃밭공간 확대 공급
- 유희공간의 텃밭활용 활성화에 대한 제도적 지원: 온라인 통합사이트 활용 등의 수단
- 텃밭 수확물의 공동활용(요리나눔)활동에 대한 제도적 지원: 커뮤니티 키친 (community kitchen) 등에 대한 소규모 시설 및 활동 지원
- 사회적 취약계층(비농업인)을 위한 텃밭 프로그램 확대: 노인, 장애인, 질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농촌 텃밭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농촌지역 교육농장들에 대해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활용가능한 바우처 제도를 시행함

○ 식생활교육과 로컬푸드 가치의 접목 확산

- 현재 진행 중인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활동의 활성화 필요성
- 기존 교육프로그램의 개편: 기존 농업교육, 소비자교육 관련 프로그램의 로컬푸드 주제 수용을 통한 국민교육 활성화
- 학교텃밭 프로그램의 범정부적 확대 추진: 식생활교육의 중심적 공간/프로그램으로서 현재 농식품부의 스쿨팜 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전국적 규모에서 학교텃밭의 조성 및 활용 장려 (영국의 Food for Life partnership 프로그램 사례, 호주 정부의 스테파니 알렉산더 학교텃밭 재단(Stephanie Alexander Kitchen Garden Foundation)에 대한 지원 사례)

○ 범국민적 로컬푸드 캠페인 시행

- 건강한 먹거리 구매와 도농교류 활동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과 농촌 활성화 캠페인
- 미국의 Let's Move, 일본의 Food Action Nippon, 프랑스의 Bien manger, 영국의 Eat Seasonably 등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장려하기 위한 범국가적 캠페인 사례
- 아침밥 먹기 캠페인(일본), 신선한 지역산 제철과일 채소 섭취 캠페인(영국, 프랑스), 농촌 방문 캠페인(프랑스), 자기 텃밭가꾸기 캠페인, 자기가 먹는 먹거리와 자기에겐 먹거리를 제공하는 농부를 알아가기 캠페인(미국) 등 다양한 로컬푸드 관련 내용의 캠페인을 민간, 정부, 민관협력 차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개함

○ 중앙정부 차원의 중간지원기관(민관거버넌스기구) 설립

- 조례 제정, 계획 수립 등과 같은 지자체의 관련 활동 지원(일본 농림수산성의 “지산지소 모델타운 지원”사업 사례, 관련 심포지엄 개최 등)
-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기능: 일본 농림수산성의 “지산지소 메일매거진”(월1회) 발송
- 민간의 모범사례 지원(영국의 Making local food work 기금 사례: 관련 NGO 컨소시엄-복권 기금 지원)
- 지자체의 농식품 역내 마케팅 및 홍보활동 지원: 지자체 브랜드 및 인증마크의 역내 마케팅 활성화 지원(미국, 캐나다, 프랑스 사례)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 토론회

Sejong

Local Food



주최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

주관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장식의원

후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로컬푸드 연구모임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연구회

Local Food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 토론회

세종시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 모색

충남발전연구원
허 남 혁

세종시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 모색

- 대도시 중심적 관점에서 -

충남발전연구원
허남혁

우리나라 농식품 유통의 4대 미스터리: 로컬푸드 실현의 현실

1. 우리지역에서 갓 수확한 신선한 농산물을 살 수 있는가?
2. 학교급식에서 우리 지역산 농산물을 먹을 수 있는가?
3. 여행지의 식당에서 그 지역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가?
4. 여행지에서 그 지역의 특산물을 제대로 살 수 있는가?

문제의식: 농민생산 측면

- 생산하는 농산물을 과연 제값 받고 팔고 있는가?
-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수취하고 있는가, 농산물 원료 상태로만 판매하고 있는가?
- 고급 농산물만 판매하고, 나머지는 버리고 있는가?
- 농업생산활동에 대한 보람과 자부심, 소비자에 대한 배려를 과연 유지하고 있는가?

농가경제의 다각화와 로컬푸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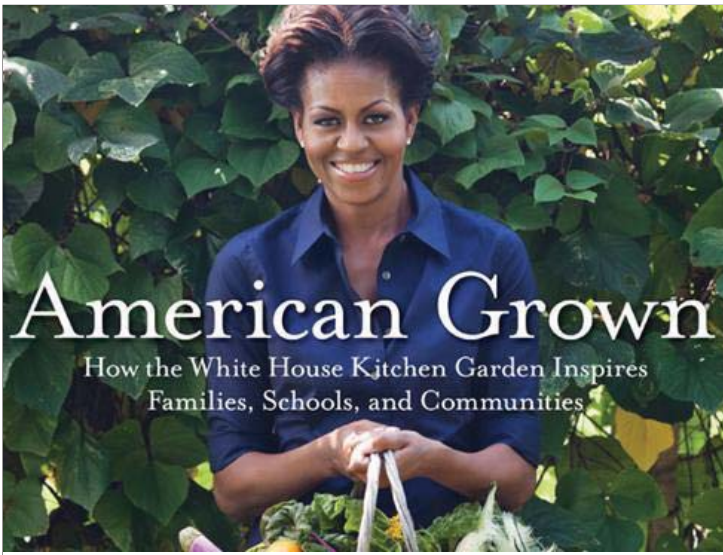
- 직판을 기점으로 가공, 식당, 관광, 체험/교육 등 다양한 활동의 복합화 가능
 - 농업생산주체를 중심으로 식품공급사슬을 재편하려는 노력: 자가 생산물의 현장 직접유통/가공/조리/판매활동 강화
 - 선진국 농정은 이를 장려하는 추세(농업생산정책⇒농촌개발정책)
 - 일본 농가의 12%가 직판장에 참여
 - 중소 가족농들의 새로운 소득영역으로 정책적 지원 및 개척: 규모화 방식이 아니라, 소비자와의 관계 차원에서의 새로운 접근
-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서야 6차산업화에 관심
 -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직판을 중심으로 하는 로컬푸드 정책은 부재

문제의식: 소비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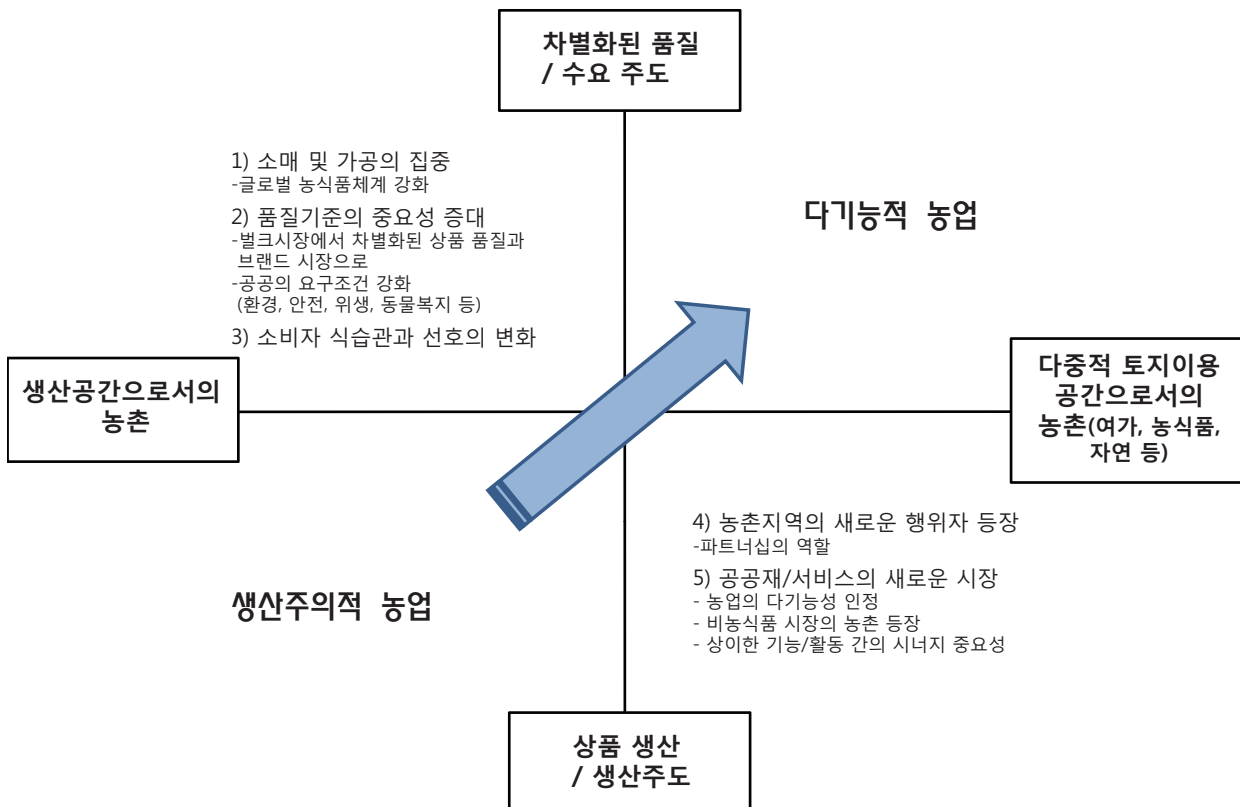
- 관광지
 - 관광객들에게 직접 판매하고 있는가? : 신선농산물, 가공품, 특산물, 음식(식당)
- 학교급식/공공급식
 - 관내 학생/기관들에게 우리지역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는가?
- 지역주민
 - 시내 시민들에게 우리지역 농산물/가공품을 공급하고 있는가?

소비자들의 새로운 수요

- 못믿을 공장가공품 => 수제가공품
 - 원재료, 첨가물, 사람손
 - 값싼 대중식당 => 진짜 지역의 음식(지역의 참맛)
 - 지역산 식재료, 기초재료(소금, 식초, 장 등), 조리방식
 - 건강, 지역,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
 - 친환경, 지리적표시 인증 등 고품질 농식품 수요 증가
 - 마트 쇼핑 => 농민 대면쇼핑(농가직판)
 - 생산자 확인, 상호소통과 신뢰
- => 슬로푸드, 로컬푸드로의 지향



농업·농촌 관련 시장과 정책의 추세



전세계적 추세 (1) - 새로운 정책트렌드

- **다기능적 농업, 농촌으로의 전환**

농업생산기능 중심 => 다양한 기능(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수행과 서로간의 시너지 극대화 전략

- **지속가능성 중심의 접근**

생산성 극대화 전략 => 생산성 & 사회성 & 생태성 간의 최적화 전략

- **푸드시스템Food system적 접근**

농업생산 위주의 접근 => 생산, 가공, 유통, 판매, 소비, 폐기단계에 대한 종합적 접근

- **소비 중심 접근**

농업생산 위주의 접근 => 소비 중심적 접근 (소비자의 건강, 영양)

- **도시와의 새로운 관계론적 접근**

생산공간(농촌)과 소비공간(도시) 간의 이분법 탈피: 양자간의 소통, 융합 경향

전세계적 추세(2) - 부상하는 개념들

- **시민농업(civic agriculture)**

농민만 영위하던 농업에서 => 모든 시민이 함께 행하는 공공의 농업으로

- **도시농업 (urban agriculture)**

농촌만이 아니라 => 도시에서도 농사를

- **도시근교농업 (peri-urban agriculture)**

대규모 특화작물 상업농에서 => 도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생태적인 체험형 다품목 소량농업으로

- **사회적 농사 (social farming)**

농업인의 상품생산 농업만이 아니라 => 비농업인들도 농사행위 자체에서 편익을 얻는 농업으로

- **로컬푸드 (local food)**

누가 어디서 어떻게 생산했는지 알 수 없는 글로벌푸드 => 거리도 관계도 서로 가까운 로컬푸드로

도시-농촌, 생산자-소비자 이분법의 새로운 융합(1)

○ 도시와 농촌, 농업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근대적 이분법이 점차 약화

- 농사활동이나 체험에 대한 도시민들의 새로운 수요가 창출: 도시농업의 활성화, 주말농장의 활성화, 농사체험활동 및 체험교육의 활성화

○ 먹거리가 누구에 의해 어디서 어떻게 생산되는지에 대한 도시민들의 관심 증대

- 각종 식품안전사고 등으로 인해 현재의 산업적 먹거리 생산방식에 대한 불신이 점차 증대: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도시민들의 관심 증대

- 간단한 먹거리는 직접 키워먹으려고 하는 도시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가공식품이나 외식음식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요리활동에 대한 도시민들의 관심이 다시금 증대

- 도시민들의 로컬푸드 활동 증진은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수요를 진작시켜 결과적으로 인근 농민들과의 로컬푸드 활동 역시 활성화시켜서 로컬푸드 시장을 확대하는 효과 창출: 농민장터, CSA, 직판장 등 인근 농민과의 거래 활성화

도시-농촌, 생산자-소비자 이분법의 새로운 융합(2)

○ 먹거리 소비공간으로서의 도시와 도시민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새롭게 발생

- 어떻게 하면 도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소비하도록 할 것인가의 측면에서 도시의 먹거리 정책이라는 새로운 영역이 형성: 런던, 토론토, 밴쿠버, 뉴욕, 암스테르담 등 전세계 대도시들이 최근 들어 먹거리 정책계획을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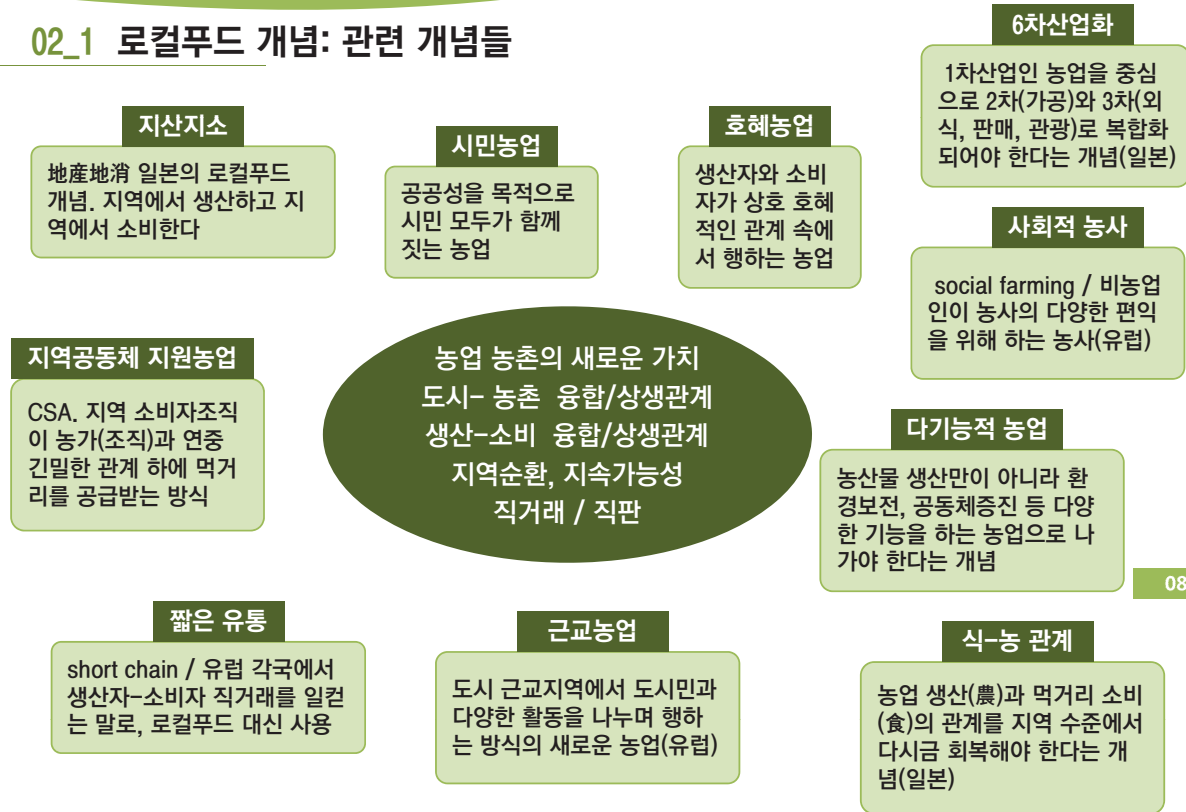
- 도시 저소득층의 건강한 먹거리 제공이라는 측면(지역사회 먹거리 보장 community food security)에서 도시농업과 로컬푸드의 가치가 새롭게 부각

○ 마을만들기 운동과 정책이 도시에서도 적용

- 도시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과 마을만들기 사업이 다양하게 진행
- 먹거리를 매개로 도시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로컬푸드 활동 역시 중요한 영역으로 간주됨

02. 로컬푸드 개념 및 의의

02_1 로컬푸드 개념: 관련 개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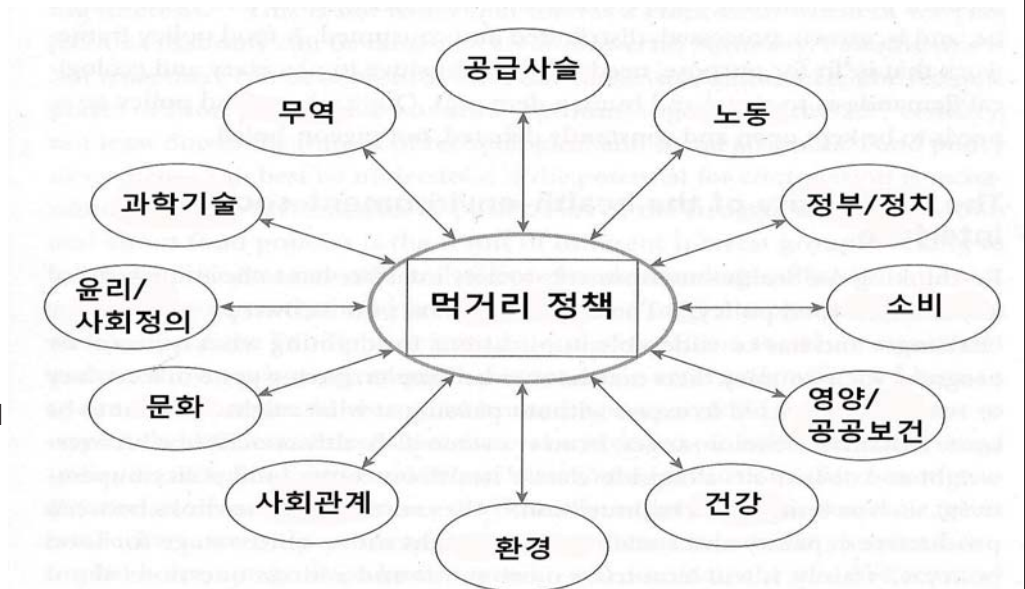
08

먹거리와 공급방식에 대한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

기 존	대 안
근대	탈근대
제조되거나 가공된 것	자연적이고 신선한 것
대량(대규모) 생산	장인 또는 수공(소규모) 생산
긴 먹거리 공급망	짧은 먹거리 공급망
비용의 외부화	비용의 내부화
합리화된 것	전통적인 것
표준화된 것	다르고 다양한 것
집약적	조방적
단작	생물다양성
먹거리의 동질화	지역적인 미각
대형마트	지역 시장(local market)
농화학물질	유기농, 지속가능한 농업
재생불가능 에너지	재생가능 에너지
패스트푸드	슬로푸드
양	질
탈배태화(disembedded)	배태화(embedd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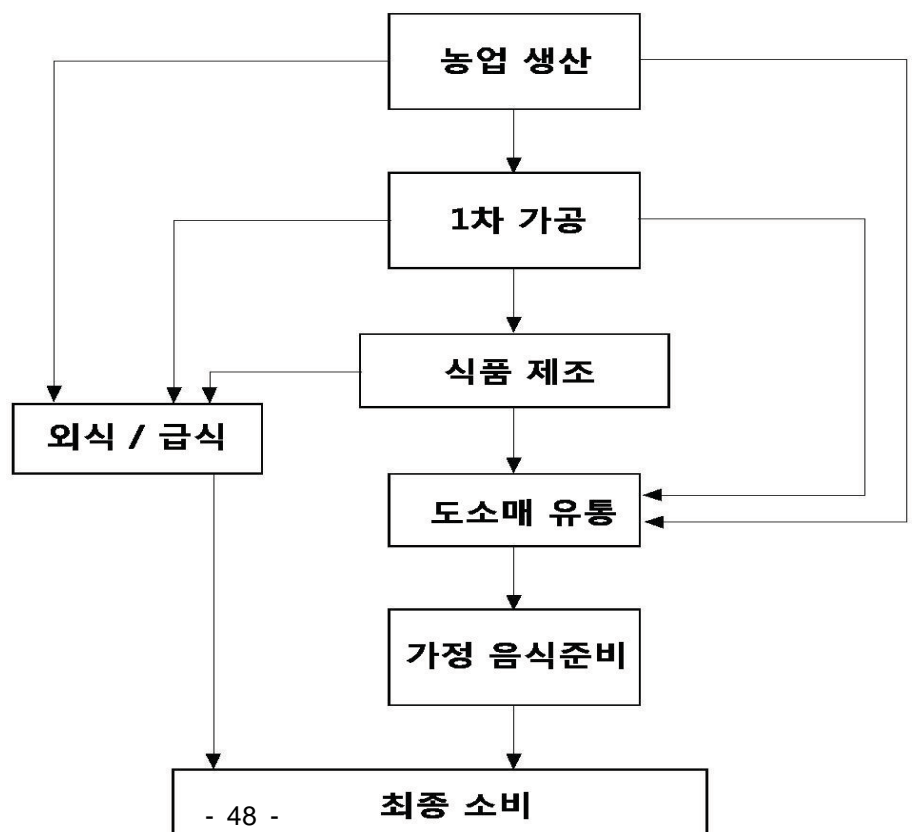
식품정책(food policy)의 범위

- 식품정책은 보건, 영양정책 그 이상
 - 점차 환경(지속가능성) 측면 강조
 - 생산과 공급사슬의 지속가능성/건강성 측면 강조
 - '식품안전' 컨셉 ➔ 건강하고(healthy) 좋은(good) 먹거리 컨셉



Tim lang et al. 2009, <Food Policy: Integrating health, environment and society>

식품시스템(food system)



충남 농식품의 지역순환 현황 (1)

- 농가직판/직거래 참여농가 비율

	2005	2010
울산	12.20%	18.04%
인천	10.01%	17.69%
대구	12.85%	16.41%
부산	28.27%	14.89%
서울	6.81%	14.12%
강원	8.15%	13.91%
대전	10.21%	12.79%
경기	8.95%	12.65%
충북	8.47%	12.34%
전북	7.14%	10.68%
전국평균	6.94%	9.75%
경남	4.57%	9.03%
광주	1.09%	8.56%
경북	6.62%	7.92%
전남	6.90%	7.79%
충남	5.36%	7.17%
제주	2.32%	4.41%

	2005	2010
천안시	8.88%	14.32%
계룡시	0.43%	12.75%
금산군	12.25%	11.02%
청양군	5.59%	10.74%
보령시	1.07%	8.11%
아산시	5.87%	7.47%
공주시	5.76%	7.19%
충남평균	5.36%	7.17%
당진군	7.44%	7.01%
서천군	1.02%	6.64%
예산군	6.08%	6.45%
홍성군	2.82%	5.62%
부여군	2.05%	5.12%
논산시	10.87%	5.09%
연기군	4.53%	4.51%
서산시	1.62%	4.31%
태안군	2.70%	4.17%

농가직판/직거래 참여농가 비율
(농림어업총조사)

2005년 충남 13위 (경남, 제주, 광주)
⇒ 2010년 충남 15위 (제주)

충남도내

- 상위: 천안, 계룡, 금산, 청양, 보령
- 증가율: 계룡, 보령, **서천**
- 감소: 금산, 논산

친환경농가 경우

-충남 11.4%(전국 평균 14.1%, 14위)

⇒향후 6차산업화를 통한 농촌활성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 (일본, 유럽 등
선진국 사례)

* 전국 지자체 중 서천 210위 (1위 가평군
39.5%)

충남 농식품의 지역순환 현황 (2)

- 농가가공/조리판매 참여농가 비율

	2005	2010
충북	1.21%	2.60%
강원	1.27%	2.06%
부산	1.78%	2.01%
인천	1.37%	1.95%
대구	0.90%	1.91%
경기	1.37%	1.76%
울산	3.92%	1.75%
경남	1.01%	1.74%
전국평균	0.91%	1.48%
경북	0.65%	1.34%
대전	0.99%	1.31%
전북	0.90%	1.18%
전남	0.67%	1.16%
충남	0.59%	1.08%
서울	1.52%	0.97%
광주	0.69%	0.85%
제주	0.21%	0.53%

	2005	2010
논산시	0.41%	2.43%
금산군	0.46%	1.56%
보령시	0.30%	1.47%
서천군	0.29%	1.30%
계룡시	0.85%	1.28%
아산시	0.44%	1.09%
충남평균	0.59%	1.08%
청양군	0.43%	1.01%
홍성군	0.27%	0.98%
서산시	0.32%	0.96%
연기군	0.59%	0.94%
천안시	0.73%	0.91%
공주시	0.62%	0.80%
예산군	1.62%	0.80%
태안군	1.49%	0.76%
부여군	0.29%	0.72%
당진군	0.62%	0.67%

농가가공/조리판매 참여농가 비율
(농림어업총조사)

2005년 충남 15위 (제주)
⇒ 2010년 충남 13위 (서울, 광주, 제주)

충남도내

- 상위: 논산, 금산, 보령, **서천**, 계룡
- 증가율: 논산, 보령, **서천**

친환경농가 경우

- 충남 1.6%(전국 평균 2.4%, 13위)

⇒향후 농가직판 활성화와 동반적으로
활성화되어야 농가소득 증대가 가능해지
는 영역임

* 가공: 서천 55위 0.7% (1위 괴산군 7.3%)
식당: 서천 143위 0.6% (1위 기장군 3.7%)
관광: 서천 86위 0.4% (3위 태안군 3.7%)

전국 시군 순위(2010)

직판	식당	가공	관광	전체
1 가평군 39.5	의왕시 3.8	괴산군 7.3	옹진군 8.5	가평군 41.8
2 시흥시 32.2	기장군 3.7	영동군 7.1	인제군 3.8	옹진군 36.2
3 부천시 27.6	옹진군 3.5	상주시 5.6	태안군 3.7	시흥시 34.7
4 옹진군 28.2	남양주시 3.5	산청군 5.3	양양군 2.7	부천시 30.0
5 광명시 27.1	양주시 2.7	함안군 3.7	영월군 2.2	기장군 29.5
6 기장군 26.4	광주시 2.7	광양시 3.4	평창군 2.2	광명시 28.7
7 안양시 24.1	인제군 2.5	의정부시 3.4	정선군 1.8	의왕시 27.4
8 안산시 24.1	울릉군 2.5	함양군 2.7	구례군 1.5	안양시 26.2
9 의왕시 23.4	속초시 2.3	영월군 2.6	양산시 1.3	안산시 26.1
10 울릉군 22.8	시흥시 2.2	논산시 2.0	남원시 1.3	괴산군 24.8
11 괴산군 21.3	가평군 2.1	하동군 1.9	강릉시 1.3	울릉군 24.7
12 군포시 21.1	의정부시 2.0	청도군 1.8	강화군 1.3	군포시 23.2
13 과천시 21.1	달성군 1.9	순창군 1.7	춘천시 1.2	구리시 22.3
14 구리시 20.3	양산시 1.9	문경시 1.7	화천군 1.2	남양주시 22.1
15 울주군 19.8	군포시 1.9	양양군 1.6	광양시 1.1	단양군 22.0
16 단양군 19.7	양양군 1.9	구리시 1.6	양평군 1.1	과천시 22.0
17 무주군 19.2	춘천시 1.8	진안군 1.5	거제시 1.1	춘천시 21.6
18 춘천시 18.8	포천시 1.7	달성군 1.3	홍천군 1.0	울주군 21.5
19 남양주시 18.4	평창군 1.7	보은군 1.2	동해시 1.0	양산시 21.2
20 양산시 18.0	안산시 1.6	횡성군 1.1	통영시 0.9	양양군 20.9

서천 농산물 생산 현황

	서천	전국	충남
쌀	80.0%	28.4%	43.7%
맥류	0.1%	0.8%	0.0%
두류	0.3%	0.6%	0.1%
서류	1.6%	1.4%	1.5%
과채류	8.0%	13.6%	23.0%
엽채류	1.6%	15.0%	13.3%
근채류	0.7%	7.6%	5.0%
조미채소류	5.6%	16.1%	6.3%
과실류	2.2%	16.5%	7.1%
계	100%	100%	100

품목군별 수량 비중(2010년)

- 서천은 쌀 생산에 전체 생산량의 80%가 집중되어 있는 구조
- 특히 서천에서 생산이 부족한 품목군들: 과채류, 엽채류, 근채류, 과실류 등 원예 분야

=> 향후 로컬푸드 직판 활성화를 위해 서는 다품목 작부체계 구축이 필수적인 과제

서천 품목별 자급률 현황

감	4874.8%
수박	1321.8%
쌀	1185.8%
한육우	950.7%
생강	930.3%
닭	639.8%
파	411.4%
고구마	303.2%
버섯	210.0%
마늘	202.6%
토마토	156.8%
포도	152.2%
돼지	149.6%
상추	136.1%
보리	133.6%
녹두	109.9%
시금치	101.5%

참깨	85.7 %
딸기	60.5%
감자	52.2%
양파	46.4%
무	44.6%
복숭아	42.2%
배추	41.7%
팔	40.4%
오이	39.1%
콩	37.9%
호박	36.1%
사과	29.1%

당근	18.4%
조	16.4%
배	13.1%
참외	5.4%
메밀	3.2%
수수	1.3%
땅콩	1.2%
옥수수	0.8%
양배추	0.0%
가지	0.0%
풋고추	0.0%
자두	0.0%

대부분의 과실류와
채소류가 지역수요
량에 비해 과소생산
되고 있음

자료: 서천군 수요량 대비 생산량
- 생산량 2010년
- 수요량 2009년 전국평균 x 서천군 인구

연기군 농업 현황

• 복숭아 집중특화, 배/포도/오이 집중

- 특화계수: 복숭아(2.89), 배(1.99), 닭(1.92), 오이(1.36)
- 충남점유율(면적): 복숭아(46%), 시금치(20%), 오이(8%), 배(8%)
- 증가세(5년전 면적대비): 배추(1525%), 시금치(566%), 무(260%), 고추(174%), 수박(107%), 오리(730%)
- 소득비중(생산액): 오이(94억), 고추(62억), 딸기(45억), 대파(40억), 수박(34억)

• 근교 원예농업 발달

- 딸기, 호박, 수박, 오이, 배추, 시금치, 무, 고추, 파 등

• 호당 경지면적

- 1.6ha (2010년 전국평균 1.23ha보다 약간 많은 수준)

• 친환경농업: 전국 대비, 충남 대비 평균 이하 수준

- 전국 농가수/인증면적/생산량(2009): 198,891호 / 201,688ha / 2,357,774톤
- 충남 농가수/인증면적/생산량(2009): 9,663호 / 15,521ha / 187,834톤
- 연기 농가수/인증면적/생산량(2009): 307호 / 302ha / 5,337톤

전국대비 점유율(일반): 0.15%(0.47%) / 0.16%(0.37%) / 0.22%

충남대비 점유율(일반): 3.2%(3.6%) / 1.9%(2.7%) / 2.8%

사회적 배경 1

현대 농업-먹거리 문제

- **기후 위기** - 기상이변 빈발 => 농업생산 불안정
- **식량 위기** - 저가식량시대의 종말 => 식량가격 급등 - 전세계 10억명의 기아
- **에너지 위기** - 현대농업의 지나친 석유/에너지 의존 => 석유고갈, 유가상승 영향
- **자원 위기** - 현대농업의 자원소비방식(물, 토양, 숲, 생물다양성) => 자원고갈 심화

- **농민/소농 위기**
 - 소농 생존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 - 제3세계의 대농장화/농업노동자 전락현상 심화

- **식품안전 위기**
 - 축산질병: 광우병, 조류독감 등 - 화학물질: 항생제, 성장호르몬, 식품첨가물, 잔류농약

- **건강 위기**
 - 비만과 당뇨: 가공식품/패스트푸드/정크푸드 과다섭취, 채소과일 과소섭취 문제
 - 아동비만의 확산과 건강불평등 심화: 저소득층의 비만/당뇨 노출 증대

⇒ 복합적인 위기상황으로 인해 향후 농업생산과 소비자의 건강 지속여부가
중대하게 의심받고 있는 상황

로컬푸드 개념

-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가깝게 생산-소비하는
먹거리**
 - 물리적 거리 / 심리적 거리감

- **지역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생산하고 소비
하는 먹거리**

- **농민이 생산한 현장에서 소비자를 마주보면서 판
매(직판)하는 먹거리**

로컬푸드의 의미

- **농민적 관점**

- **농촌에서의 농민직판 활성화:** 서울에 갖고가서 팔거나(가락동), 중간업자에게 헐값에 넘기거나, 대형마트나 식품회사에 원재료로 싸게 넘기는 방식이 아님
 - => 농촌 현장이나 인근 도시에서 지역주민이나 도시민(관광, 체험목적)을 상대로 직접 얼굴 보고 판매하는 형태: 농민장터, 직판장, 꾸러미, 농가식당, 지역생협, 학교급식/식당 직거래
- **상품으로서의 먹거리 판매가 아니라, 맥락을 지닌 먹거리+서비스의 제공(현장에서만 가능):** 체험, 교육, 휴양, 치유 등의 효과
- **농민들이 직접 가공에 참여하여 판매:** 부가가치의 추가적 수취, 물량조절
- **소외되지 않고 보람있는 농업노동:** 소비자를 배려하고 소비자의 감사에 보람을 느끼는 농업생산노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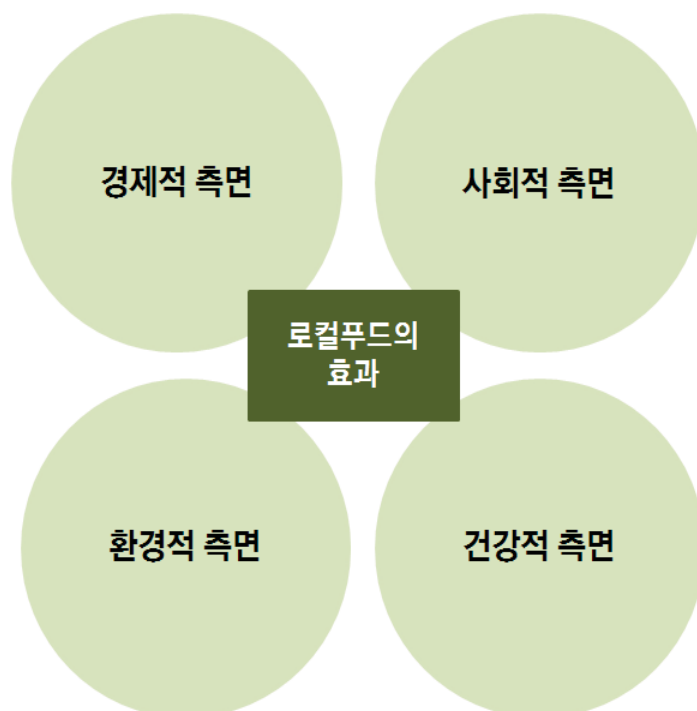
- **소비자적 관점**

- **신선한 과일과 채소 섭취의 증진:** 로컬푸드의 장점
- **가깝고 출처가 분명한, 믿을 수 있는 먹거리의 소비**
- **윤리적 소비:** 우리 지역, 우리 지구, 우리 농민

⇒ **농민 생산자와 소비자의 그간 소외되고 단절된 관계를 회복**

- 도시-농촌간 먹거리 공동체의 회복, 먹거리에 대한 지역적 통제력 회복
- FTA 시대에 가장 강력한 경쟁력 요인: 농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관계와 한국농업에 대한 역할과 의미 부여

로컬푸드의 효과



해외 정책사례

- 미국 농무부(USDA)의 Know Your Farmer, Know Your Food(2009)
- 프랑스 농림식품부의 circuits courts(short chain) 증진정책(2009)
- 일본 농림수산성의 지산지소(地産地消) 추진정책(6차산업 화법, 2010)
- 네덜란드 농림부의 다기능적 농업(MFA) 육성과 로컬푸드 정책(2008)
- 영국의 로컬푸드 중간지원기관(Making Local Food Work)



03. 국내외 사례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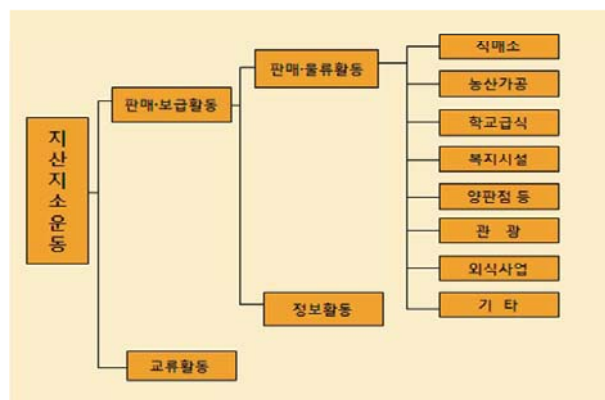
충남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 연구

03_1 해외 정책사례 (1) 일본의 지산지소 地産地消

중앙정부

- 食-農 재생계획 (2002)
-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 (2005)
- 食育추진기본계획 (2006)
- 21세기신농정 2006
- 6차산업화법 (2010)
- 지역 농림수산물 이용촉진 기본방침(2011)

- 지역농산물 직판장
전국에 16,816개소, 연매출 8,767억엔 (2009)
농민의 가격수취율 80%
다양한 농가공품 판매-가공부가치수취
- 학교급식
지역농산물 이용비율 30% 목표 (2015)
- 농산가공업체
지역농산물 이용비율중 구매액의 79.5% (2003)



지자체

- 지산지소 추진조례 제정
- 지산지소 추진협의회/추진본부 구성
- 지산지소 추진계획 수립

12

03. 국내외 사례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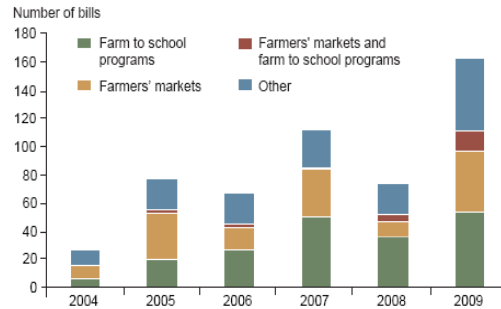
03_1 해외 정책사례 (2) 미국 농무부의 Know Your Farmer, Know Your Food

중앙정부

- 농민-소비자 직거래법 (1976): 농민장터 지원
- 개정 농업법 (2008)
- 농무부의 <Know Your Farmer, Know Your Food> 프로그램(2009): 로컬푸드 지원대책
- 식품안전현대화법(2011): 소농 가공품의 식품안전 규제 면제

- 농민장터 (farmers' market)
전국에 7천 개소, 해마다 1천개소 증가세 (2011)
- 지역공동체지원농업(CSA)
전국에 1천 개소 이상 추정
- 농가-학교 직거래 프로그램(farm-to-school)
전국에 2,300여개 프로그램, 1만개 학교 참여 (2011)
명문대학 포함 167개 대학 참여(farm-to-college)
- 지역식량정책위원회 (food policy council)
주정부, 시정부, 카운티 포함 전국에 100개 이상 (2011)

Figure 11
State legislative bills focusing on local foods, 2004-09



Source: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Healthy Community Design and Access to Healthy Food Database 2010.

지자체

- 로컬푸드 관련 법률 제정
- 지역식량정책위원회 구성
- 건강한 먹거리/로컬푸드 캠페인
- 로컬푸드 인증마크 사용
-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소농 가공품의 식품안전규제 면제

13

03. 국내외 사례 검토

03_1 해외 정책사례 (3) 영국의 Making Local Food Works 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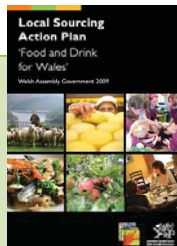
중앙정부

- 환경식품농촌부(DEFRA)의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식품 전략> 보고서(2002)
- 공공부문 농식품 구매 계획(PSFP)(2004)
- 학교급식재단 설립 (2005)

지자체

- 웨일즈 정부의 로컬푸드 조달계획(2009), 웨일즈 식품전략계획(2010)

- 농민장터 (farmers' market)
전국에 800개소 이상(2009), 전국협회 결성
- 지속가능한 먹거리 도시 네트워크 결성 (2011)
카디프, 브리스틀, 맨체스터 등 20개 도시
- 리얼브레드(real bread) 캠페인 (지역공동체후원 제빵)
지역산 밀과 식재료로 전통 발효법으로 빵을 만드는 동네빵집 인증/지원하는 NGO 주도 캠페인
영국 전역 100곳 이상



중간지원기구: Making Local Food Works

- 로컬푸드 관련 활동지원 기금(복권기금으로 운용되는 NGO 컨소시엄)
- 농민장터, CSA
- 지역생협, 동네빵집/정육점
- 학교급식, 병원급식
- 개인텃밭, 커뮤니티 텃밭, 학교텃밭
- 로컬푸드 관련주체 네트워크 활동

14

03. 국내외 사례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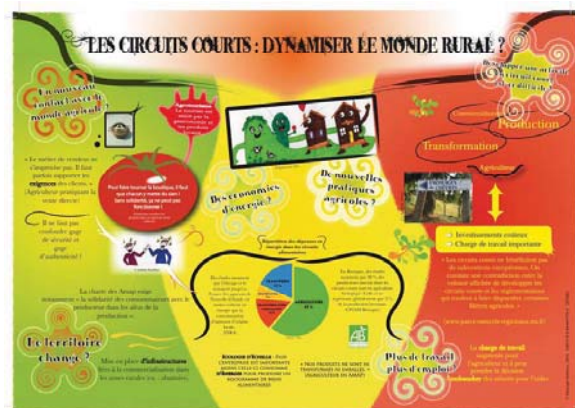
03_1 해외 정책사례 (4) 프랑스의 <짧은유통 circuits courts> 지원정책

중앙정부

- 믿을 수 있고 다양하며 지속가능한 농식품 공급 정책 실행계획(2008)
- 짧은유통 실행계획(2009): 4대축 14개 실천과제
- 농어업근대화법(2010): 짧은유통 증진, 외식/급식부문의 로컬푸드 공급의무 명시
- 국가식품프로그램 (2010)

“농식품의 짧은 유통(직판)은 농민과 소비자 간에 좀 더 직접적인 연결을 추구하는 것이다
... 이는 참된 농식품, 가까운 제철 농식품, 사회적 연대를 추구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켜주며, 농민들의 부가가치를 증대시켜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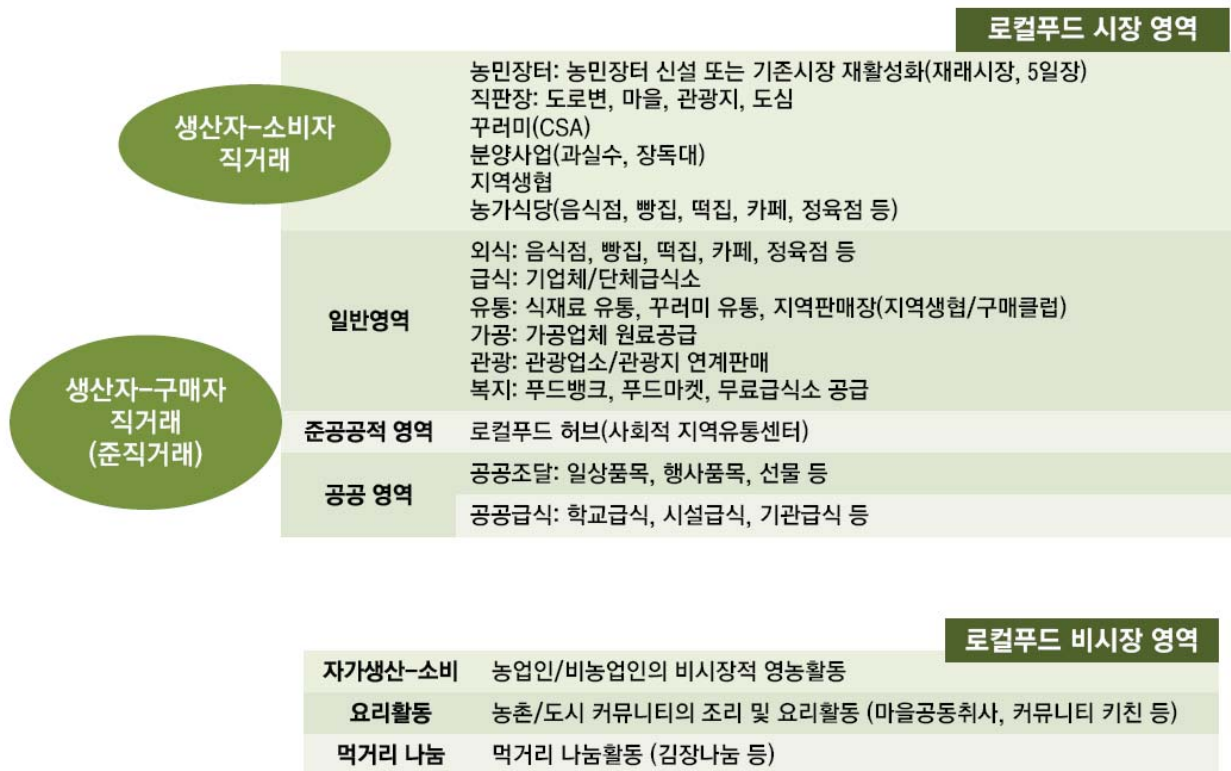
- 프랑스 농식품부



- 짧은유통 정의: 생산자-소비자 직거래(직판: 농민장터, 수확체협, CSA, 온라인), 또는 간접 판매의 경우 한 단계의 중개인(외식, 급식, 소매점)만을 거치는 농식품의 판매 방식
- 88,600 농가가 직거래 참여(전체 농가의 16.3%), 그 중 47%는 가공 수매 (2005)
- 농민장터 참여농가는 1천 농가, 소비자 10만명 이상(2007)

15

로컬푸드 수단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 (1) 농가직판 활성화

- 농가 개별의 스토리와 산물의 속성이 그대로 소비자에게 커뮤니케이션 될 수 있도록 판매: 6차산업화의 첫 단추(체험, 교육, 숙박, 식당, 가공)
- 하지만 판매방식은 조직화: 공동판매를 위한 생산자 조직화 필요
- 지역 특성을 살린 다양한 품목과 농가수제 가공품, 음식이 제공되어야 함: 작부체계의 변화, 가공활성화 노력 필요
- 판매방식은 다양화: 농민장터, 직판장(도로변, 마을, 관광지, 도시 내), 꾸러미, 농가식당
- 궁극적으로 농가마다 단골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자, 농가수취가격 2배 증대 가능(40%=>80%)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 (2) 공동체활동 활성화

- 비농업인의 텃밭가꾸기 장려
 - 도시농업
 - 농사활동 통한 치유활동(청소년, 노인, 질환자 등): social farming (유럽연합의 핵심 농촌개발활동)
- 다양한 식생활교육
 - 텃밭교육 + 요리교육 + 미각교육의 통합화
- 공동조리활동 장려
 - 도시: 커뮤니티 키친
 - 농촌: 마을공동급식

⇒ 도시민과 농민의 새로운 연대의식, 연결고리 찾기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 (3) 협력활동 활성화

- 다양한 농업 외 지역주체들과의 수평적 협력관계 모색
 - 지역을 우선적으로 사고
 - 모든 지역주체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 로컬푸드를 위해 모두가 노력
 - 판매/소비주체와 농민 생산자와의 만남을 통한 의사소통 활성화: 정보교류, 의견교환
 - 가공분야, 유통분야, 관광분야, 외식분야, 급식분야 주체들과의 우선적 협력
 - 로컬푸드 협력식당/숙박시설/고속도로휴게소 등
 - 학교급식/공공급식/시설급식/식품지원 등: 지자체의 솔선수범과 지침작성

⇒ 그간 서로 대화하지 않았던 생산-소비 주체 간의 소통 시작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

(4) 제도적 지원 활성화

- 로컬푸드의 생산-소비 진작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함
 - 중간지원역할: 생산-소비 연결작업, 사업컨설팅, 다양한 행사 진행(로컬푸드의 날, 로컬푸드 요리경진대회 등)
 - 정보 수집 및 제공: 포털 홈페이지 구축
 - 캠페인: 지역 차원의 분위기 진작과 소비진작 위한 활동
 - 마케팅: 지역주민/방문객 대상 농특산물 마케팅 전략
 - 교육: 생산-유통-소비주체 대상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진행
 - 조직화: 로컬푸드 생산 및 직판의 조직화
 - 거버넌스 구축: 민주적 의사결정 주체의 구축

Local Food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 토론회

세종시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

세종시 로컬푸드연구회 회장
이 기 용

세종시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

세종시 로컬푸드연구회 회장

이 기 용

세계가 급변하고 있는 요즘 농업산업 분야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먹거리 음식문화도 다양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먹거리 식재료는 원천적으로 소비자 수요층에서는 건강한 신선 식품 식자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금에 와서 지구의 오존층이 두터워지고 산소보다는 탄소함 유량이 많아지고 있고, 날이 갈수록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대기권의 산소는 심각한 상태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토양은 중금속으로 오염되고 있고, 실개천이나 강물은 극심한 오염으로 농업용수, 공업용수로도 이용 하는데 고민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오늘 세종시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 자리가 세종시 농축임업에 종사하는 산업인들의 새로운 출발의 전환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관계를 공급자와 수요자의 관계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수요와 공급이 유통시장에서 적절하게 조정이 이루어 질 때 시장 기능은 선순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로컬푸드 시장 기능이 활성화 되어 갈 때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고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생산, 가공, 유통산업이 융합을 이루어 6차 산업으로 발전해 나간다면 우리의 소득은 증가할 것이고 삶의 행복지수는 향상도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완주군 한우 전문 식당에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왔습니다. 어느 마을기업에서 운영하는데 소고기 에서부터 모든 식자재는 그 지역에서 신선 식자재로 가격도 저렴하여 문전성시를 이루어 가고 있고, 관리 운영 주체 지역 주민이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좋은 본보기를 보고 왔습니다.

식당에서 일하시는 구성원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한 일자리 창출,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세종시 로컬푸드 로드맵입니다.

이것이 창조경제요, 경제민주화로 가는 우리들의 방향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생산자 즉 공급자는 신선한 먹거리 식자재를 수요자에게 공급하는데 지켜야 할 덕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생산자 농업 산업인에게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식자재 먹거리를 생산하여 공급하시기를 권면합니다.
2. 우리 농업산업인은 1차,2차,3차 산업을 토탈 관리하는 6차 산업 전문경영인이 되어야합니다.
3. 우리 농업산업인은 정확하고 확실한 계획 영농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소득을 올려야 합니다.
4. 년 소득 희망 목표치를 계상하고 목표치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농업경영인이 되어야 할줄로 압니다.

저는 7년전 귀촌을 결심하면서 희망 목표치 년봉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노령 노동력, 여성노동력, 가족산업으로 경영할 수 있는 업종선택을 고민하던 중 어느 책 속에서 기능성이 풍부한 블루베리 과수 나무를 보게 되어 수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블루베리 과수 나무는 병충해에 강한 나무로 친환경유기농 재배가 가능함을 직감했고, 수고가 낮아

열매따기, 전정작업, 비배관리가 용이함을 느꼈고, 기능이 탁월하여 세계적인 명과로 이미 홍보가 되어 있어서 수요층이 두껍다는 현실을 직감하게 됐고, 조·중·만생종으로 식재하여 노동력 분산으로 노무 관리가 좋아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에 일본 블루베리 협회 세미나에 2박 3일 동안 현장 관광농장을 돌아다니면서 블루베리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담아 왔고요. 일본 블루베리가 한국보다 10년 먼저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창업정신으로 접근을 하였습니다.

창업은 전문 경영인의 마인드를 필요로 합니다.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농축수산업인도 CEO가 되어야 합니다. CEO 눈으로 봐야 저는 확신하건대 로컬푸드가 나아가야 할 길이 보일 겁니다. 로컬푸드는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는 새 판을 짜는 작업입니다. 새판을 짜는데는 전문 경영인 CEO가 필요로 합니다. CEO는 관리능력이 출중해야 합니다.

경영관리를 세분화해서 정리해 보면

1. 생산관리

신선하고 건강한 먹거리 식자재를 만들어 내려면 계획적이고 과학적인 기록에 의한 생산 관리가 절대 요구사항입니다.

2. 물류관리

블루베리 같은 열매는 적기 (아침이슬 걷힌 후)에 따서 최단시일에 블루베리 메니아 고객 냉창고에 넣어주는 작업이 필수 요건입니다.

이 과정은 이슬이 걷히고 열매를 따서 선별작업-포장작업-저온저창고-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온 냉동차에 탑재 운송-고객 냉창고에 저장/ 이러한 유통구조 시스템을 콜드시스템 물류방식이라고 칭합니다.

3. 고객관리

최우량 고객관리로 재 구입할 수 있는 고객감동관리가 중요합니다.

4. 인사노무관리

적재 적소에 노무관리는 경영기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믿음을 담보로 한 인사 노무관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5. 재정 금융관리

눈만 뜨면 지출되는 게 돈입니다. 지출행위에는 필히 영수증을 교부받아 일일 결산하는 마음으로 장부 정리를 필히 해야 하고, 금융비용(은행이자)은 줄여나가는 것이 상책입니다.

6. 리스크관리

CEO 리스크관리는 철저한 체크 리스트에 의한 평상시 습관화되어야 합니다.

귀한 상품이 판매 행위가 이루어 질 때는 구두건 서면이건 납품 방법과 결제 조건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7. 창고 재고 관리

창고 재고는 항상 기록에 의한 날자별 일출고를 관리하고, 년중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8. 자기 자신관리

자기 자신관리가 경영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관리입니다.

표정관리, 의상관리, 매너관리, 언어관리, 몸매 행동, 걸음 걸기관리, 유머관리, 시간관리, 식당에서의 좌석관리, 내차에 태울 때와 상대방차량에 탑승할 때 매너

이러한 관리 등이 평소에 내공이 쌓인 철저한 관리 시스템이 성숙되었을 때 우리가 염원하는 로컬 푸드도 순항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가야할 로컬푸드, 갈 길이 멀고도 험준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여기에는 생산자와 소비자, 공급자와 수요자가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곳이 있기 때문에 가다보면 그 길이 험준할 지라고 7부8부 능선을 지나 정상을 오르면 어려웠던 모두가 해소 되듯이 우리는 그 길을 찾아 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힘차게 출발 합시다!

Local Food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 토론회

로컬푸드 활성화에 대한 소비자의 입장

한솔동 주부
김영희

로컬푸드 활성화에 대한 소비자의 입장

한솔동 주부

김 영 희

먼저 무엇보다 이제 세계최고의 명품도시로의 출발을 하고 있는 세종시에 로컬푸드 연구회가 탄생되었다는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명품이란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장인의 숨결이 묻어나고 역사가 지속되어 온 것이 곧 명품이 아닌가 합니다.

세종명품도시에 걸맞게 로컬푸드또한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세종시에 걸맞는 참먹거리들이 많이 생산되어 건강, 장수도시 세종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종시 인근 농업인들이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농산물과 가공품, 음식점, 관광, 체험등을 통하여 더욱 높은 수익원이 되어 더불어 행복명품 도시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화두는 몇 년전부터 웰빙과, 힐링인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실버산업 또한 호황이 되었습니다.

건강백세가 이제는 일본이나, 유럽의 어느 장수마을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들 세대가 되었습니다.

웰빙과 힐링은 쉽게 말하면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예전과는 많이 인식이나 욕구가 달라졌습니다.

잘 먹는다는 것은 예전과 같은 양적인 수준이 아니라 우수한 것들을 적게 먹더라도 골라서 똑똑하게 먹자는 것이고, 잘 사는것 또한 돈 많이 벌어 부자로 사는것만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여 품격 있는 삶을 살고자하는 욕구가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슬로우푸드, 슬로우 시티, 디지로그, 감성지수, 영성지수 이런 언어들이 유행어 처럼생겨나는것 아닐까합니다.

한때는 세로토닌 열풍이 잠시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엔돌핀호르몬이 대세였으나, 어느 순간부터 행복 호르몬이라도 불리는 세로토닌에 대한 정보들이 쏟아졌습니다.

이 세로토닌은 뇌에서 전달되는 신경전달물질로써 행복하고 편안한 안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해주어 심신의 안정을 찾아주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시형 신경정신과 박사님의 명상을 아주 좋은 수단으로 권장하기도 합니다.

명상을 할때 그 잔잔한 마음이 바로 세로토닌의 분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예전의 속도보다는 좀 더 느리게, 그리고 좀 더 천천히를 권장합니다.

맨발로 걷기를 권장하고, 자전거 인구가 급격히 늘어가며 캠핑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생협, 의료생협 등이 점차 늘어가는 것은 소비자인식의 전환이며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우리의 삶을 웰빙과 힐링으로 안내하는데 크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의식주에서 먹거리보다 중요한것 또한 없겠습니다.

저 또한 예전보다 식재료의 구분이 많이 까다로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신선한것, 우수한것, 검증된것을 찾습니다.

이 세가지가 충족이 되면 가격의 차이에는 크게 따지지는 않게 되지요.

왜냐하면 이런 욕구가 만족되는 농산물은 우리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 보답이 얼마의 가격차이로는 따질수없이 크다는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 입니다.

또 이런 농산물들은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재배되어 택배비를 지불하더라도 꼭 찾게 됩니다.

턱낫한스님은 먹는것 자체가 하나의 깊은 수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먹는 수련이 되어야 적게 먹고, 천천히 먹으며, 양보다는 질 좋은 유기농품들을 먹게 되어 몸도 살리고 농부들도 살리는 길이라고 합니다.

이제 세종시인근에 이런 우수농산물들이 재배되어 로컬푸드로써 기능이 되어진다면 세종시에 거주하는 주부로서는 큰 행운인것이 분명합니다.

가끔 조치원 인근으로 지나가다 보면 경치 좋은 시골이 참 많습니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참여하여 체험해볼 수 있는 다양한 농장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하고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소비자는 너무나 많은 정보와 손안의 컴퓨터로 인해 너무나 쉽게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교 검색 또한 아주 순식간에 할 수 있어 소비자로서는 아주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똑똑한, 별난 소비자의 욕구에 맞추는 길은 최고의 품질을 내놓는 길밖에는 없을 것 입니다.

요즘 가끔 농사를 예술농업으로 구분하시는 분들을 만나기도하고 지면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농사를 예술을 하듯 장인정신으로 명예를 걸고, 마치 작가가 작품을 탄생시키듯이 농산물을 작품으로 내놓으시는 분들을 만납니다.

거기에는 땅을 일구고 씨를 뿌려서 수확때까지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수확물에 자신을 사진을 붙이고 실명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만들어 언제든지 재배여건을 확인하며, 의견을 나눌수 할 수 있게하고 좋은 정보도 함께 공유 합니다.

신뢰를 보여주는것이지요.

소비자는 더 좋은것을 찾습니다.

우리집에서는 고구마를 예로 들면 무안의 행복한 고구마를 일년 내내 먹습니다.

명절에 선물도 고구마로 합니다.

정말 명품고구마입니다.

선물 받으신 분들도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무안의 행복한 고구마농장주 김용주, 이정옥 두분의 인연은 십년이 넘습니다.

저희 부부의 멘토이기도 합니다.

이분들의 농사이야기를 들으면 감동입니다.

병원에서 의사만 의술로 사람을 치유 하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농업에 열정을 가지고 참 먹거리를 제 공해주는 농사야말로 진정한 의술이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좋은 먹거리는 병으로부터 예방과 치유를 하게함으로 어찌 의술이 아니겠습니까.

행복한 고구마농장의 두부부께서 공부하고도 연구하는것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일년에 한번은 꼭 일본이나 유럽의 선진농법을 공부하러가십니다.

그리고 8월이 되면 고구마 축제를 행복한 농장에서 매년 여시는데 전국에서 수백명 열성팬들이 다녀갑니다.

그 두분을 뵙고 있으면 저 또한 큰 힐링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번 8월 축제에서는 또 어떤 신비한 농사이야기를 들려주실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저는 바랍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 이런 농업인들이 많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생산자는 소비자들이 얼마나 팔아줄까가 염려되시겠지만 우수만 농산물만 재배가 된다면 그것은 기우일듯 합니다.

설사 우수한 농산물이 생산되었다가도 그것이 지속되어질지에 대한 염려도 있습니다.

신뢰가 가장 큰 관건이므로 신뢰가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할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런 노력들이 모여 우수한 지역문화가 되고 한 차원 높은 수입원이 될것입니다.

3년전 독일현대 미술관 여행을 하였습니다.

뒤셀도르프 남쪽에 인젤 훔브로이히 미술관을 가보고는 정말 부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작은 도시 노이스의 한적한 강가에 지어진 이 미술관은 세계 숨겨진 미술관 top 10에 들었을 만큼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후 세계적이 명소가 되어 독일 여행에서는 빼놓을수 없는 여행지가 되었습니다.

한적한 시골마을에 생겨난 이 미술관은 마치 작은 숲속을 하루 종일 걷는듯합니다.

입장료만 지불하면 숲속에 흠어진 여러 미술관 관람을 하고 식사도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가건물처럼 지은 소박한 식당에 도착하면 그곳에서 생산된 유기농 식재료로 아주 소박한 식사가 제공이 됩니다.

빵과 각종 과일잼들, 저절로 익을 못생긴 과일들, 스프와 찐감자, 찐 계란등.

여기 저기서 흠어져서 한가롭고 소소한 식사를 합니다.

그 풍경이 얼마나 여유롭고 신선한지 지금도 눈에서 선합니다.

여러나라의 관광객들이 일년내내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날 어떤 식사보다 몸이 행복한 식사를 했습니다.

세종시도 가까운 인근에 너무나 경치가 이쁜 곳들이 많습니다.

사람은 계획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보다는 희망이 살게 가게 하는 힘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이제 작은 걸음으로 시작하는 로컬푸드 연구회 이지만, 홍브로이히 같은 곳이 세종시에서도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생산자도 소비자도 함께 더불어 비전을 가지고 만들어 가야 가능할것입니다.

생산자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소비자 교육도 중요합니다.

주변환경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관광, 체험, 축제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서로 조율해 가야할것입니다.

세종시에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엘리트들이 가장 많이 사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수준을 한층 높여서 소비자 눈높이에 맞추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꿈꾸는 농업인, 공부하는 농업인, 예술농업인, 도인 농군들과 함께 소비자들 또한 애정과 관심을 좋은 이웃으로 함께 더불어 건강백세 세종시민으로 살아가기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Local Food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 토론회

세종시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신 은 주

세종시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

■ 세종시 농산물 생산현황

<2011년>

구분	식량작물				과채류					엽채류			근채류
품목	미곡	잡곡	서류	두류	수박	토마토	딸기	오이	호박	배추	시금치	상추	무
재배면적(ha)	3791	27	55	264	106	10	31	69	18	51	1	1	18
생산량(톤)	19505	34	976	400	4616	582	797	4910	610	4395	29	18	282

구분	조미채소		과실류						특용작물			
품목	고추	파	배	복숭아	포도	자두	사과	감	참깨	들깨	땅콩	인삼
재배면적 (ha)	49	31	279.3	314.3	106	1.6	2.4	2.2	20	44	2	34.3
생산량 (톤)	89	740	9451	5473	1880	15	33	26	11	30	3	146

※ 계란 : 48톤/년 생산

■ 세종시 농업 품목별 연구회 조직현황

구 분	식 량		과채류						과 수			축 산			기 타		
품 목	벼	감 자	딸 기	오 이	수 박	고 추	호 박	절 임 배 추	복 송 아	배	포 도	한 우	낙 농	한 돈	무 화 과	농 촌 관 광	인 삼
인원 (명)	55	23	92	89	112	88	16	21	145	150	145	51	82	32	8	45	37

■ 세종시 로컬푸드 사업은

-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연구회 결성(2013년 2월)
 - 회원 80명 : 60개 농축산품목 분과별(과수,축산,채소가공 등) 생산
 - 정회원, 준회원 교육 양성을 통해 매월 11일 생산자 혁신 교육 실시
 - ※ 전동면 지역 농가를 중심으로 필요성 제기, 자발적으로 움직임
- 농축산물 로컬푸드 직판장 시범운영
 - 장 소 : 세종시 조치원읍 (로컬푸드 연구회 사무실)
 - 운영시간 : 오전 10시~오후 6시30분
 - 품 목 : 축산품, 농산품, 가공제품 등

■ 세종시 로컬푸드 사업 발전방안

【로컬푸드사업 성공요건】

- ▶ 로컬푸드 마인드 제고 : 끊임없는 교육(생산자 / 소비자)
- ▶ 재배농민 조직화 및 품목의 다양화
- ▶ 지역의 리더, 운영전문 조직, 직원 필요
 - 상업적 장사가 아닌 “농업 농촌을 사랑하는 열정 있는 리더
- ▶ 생각있는 합리적인 소비자 필요
 - 첫마을, 조치원읍 지역등 안전한 먹거리 요구 소비자 증대 예상

【조직설치 운영 측면】

- ▶ 세종시 로컬푸드사업 지원 전담부서 설치
 - 행정·기술센터·농협 등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 ▶ 사업추진 주체 : 법인 설립(농협 등 자금출자 방식 / 지역농협)

- 학교급식지원 컨트롤 센터 설치
- ▶ 세종시 로컬푸드연구회 지속육성
 - 농작물 품목별연구회와 연계 로컬푸드 생산기반으로 육성
 - 농산물 품목별 생산기술, 작부체계 기술교육 실시

【로컬푸드 사업추진 측면】

- ▶ 사업추진 주체(별도 사업법인)에서 전담 운영
 - ▶ 지역농축산물 로컬푸드 직판장 설치
 - 한솔동 첫마을 지역 : 별도 직판장 설치
 - 조치원읍 : 농협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등에 별도 판매코너 설치
 - ▶ 학교급식지원 컨트롤 센터 설치 : 학교급식 지원
 - 조례제정 : 시민발의제 도입
 - 계약재배 체결 및 소비자 요구 작물 재배 기술지도
- (행정, 농업기술센터, 생산자, 소비자 단체 연합 위원회 구성)

Local Food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 토론회

세종시민의 안전한 먹거리체계 구축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및 협동기금 조성

지역농업네트워크 대표
박 영 범

[1] 세종시민의 안전한 먹거리체계 구축

- ① 푸드플랜(Sejong Food Plan) 수립
- ② 친환경학교급식센터 운영
- ③ 공공급식 참여 강화 (푸드뱅크, 푸드스탬프)
- ④ 소비자 생협 육성 (아파트생협 등)
- ⑤ 식교육 및 도시농업 활성화 (교육농장, 농민장터)

[2]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및 협동기금 조성

- ⑥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 지원 (돌봄, 육아, 의료, 협동)
- ⑦ 협동기금 조성 및 협동조합복합체 육성 (협동조합 생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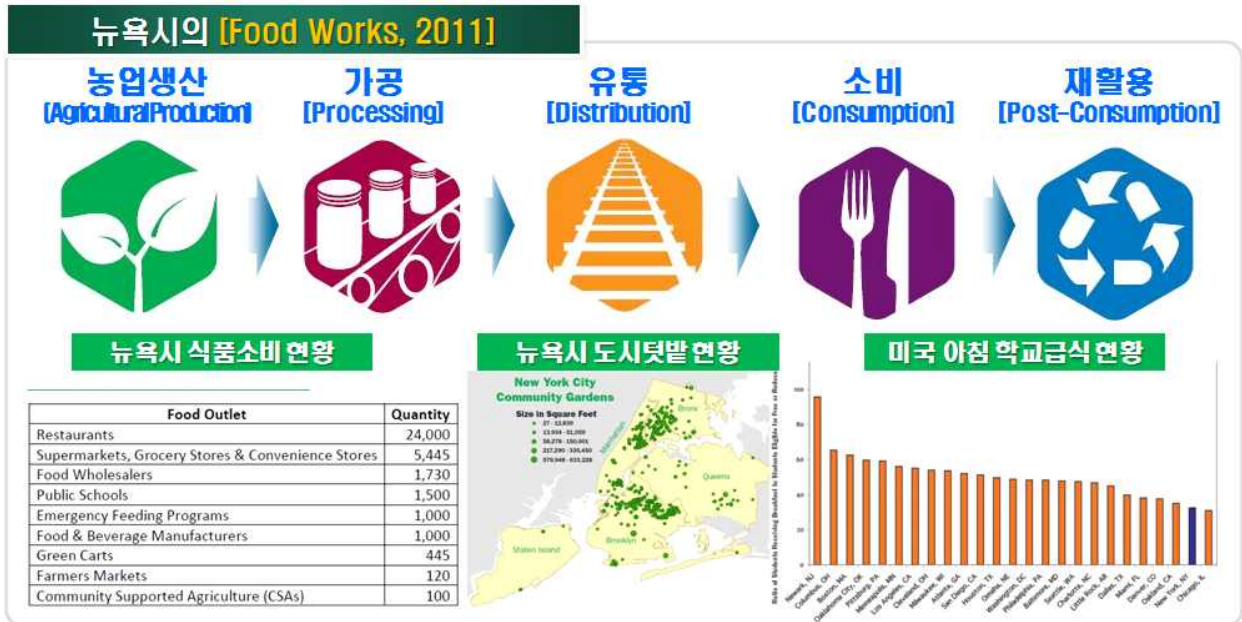
1

푸드플랜(Food Plan) 수립**□ 제안배경 및 추진방향**

-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구축
- 생산·가공·유통·소비·재활용에 관한 5개년 종합계획 수립
- 글로벌푸드와 로컬푸드의 조화, 식품안전, 영양, 먹거리 접근성, 생태환경, 지역사회, 도시농업, 식교육 등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구축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 주요내용

- ① 시장 또는 의장 직속의 「(가칭)농식품발전위원회」 설치
- ② 세종푸드플랜 (2014~2018) 수립
- ③ 민관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시, 의회,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농협), 시민단체, 농식품기업, 학계, 민간전문가 등 참여)



2 친환경학교급식센터

3 공공급식 참여 강화

4 도시소비자 생협 육성

□ 제안배경 및 추진방향

- 생활자의 필요(소비)와 생산자의 공급(생산)을 연결하는 대안유통 미흡
- 생협은 과거 10여년 급성장 하였지만, 국내 식품시장의 0.5%, 친환경농식품의 13% 수준에 불과하여 적어도 2배 이상 확대 필요
 - '11년말 기준 생협(한살림, icoop 등)은 64만세대, 매출액 6,500억 수준
- 아파트생협 육성, 농협과 협력하여 NH생협 육성

□ 주요내용

- ① 1동 1생협, 1만명당 1생협, 아파트 단지별 아파트 생협, NH생협
- ② 생협 개소당 5인, 총5천개의 일자리 창출

서울농협 소비자 조직화 프로그램 운영계획

□ 도시 소비자 조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조직화 프로그램 개발

○ '소비자 회원 전문지도자' 양성 및 산지농협 조직과 연계 활동 강화



□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육성사업 5개년 계획 연계 추진

○ '17년까지 마을활동가, 지역커뮤니티 공간, 마을공동체기업 등 육성



5

식교육 및 도시농업 활성화

□ 제안배경 및 추진방향

- 미래세대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식교육 필요성은 높지만 적합한 관련시설은 매우 부족
- 도시농업, 지역사회후원농업(CSA), 농민장터, 도시농업공원 등에 대한 시민의 사회적 요구는 많지만, 현재는 주말텃밭 위주로 향후 농업의 다기능 강화와 사업영역의 다양화 필요

6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 지원

□ 제안배경 및 추진방향

- 시민의 민생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보육·돌봄·의료·생계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
- 주민자치의 지역사회 생활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복지사업 등 지역사회 공동체 활동 강화
- 협동조합간 협동의 원칙에 따라 농협, 신협 및 생협 등의 기존 협동조합과 협력하여 의료협동조합, 육아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등 활성화

7

협동기금 조성 및 협동조합복합체

□ 제안배경 및 추진방향

- 협동사회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1)혁신적 지원조직 (2)협동기금 조성 (3)협력적 거버넌스 등이 핵심 성공요인임(※캐나다 퀘벡)

협동조합 설립 지원, 교육·훈련, 컨설팅·자문, 지역사회 후원 등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로컬푸드 연구모임

세종시 로컬푸드와 먹거리정책 수립을 위한 대토론회



2013. 11. 13(수) 14:00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 대강당 (3층)



- **주최** 세종시의회 로컬푸드(Local Food) 연구모임
- **주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로컬푸드 연구모임
세종시 로컬푸드와 먹거리정책
수립을 위한 대토론회



주제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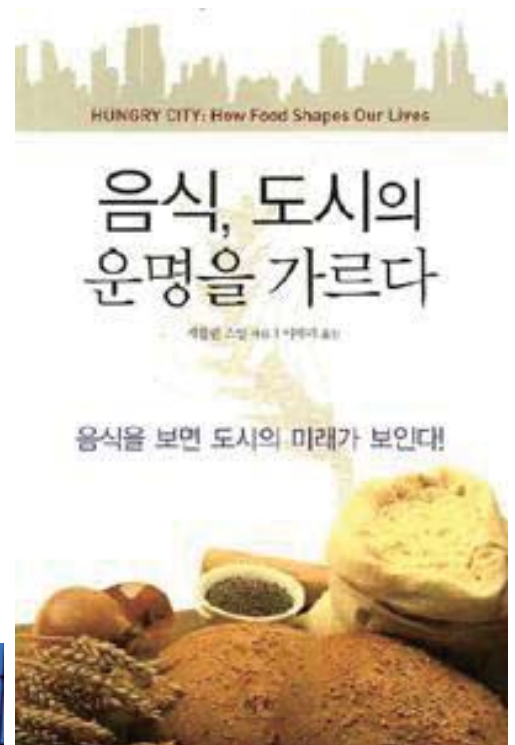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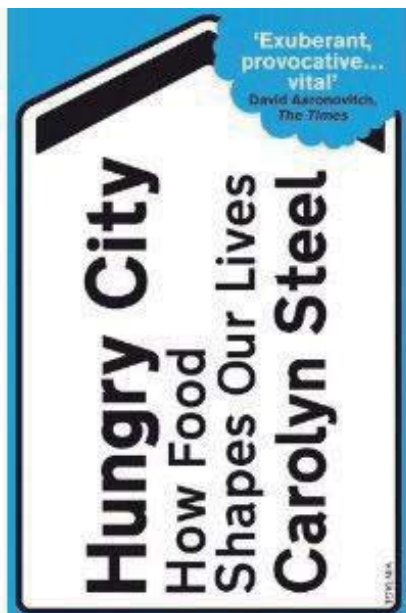
세종시 로컬푸드와 먹거리정책 수립방안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허남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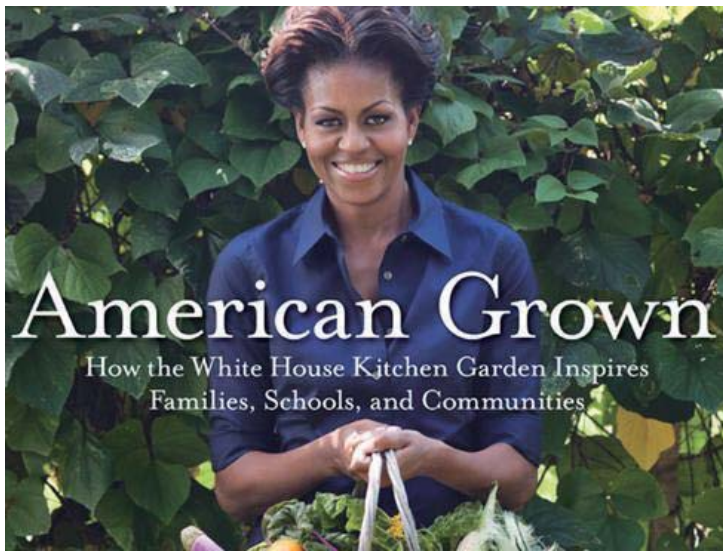
2013.11.13

세종시 로컬푸드와 먹거리정책 수립방안

허남혁

(전)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도시 먹거리정책/계획의 대두요인

- **기후변화 대응적 측면**
 - 탄소배출 절감(녹색도시, 녹화)
 - 녹색 공공조달정책 대두
- **도시농업적 측면**
 - 시민들의 폭발적 관심과 참여
 - 식량/에너지위기 시대에 자급적 관점
- **건강적 측면**
 - 비만/당뇨위기의 시대에 비만친화적 도시환경의 개선 통한 건강친화도시 건설

=> 도시와 농업, 도시와 먹거리와의 관계를 재고하기 시작

현대 식품시스템의 위기와 전환 요구

- 기아와 굶주림
- 비만과 건강문제
- 식량생산과 공급문제
- 기후변화 문제
- 지구환경과 자연자원, 에너지 문제
- 가축전염병 문제

⇒ 고투입 산업적 농업의 문제, 독점의 문제, 식품산업의 문제:
독점적 대량생산-대량소비의 식품시스템이 가져오는 환경, 건강, 사회의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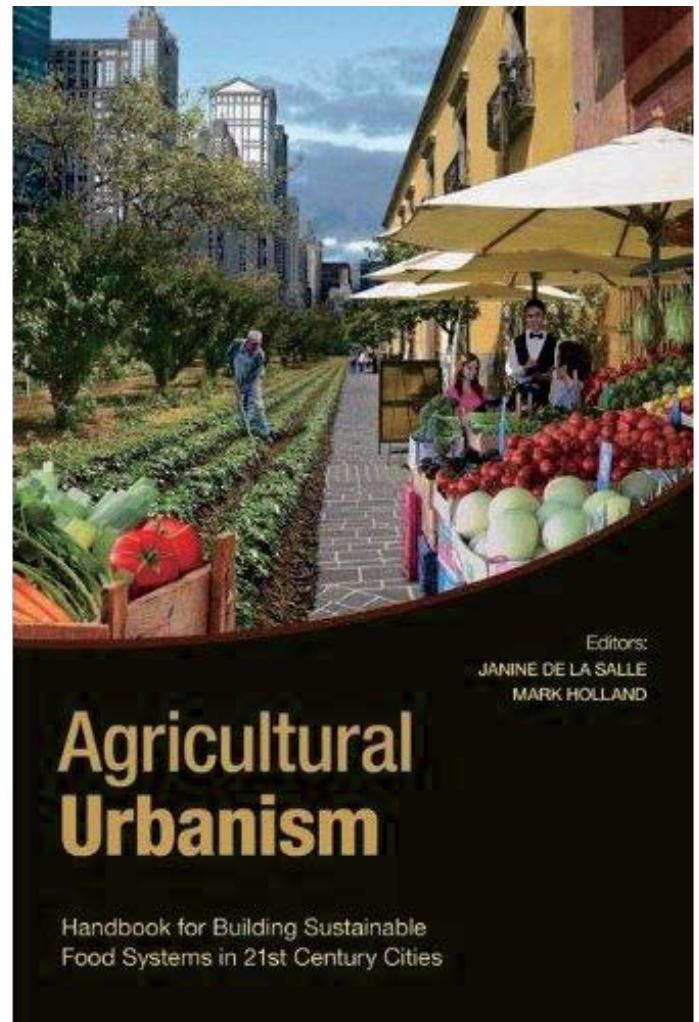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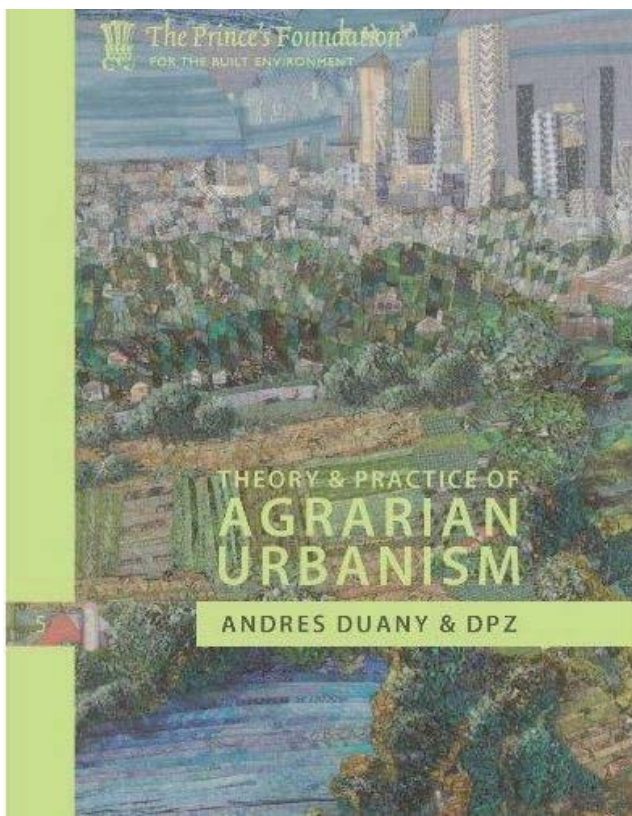
⇒ 건강, 환경적 지속가능성, 형평성의 요구

농업 도시주의 (Agricultural Urbanism)

○ 등장 배경

- 농업이 갖는 다양한 환경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으로 인해 녹색 도시로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있어서 농업이 새로운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기대가 점차 커져가고 있다.

- 현재 도시와 농촌, 농업과 비농업 간의 근대적 이분법에 기반하고 있는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가령, 미국계획학회(APA)는 2000년대 들어 도시계획과 먹거리계획 영역에 착목하고 있다.



농업 도시주의 10대 원칙과 실천방법

- * 통합적인 식품체계 관점의 채택
- * 먹거리와 농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의 창출
- * 농식품 경제의 건설
- * 먹거리 접근성 증진
- * 먹거리에 대한 교육
- * 지속가능한 식품체계의 지원
- * 다른 생물종에 대한 음식과 서식지 제공
- * 먹거리를 위한 조직 건설
- * 농업과 먹거리를 위한 지속가능한 인프라 건설
- * 농업과 먹거리를 기후변화 대책 속에 포괄

농업도시주의의 구현 방법

- * 먹거리를 재배한다
- * 먹거리를 경험한다
- * 지역가공과 유통체계를 지원한다
- * 도소매, 음식점, 급식 등에서의 기회와 경험을 계획한다
- * 먹거리를 중심으로 하는 공식적, 비공식적 배움의 기회를 증진한다
- * 먹거리를, 그리고 이를 만드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문화를 창출한다
- * 지역주민 모두가 잘 먹는 상태를 보장한다
- * 먹거리와 농업 폐기물을 줄인다

도시-농촌, 생산자-소비자 이분법의 새로운 융합(1)

○ 도시와 농촌, 농업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근대적 이분법이 점차 약화

- 농사활동이나 체험에 대한 도시민들의 새로운 수요가 창출: 도시농업의 활성화, 주말농장의 활성화, 농사체험활동 및 체험교육의 활성화

○ 먹거리가 누구에 의해 어디서 어떻게 생산되는지에 대한 도시민들의 관심 증대

- 각종 식품안전사고 등으로 인해 현재의 산업적 먹거리 생산방식에 대한 불신이 점차 증대: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도시민들의 관심 증대
- 간단한 먹거리는 직접 키워먹으려고 하는 도시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가공식품이나 외식음식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요리활동에 대한 도시민들의 관심이 다시금 증대
- 도시민들의 로컬푸드 활동 증진은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수요를 진작시켜 결과적으로 인근 농민들과의 로컬푸드 활동 역시 활성화시켜서 로컬푸드 시장을 확대하는 효과 창출: 농민장터, CSA, 직판장 등 인근 농민과의 거래 활성화

도시-농촌, 생산자-소비자 이분법의 새로운 융합(2)

○ 먹거리 소비공간으로서의 도시와 도시민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새롭게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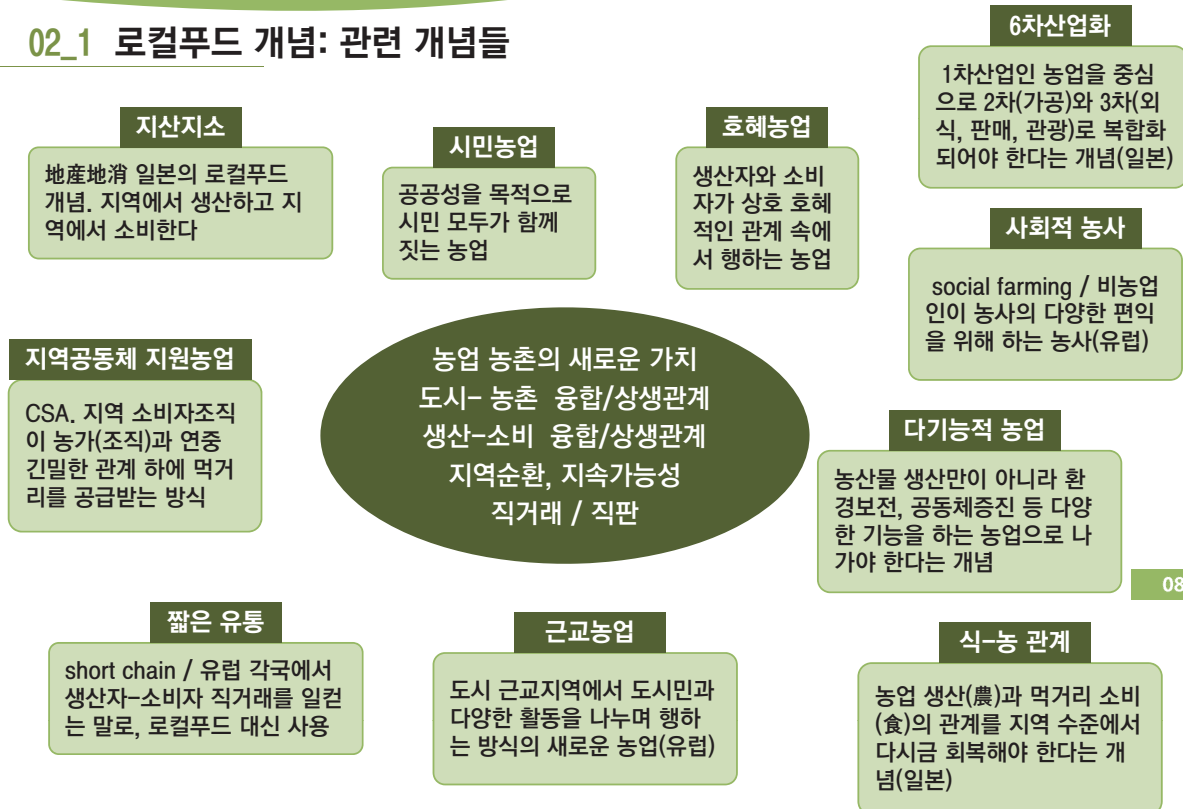
- 어떻게 하면 도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소비하도록 할 것인가의 측면에서 도시의 먹거리 정책이라는 새로운 영역이 형성: 런던, 토론토, 밴쿠버, 뉴욕, 암스테르담 등 전세계 대도시들이 최근 들어 먹거리 정책계획을 수립
- 도시 저소득층의 건강한 먹거리 제공이라는 측면(지역사회 먹거리 보장 community food security)에서 도시농업과 로컬푸드의 가치가 새롭게 부각

○ 마을만들기 운동과 정책이 도시에서도 적용

- 도시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과 마을만들기 사업이 다양하게 진행
- 먹거리를 매개로 도시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로컬푸드 활동 역시 중요한 영역으로 간주됨

02. 로컬푸드 개념 및 의의

02_1 로컬푸드 개념: 관련 개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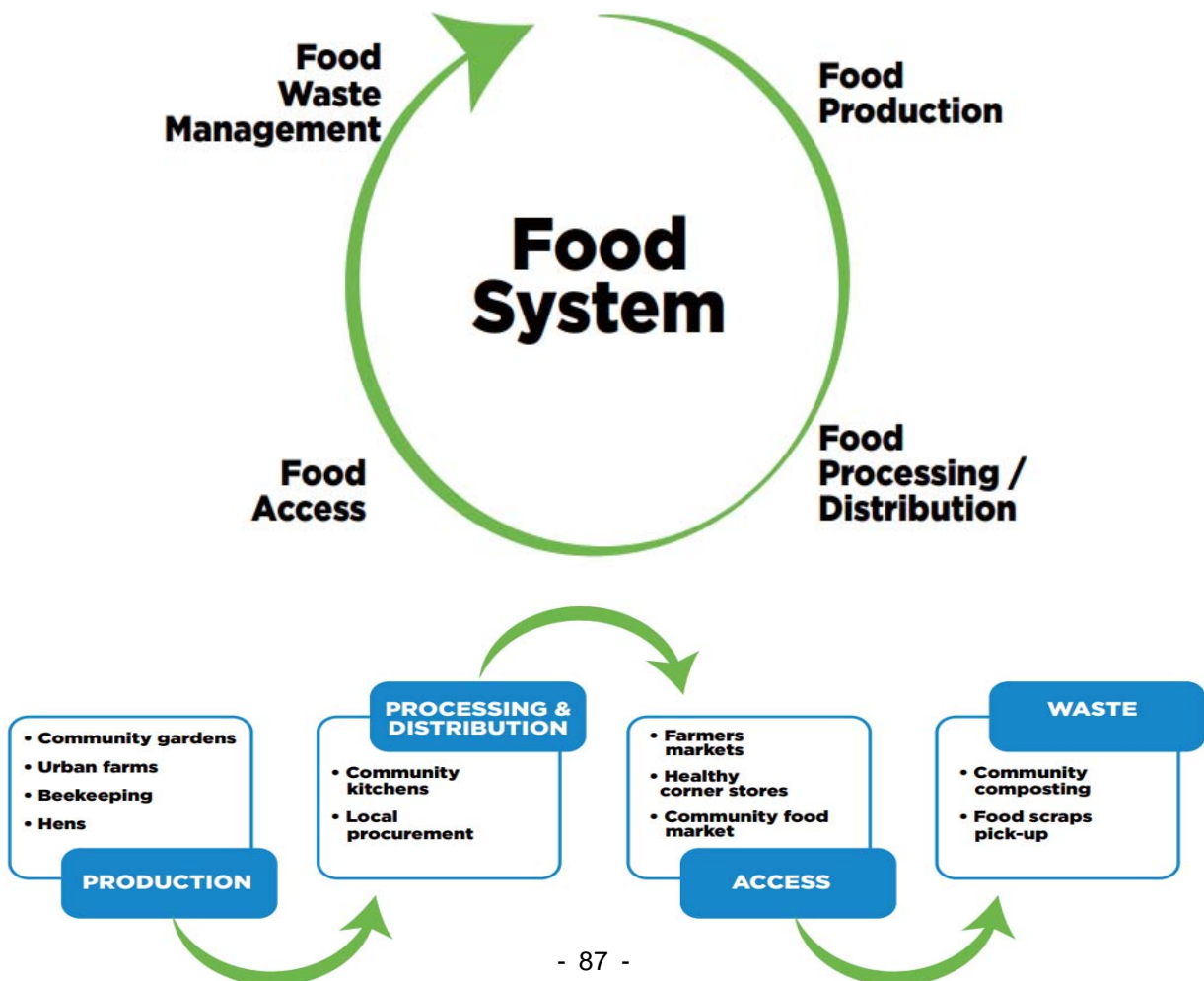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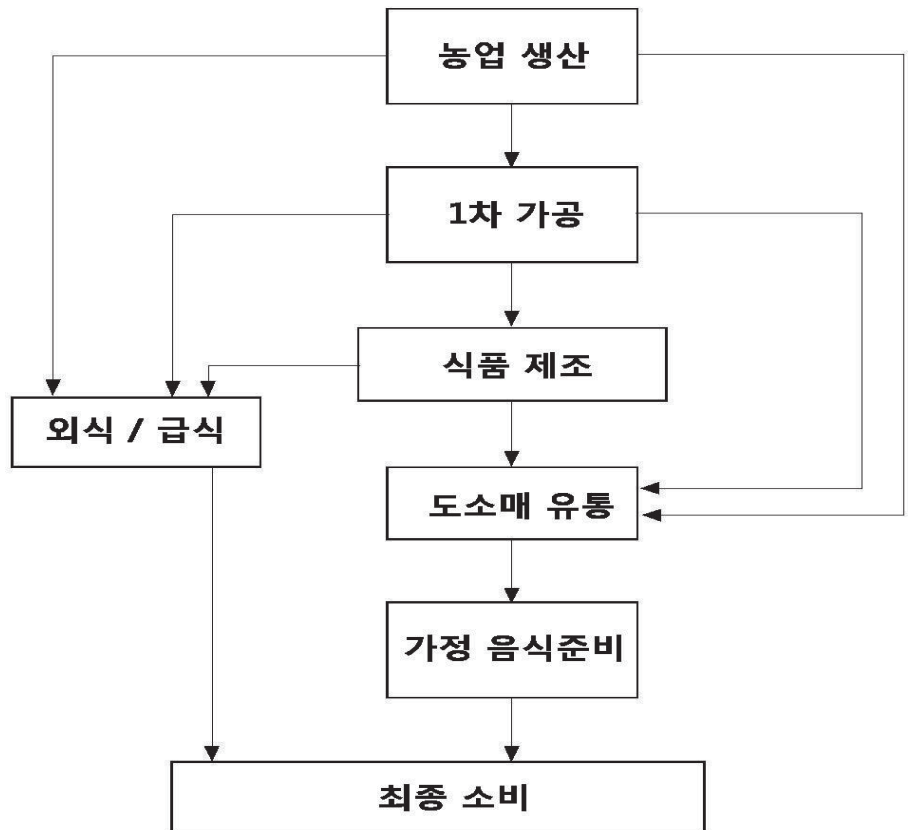
08

대도시 식품시스템 계획

<목적>

- **지속가능성:** 지속가능한 먹거리 공급, 식품시스템의 환경부하 저감(자원이용, 폐기물)
- **건강성:** 건강한 먹거리 공급 통한 비만/당뇨/성인병 예방
 - 안전, 영양 → 유기농, 로컬(신선함 - 신선 과일채소), 가공/패스트푸드 억제, 염분/당분 규제
- **지역성:**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연계/지역순환
 - 도시농업, 근교농업, 로컬푸드, 지역식품비즈니스, 지역외식업체
- **사회성/책임성/관계성:** 생산자-소비자 간 관계 형성, 공정한 먹거리 공급, 제3세계에 대한 책임성
 - 생산농민과 도시소비자 간 관계 증진: 로컬푸드 직거래, 도시(근교)농업
 - 공정무역 상품 구매의 증진
 - 공공조달/공공급식 부문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

식품시스템(food system)



도시 먹거리정책의 필요성

1. 먹거리 보장과 먹거리 기본권 실현의 문제

- 우리 도시의 시민들 모두가 양적, 질적으로 먹거리를 충분히 공급받는 상태로 유지시켜야 할 정책적 책무가 지자체에 있다는 인식: 이는 사회권의 일부인 먹거리 기본권이라는 개념

2. 식품안전과 건강의 문제

- 도시 저소득층일수록 먹거리로 인한 식원성 질병에 취약(당뇨, 비만, 아토피)
- 로컬푸드 활성화를 통해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더 많이 공급할 필요성 대두

3.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도시 건설 측면의 필요성

- 먹거리 분야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생활밀착적 대응이 가능한 분야
- 도시농업의 활성화로 인하여 텃밭을 통한 도심녹화의 필요성 대두
- 근교농지 보전을 통하여 도농상생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 건설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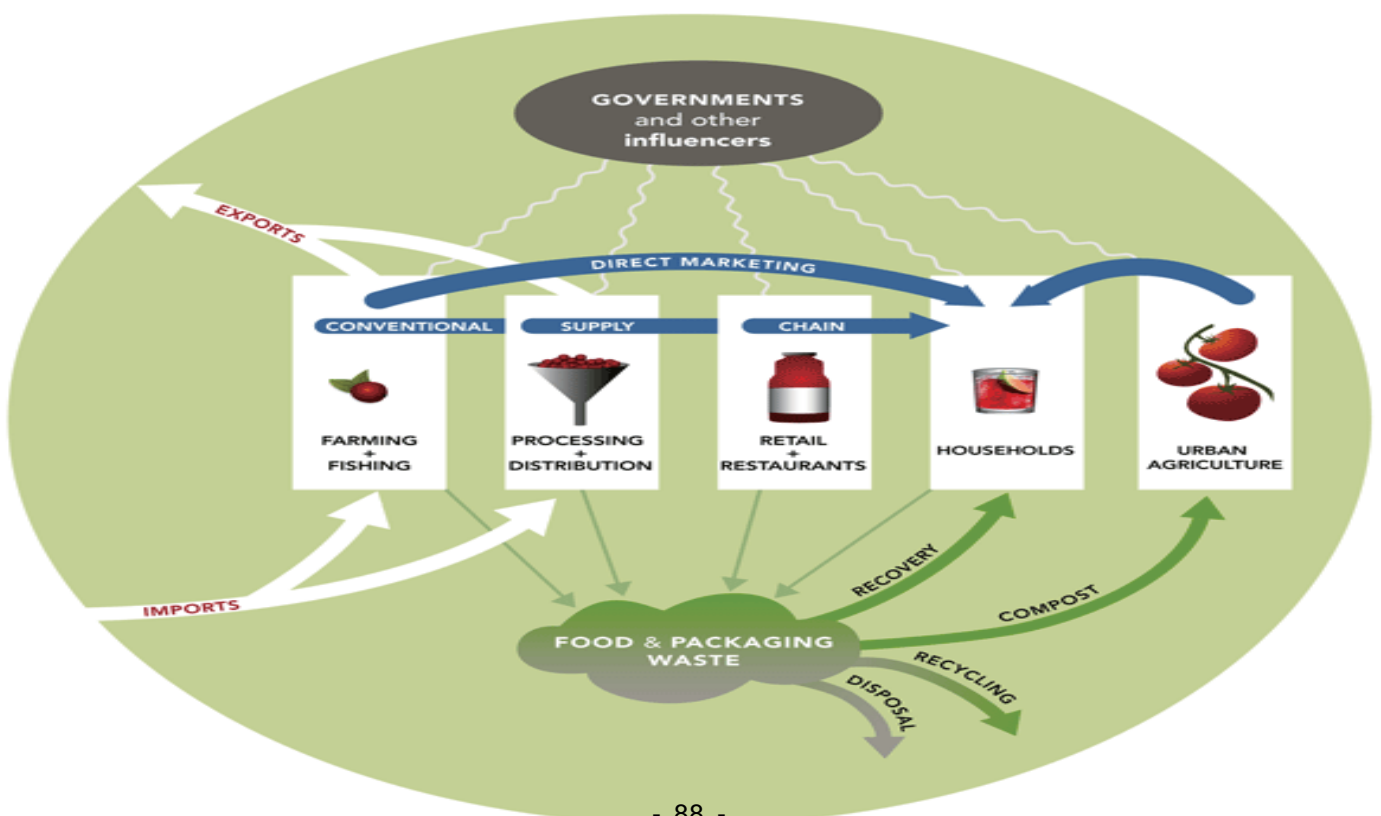
4. 먹거리 분야의 경제적 중요성

- 먹거리 분야는 식품가공, 외식, 급식 영역 등 도시 내에서 가장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가장 큰 경제분야
- 로컬푸드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선순환 효과 강화 가능
- 지역의 중소주체 활성화를 통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 가능

5. 도시의 식품분야 공공정책과 공공조달의 필요성

- 학교급식의 중요성/로컬푸드의 필요성에 대해 공공기관의 식품 공공조달 분야부터 선도적 대응의 필요성
- 점차 다양한 공공급식과 공공조달 정책으로 확산 가능: 병원, 사회복지시설, 대학, 공공기관 등

밴쿠버 식품시스템 모식도(2011)



지역	연도	컨셉	형태	추진주체	목표
런던	2006	healthy and sustainable food	전략계획 실행계획(2007)	위 원 회 (2004)	건강, 환경, 문화, 경제, 식량자급
토론토	2010	healthy and sustainable food	전략계획	위 원 회 (1990)	주민지원, 지역경제, 기아근절, 도농연결, 정보제공
밴쿠버	2010	sustainable, resilient, healthy regional food system	전략계획	위 원 회 (2004)	가까운 먹거리의 생산능력 증대, 먹거리부문의 지역경제역할 증진,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택, 모두에게 건강하고 문화적으로 다양하며 적절한 가격의 먹거리 제공, 생태적으로 건강한 먹거리 체계
암스테르담	2007	healthy, sustainable, regional	전략계획	위원회	로컬푸드 공급, 건강한 식습관, 도농균형, 농업경관보전
샌프란시스코	2009	healthy and sustainable food	시장명령	위원회	
시애틀	2007 2010	Local Food Action Initiative 도시농업과 로컬푸드	의회결의안 법률	시정부	사회정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경제발전, 긴급상황 대비
맨체스터	2007	good food	전략계획	위 원 회 (2004)	건강, 환경, 지역경제, 지역사회, 문화
벨로리존테	1993	healthy food for all	정책	부 서 (1993)	먹거리 빈곤의 퇴치, 지역 농민 보호
뉴욕	2010	sustainable food system	정책보고서	시의회	기아와 비만 퇴치, 지역농업과 식품제조 활성화, 폐기물과 에너지 소비절감 등 12개 목표

영국 런던



LONDON FOOD
SUPPORTED BY THE LONDON DEVELOPMENT AGENCY

MAYOR OF LONDON

- 목표: 런던 시민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
- 5대 목적: 건강, 환경, 문화, 경제, 식량자급
- 과정
 - 2004년 런던푸드위원회 설립
 - 2006년 전략계획 발표(10년 계획)
- 파트너십: 먹거리운동 ngo 서스테인(SUSTAIN)이 주관하는 London Food Link
 - 공공급식, 도시농업 등 다양한 주제의 캠페인 진행 위한 공적 예산 지원(연간 40억원 예산 중 절반은 복권기금, 25%가 런던광역청(GLA) 지원금)



What is healthy and sustainable food?

Follow the links below, to find out about support or advice to help turn good food ideas into action:



<http://sustainweb.org/foodlegacy/>

캐나다 밴쿠버 - 식품체계 전략계획 (2011)



- 비전: to create a sustainable, resilient and healthy food system that will contribute to the well-being of all residents and the economic prosperity of the region while conserving our ecological legacy.
- 목표
 - 1) 지역 내 먹거리 생산 능력 증진 Increase capacity to produce food closer to home
 - 2) 식품부문의 경제적 활성화 Improve the financial viability of the food sector
 - 3)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택 위한 정보 제공/교육 People make healthy and sustainable food choices
 - 4) 좋은 먹거리에 대한 양적 질적 접근권 보장 Everyone has access to healthy, culturally diverse and affordable food
 - 5) 생태적 측면 A food system consistent with ecological heal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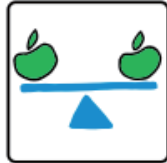
밴쿠버 먹거리 전략계획(2013)



Goal #1 Support food friendly neighbourhoods



Goal #2 Empower residents to take action



Goal #3 Improve access to healthy, affordable, culturally diverse food for all residents



Goal #4 Make food a centrepiece of Vancouver's green economy



Goal #5 Advocate for a just and sustainable food system with partners and at all levels of government

밴쿠버 먹거리 전략계획(2013)

실천 영역	우선순위
1. 먹거리 생산	모든 형태의 도시농업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며, 먹거리체계의 다른 분야들과의 연계를 강화
2. 시민 역량강화	시민들(특히 취약계층)의 먹거리 네트워크 및 기타 지역사회의 먹거리 프로그램 활동 참여를 증진
3. 먹거리 접근성	먹거리 판로(농민장터, 지역공동체 시장, 먹거리 소매 프로그램 등)를 다각화함으로써 건강한 지역산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 증진
4. 먹거리 가공 및 유통	로컬푸드의 가공, 저장, 유통 인프라와, 로컬푸드 지역경제의 가능성 간의 격차를 좁혀나감
5. 먹거리 폐기물	시 공공기관들의 지속가능한 로컬푸드 공공조달 비율을 증진 먹거리 폐기물의 감축

미국 뉴욕 식품체계 전략계획

- 비전: 더욱 지속가능한 식품체계
 - 농업생산, 가공, 유통, 소비, 소비후단계 모두 포괄
 - 굿주림과 비만과의 전쟁, 지역농업의 보전, 로컬 푸드 가공 제조, 폐기물과 에너지 이용 절감 등 59개 정책제안 포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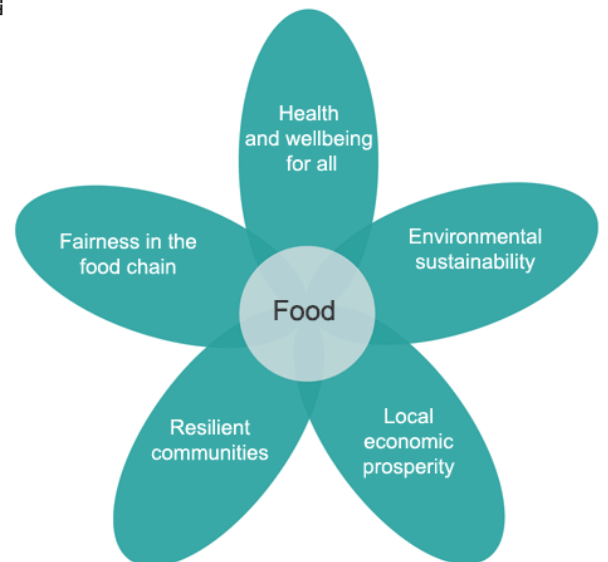
지속가능한 먹거리 도시 네트워크(영국, 2011)

- 영국의 현재 식품체계의 문제로 인한 식원성 질병의 창궐과 파괴적인 경제적, 환경적 영향이라는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새로운 파트너십과 접근방식을 발전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 지속가능한 먹거리 도시 네트워크(The Sustainable Food Cities Network)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 보장이 모두를 위한 근본적인 권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일
- 20개 도시가 참여: 카디프, 브리스톨 등 중소도시 중심



<5대 주제>

- 건강과 웰빙
- 환경적 지속가능성
- 지역경제의 번영
- 복원력을 갖춘 지역공동체
- 식품사슬의 공정성



나고야시 신농업진흥기본방침 <나고야 농업 라이프플랜>(2006)

- "농"이 있는 시민의 풍요로운 삶을 목표로

1) "농"의 영위 지원: 힘내자! 나고야 농업

산업으로의 경영안정과 생산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에 더해, 새롭게 시민의 생산활동 참여 등을 지원

- 경영 안정: 시민 누구나 생산참여할 수 있도록 담당주체 육성, 직판장 정비 통한 지산지소 추진 도모, 농산물 브랜드화 추진, 자금융자, 생산기술 보급, 농업과 도시화 간에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처(쓰레기 불법 농지투기, 농약비산 등)
- 생산기반 확보: 우량농지 보전, 시민농원 지원, 친환경농업 추진, 농업시설의 협력적 유지관리체계 구축

2) "농"이 있는 생활 만들기: 즐기자 "농"이 있는 생활

시민이 농산물의 소비자일뿐 아니라 "농"과의 만남, 생활에 "농"을 도입한 여유롭고 윤택한 생활

- 농과 접하기: 시민농원 개설 등 시민지원체제 충실화 도모, 농업공원 통한 체험학습 활성화
- 생활에 "농"의 도입: 근교농지 활용한 특색있는 마을만들기, 농 관련 전통문화 보전계승 지원

3) 풍요로운 식생활의 추진: 몸과 가까운 농산물로 식생활을 풍요롭게

가까운 농산물로 시민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식생활을 실현

- 풍요로운 식생활 추진: 안전·안심 확보노력, 식교육, 고품질 농산물 생산활동 응원, 국산농산물 소비확대/폐기량 감축 통한 식량자급률 향상 기여

4) "농"을 통하여 고리 만들기: 확대하자 "농"과의 만남·교류

"농"과의 만남·교류를 통해 농가와 시민의 상호이해와 협력을 촉진

- 정보 발신: 농업공원과 직판장을 거점화, 인터넷 활용
- 교류 촉진: 도시속 교류진행, 수확체험농원(만남농원) 활성화, 직판장 활용, 시민활동(자원봉사) 촉진, 농의 지혜와 능력 활용

5) "농"이 가져다주는 은혜 누리기: 살리자 "농"의 다면적 기능

도시환경의 개선 등에 기여하는 "농"의 다면적 기능을 시민이 누릴 수 있도록 노력을 추진

- 편안한 공간 창출: 용수로/저수지의 생물다양성 증진
- 농지기능 활용: 자원순환 활성화, 도시환경 개선

당부서: 나고야시 환경토목국



도쿄 농업 종합사이트 (tokyonogyo.jp)

- 농협, 재단법인 도쿄도 농림수산진흥재단, 도쿄도, 생산자관련단체 공동운영

- 1) 도쿄의 식재료
- 2) 구매처(품목별, 가공품, 식당, 직판장)
- 3) 체험(관광농원, 체험농원, 시민농원)
- 4) 취농
- 5) 도쿄농업 지원하기
- 6) 관련 정보

프랑스 파리 사례



- 윤리적 소비 확산을 통해 경제적 불평등, 소외된 계층의 사회경제적 재적응, 환경, 로컬푸드 등 여러 사회경제적 이슈들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2013년 '시민시장(市場) 네트워크'와 협정을 맺고 윤리적기업 지도 제작 배포
- '공정무역 도시'(Fair Trade Towns) 캠페인에 따라 시청에서 소비되는 차, 음료, 커피와 먹거리를 모두 '공정무역 지역'(Territoire de commerce équitable) 마크를 획득한 기업/단체에서, 그리고 지역생산물로 구매
- 2009년부터 시립급식소(공립 유아원, 학교 및 시의 사회복지센터가 지원하는 모든 급식소)에서 유기농산물과 그 가공물 이용을 강화: 학교 급식소의 유기농산물 이용을 보조하기 위해 식재료 구입비 비율에 따라 보조금 지원

출처: 서울연구원
세계도시정보
(2013)

스웨덴 말뫼 시 사례



- 인구 30만명의 중소도시
 - 2010년 시의회에 의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먹거리라는 주제로 장기정책 수립(건강과 환경 목표)
- 1996년부터 학교급식에 유기농 공급을 시작
 - 현재 40%선인데, 2020년까지 100% 달성목표
 -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0년까지 40% 감축 목표(2002년 기준. 육류소비 감소가 가장 중요한 감축수단)
 - 스웨덴 최초의 공정무역도시
 - 제철 로컬푸드 공급 증진

캐나다 토론토 사례

- 토론토 먹거리정책의 역사

- 1991년 세계 최초로 토론토 먹거리정책위원회 Toronto Food Policy Council 설립
- 2001년 시 의회에서 토론토 먹거리 헌장 채택
- 2007년 토론토 보건국에서 보고서 “토론토 먹거리 실태 (The State of Toronto’ s Food)” 발표
- 2008년 6월 토론토 보건국장 “토론토 먹거리전략계획 (Toronto’ s Food strategies)” 추진 승인요청
- 2010년 5월 토론토 먹거리체계 보고서 발표



토론토 먹거리정책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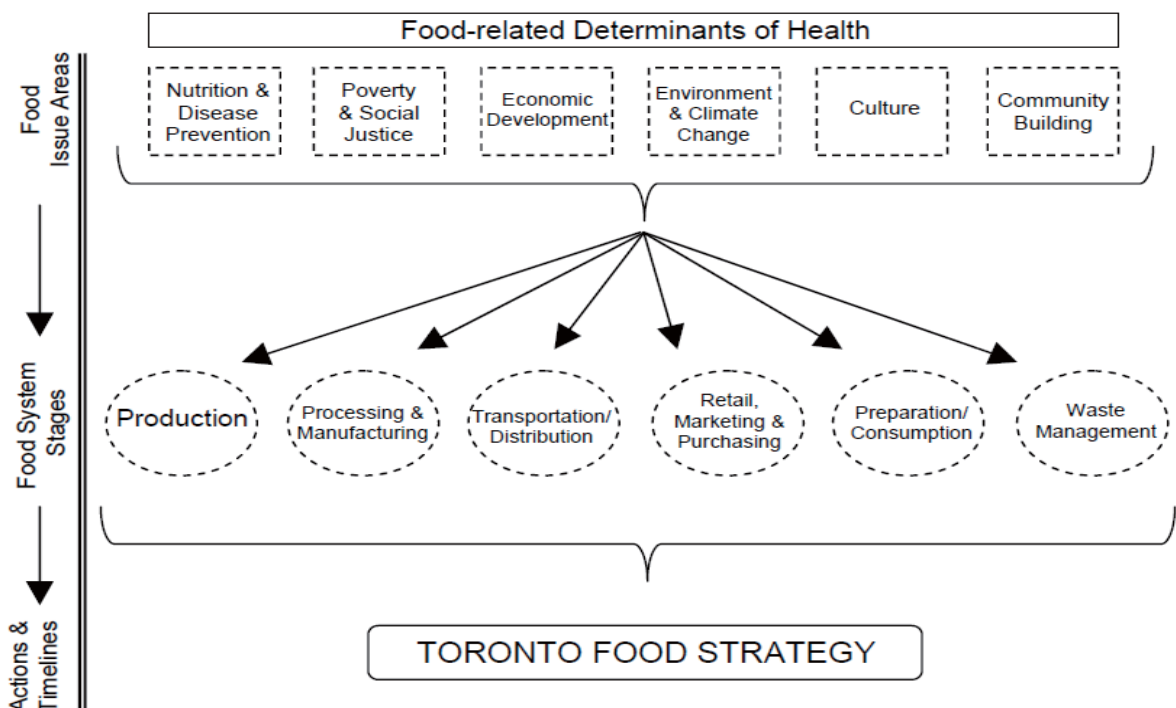
- 1991년 시장 자문기구인 토론토 보건위원회(Board of Health)의 산하에 토론토 먹거리정책위원회(food policy council)를 설치
 - 상근 코디네이터를 두고 또 시에서는 공공보건국이 담당부서가 되어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
 - 2명의 시의원, 보건위원 1명, 그리고 27명 이내의 시민으로 구성

토론토 먹거리 헌장 (2001)

(Toronto's Food Charter)

- 1976년 캐나다는 “모든 사람이 굶주림에서 벗어날 근본적인 권리” 를 포함하고 있는 “사회, 경제 및 문화권에 관한 유엔 규약” 에 서명하였다. 토론토 시는 먹거리 보장(food security)에 대한 국가적 노력 및 다음과 같은 신념들을 지지한다.
- 모든 토론토 주민들은 영양있고 가격적으로 적절하며 문화적으로 적절한 먹거리를 적절하게 공급을 받아야 한다.
- 먹거리 보장은 주민들의 보건 의료 필요를 줄여줌으로써 건강과 복지에 기여한다.
- 먹거리는 토론토 경제의 핵심 요소이며, 먹거리 보장은 식품부문의 성장과 발전을 강화시킬 수 있다.
- 먹거리는 지역사회와 다양성을 축복하게 해주며, 우리 시의 문화에 있어 중요한 일부이다.

토론토의 건강중심 먹거리체계



(출처: 서울시(2013)에서 재인용)

토론토 먹거리전략계획(2010)



Cultivating Food Connections:

Toward a Healthy
and Sustainable
Food System
for Toron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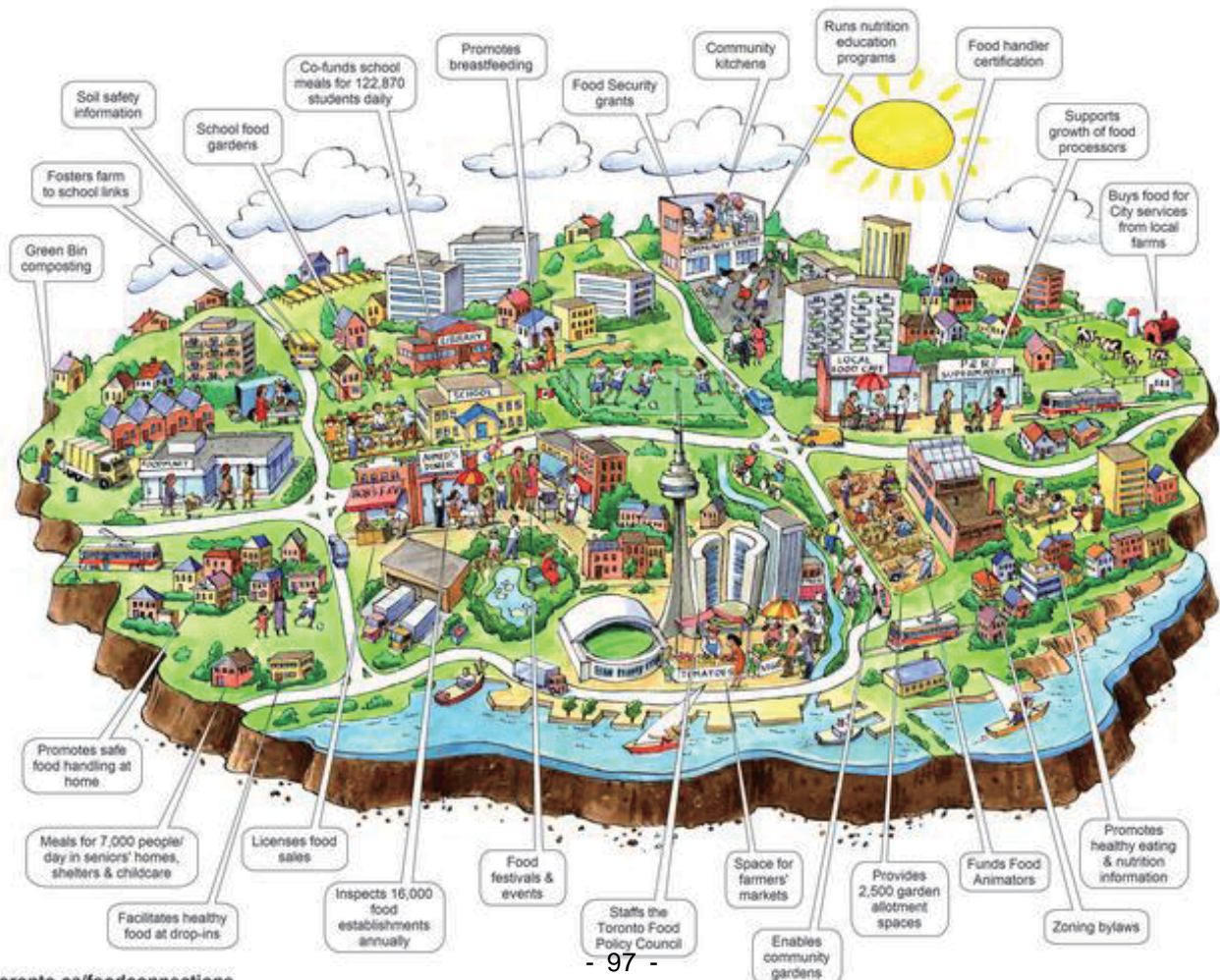
May 2010

먹거리체계 각 단계 간의 연계 강화를 통하여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토론토 먹거리체계 구축

- 먹거리에 대한 도시의 리더십을 통해 어떻게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하면서 환경적, 건강적, 사회적, 지역공동체적 우선순위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인가

1. 먹거리 친화적인 지역공동체 지원
2. 먹거리를 토론토의 신 녹색경제의 핵심화
3. 토론토에서 굶주림 근절
4. 주민들을 먹거리 관련 정보와 숙련으로 무장
5. 도시와 농촌을 먹거리로 연결
6. 연방 및 주정부의 건강 중심 먹거리 정책 수립 촉구

25 Food Connections to the City of Toronto



향후 발전방향 (1) 기초

기 조

농업과 먹거리를 통한
건강 + 환경 + 지역 + 문화 + 경제 + 교육
효과의 극대화

1. 세종시와 근교농촌의 상생 발전을 통한 세종시민의 건강 증진과, 농민의 소득증진, 지역경제 발전

농업생산 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도시(민)의 필요에 초점을 둔 정책일 필요

2. 세종시 수요 충족을 위한 농업

건강한 농산물, 가공품, 체험, 휴양, 음식 => 친환경농업, 경관보전, 직판 중심의 6차산업화

3. 전통식문화와 글로벌 식문화가 한데 어우러지는 음식의 다양성 보장

한국 전통식문화를 알리는 공간 + 전세계 다양한 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

=> 음식의 다양성 보장을 통한 식품경제 활성화

향후 발전방향 (2) 방향

〈방향〉

1. 도시농업과 도시 먹거리활동의 활성화

도시민의 다양한 먹거리활동(생산, 가공, 조리) 증진

2. 근교농업의 방향 전환

도시민과의 관계 통한 농가의 복합화, 다각화, 상품의 다양화 전략

3. 식품/외식산업의 새로운 전략

세종시의 다양한 문화적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고품질 로컬푸드 식재료를 사용하는 가공 및 외식업의 발전전략

향후 발전방향 (3) 전략

〈전략〉

1. 세종시 푸드시스템 계획 수립

생산-가공-유통/판매-소비-폐기 단계 전체에 대한 계획

2. 세종시 로컬푸드 활성화

도시농업활동, 구매활동(급식, 외식), 판매활동(농민장터, 직판장, CSA, 체험 및 분양), 가공활동(농민거점가공센터 통한 농가가내가공 활성화, 로컬푸드 식재료 사용하는 가공업체 유치)

3. 근교농업/농촌지대에 대한 새로운 보전/인센티브 정책방안

확실하게 농업활동을 보장하면서, 대신 비농업적 용도전환 억제조치에 대한 농업 고소득 인센티브의 강화

향후 발전방향 (4) 인적 기반

〈인적 기반〉

1. 소비 측면

세종시 도시민들의 인근 생산 농식품에 대한 신뢰 제고
세종시 식품 관련 종사자/기관/기업의 로컬푸드 구매협력 유도
먹거리 활동 NGO와 생협조직의 육성
식교육활동의 활성화 통한 미래세대 양성

2. 생산 측면

세종시 농민의 조직화와 리더양성을 통한 6차산업화 기반 구축
귀농·귀촌 활성화를 통한 농업·농촌 후계인력 공급: 교육, 정보제공 등

3. 기능 측면

각 주체간 소통 (communication), 협력 (co-operation), 네트워킹 (networking) 기능 강화
=> 이를 위한 중간지원기능의 강화

시사점: 도농복합시의 과제

1. 도시농업의 활성화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2. 근교농업의 재구성

- 근교농업의 새로운 발전비전 설정 필요성: 도시배후의 농지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으면서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억제하고, 도시민과 안정적인 후원관계(로컬푸드의 활성화) 속에서 주말농장이나 체험농장, 힐링농장 등의 형태로 도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도시민이 직판장에서 쉽게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방식으로 농업의 형태 전환 필요 (직판형 농업)
- 이를 위한 근교농촌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어메니티의 보전 과제
- 도시농업과 근교농업, 도시공간과 근교 농촌공간은 도시민과 근교 농민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상호보완적 관계로 발전될 필요

3. 대도시의 경우에는 같은 행정구역 내의 농촌지역 뿐만 아니라 인접 농촌 지자체들의 농업 및 농민과도 상호보완적 상생관계를 발전시킬 필요성

- 대도시의 역사적 성장과정에서 농업과 농촌지역 농민들의 희생을 인식
- 대도시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농촌지역 간의 관계에서 수행할 필요성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먹거리 도시의 비전

1. 먹거리로 만들어가는 생태도시

- 탄소배출 저감(지속가능생산물/로컬푸드 우선구매), 폐기물 저감, 도시녹지 및 근교 농지 유지

2. 건강한 먹거리를 함께 먹는 건강도시

- 과일채소 섭취 증진, 패스트푸드/가공식품 소비감소, 비만유발환경 개선

3. 먹거리로 창조하는 경제도시

- 지역경제와 사회적경제 활성화

4. 자치, 협력, 참여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드는 먹거리 복지도시

- 먹거리복지 확대, 먹거리 공동체활동 활성화, 정책참여, 정보교류, 식교육 활성화

5. 먹거리 속에 전통과 세계가 다양하게 공존하는 문화도시

- 지역 식문화의 유지, 다양화, 융복합

시사점: 단계별 실천방안

생산	유통/가공	판매	소비	종합
도시농업 활성화 신규 텃밭부지 확보 (국/시유지, 사유지 공유, 공원부지, 개발유 휴지, 옥상) 기존 농지 보전 근교농지 보전 협력 도시농업공원 확보/농 지트러스트 지원	농산물 직거래판매, 로컬푸드, 도농교류 활성화(농민장터, 직판장, 아파트장터, 생협 등) 먹거리창업지원센터 설치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창업 활성화 및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먹거리사회책임조달제	음식점 위생등급 표시 의무제 지속가능건강음식점 인증 길거리음식특화거리 조성 학교급식을 비롯한 공공급식의 식재료 기준 설정 학교급식을 비롯한 공공급식의 사회적책임조달 확대(직거래 확대) 단체급식소의 사회적 책임조달 장려 이동식 판매 활성화	학교건강매점 활성화 복지시설 먹거리인증 기준 강화 희망급식소 만들기(푸드뱅크/도시농업 연계) 마을먹거리지도 만들기 마을공동체부엌 만들기(마을공동체텃밭 연계) 먹거리친화마을 만들기(동네잔치 등) 건강취약계층 식품지원프로그램 확대	먹거리체계 관련 연구조사 음식물쓰레기/식품포장재 저감 및 재활용 식품 관련 탄소발자국(에너지소비) 저감 친환경 및 지속가능 농산물/식품의 활성화 지역음식문화 계승 - 음식체험관/박물관 세계음식도시로의 부상 - 민족음식점/음식관광 활성화 먹거리시민양성 마을먹거리활동가 양성 학교 식농교육 확대 공공기관 종사자 교육 지역공동체 먹거리프로젝트 지원

시사점: 추진체계

○○시 먹거리TF 구성				
○○시 먹거리현장				
○○시 먹거리기본조례				
○○시 먹거리위원회				
○○시 먹거리지원센터 (위원회 상설실행조직)				

〈부록: 참고자료〉



Social Farming

[소셜농업] 홍성홍등면 “꿈이 자라는 들” (2009~) 지역의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농사일을 통해 치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농사 체험 활동과 생산물 판매를 하는 단체

소셜 농업(social farming): 농산물 생산 목적 뿐만 아니라 비농업인들의 치유, 휴양/여가, 교육, 보육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농업형태를 통칭(주로 유럽 지역에서 활발)

- 힐링농장, 교육농장, 스포츠농장 등의 형태 (텃밭이나 동물농장)
- 주로 도시보다는 농촌지역에서 기존 농업인들에 의해 수행됨: 농촌개발의 새로운 유형 및 잠재력 보유
- 농산물 판매도 중요한 수익사업으로서 역할: 방문자들에 의한 정기적 구매, 공익적 목적으로의 수익금 활용 등
- 국내에서는 개별 농가 뿐만 아니라 마을 단위(체험마을 등)에서도 기능: 아토피 치유마을 등

1. 자립을 위한 수익사업/상품 만들기(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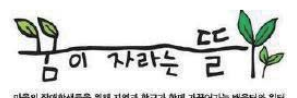
- 꽃과 채소모종 재배, 허브차 가공, 손수건 염색, 새싹 머그컵, 들꽃씨앗 채종, 농산물 판매, 지역기관 화단가꾸기 등
- 마을 가게, 마을 축제, 직업교육박람회 등에서 판매

2. 지역 주민들과 일손나눔과 종자돈 나눔, 토종씨앗 나눔(2010년~)

- 매주 화요일, 농장에서 정기적으로 일손나눔(2010년~)
- 정기/비정기 후원, 토종씨앗 나눔(2011년~)

3. 꿈이 자라는 들 농장만들기(2011년~)

- 꽃, 채소, 허브를 재배하는 텃밭과 비닐하우스 제작, 퇴비장과 틀두둑 제작
- 지역 목수의 일손나눔 후원으로 생태화장실, 파고라, 닭장 제작/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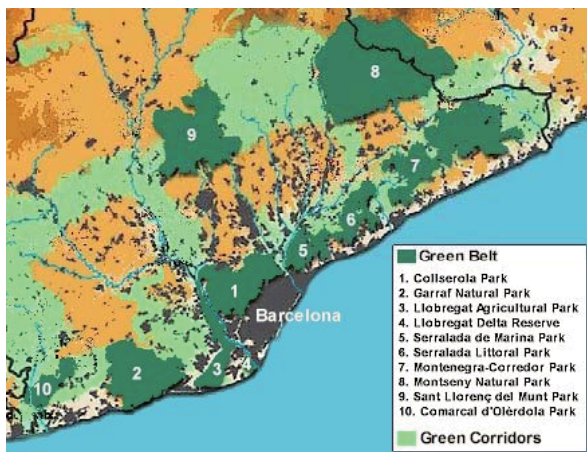




참고: 도시근교농업

- 2004년 유럽연합 권고
- 2010년 유럽 도시근교농업헌장 발표(스페인 바르셀로나)
- 농촌지역의 생물다양성, 경관과 문화유산을 보전하면서도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인근 도시민과의 교류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 핵심
 - 이를 위한 규제/인센티브 정책과, 공동관리를 위한 사회적 합의/거버넌스가 필수적 요소
 - 로컬푸드 개념이 필수적 요소: 농민장터, 직판, 농가가공, 체험교육, 농촌관광의 복합화

선진국 사례 (1) 농업공원 agricultural park



대도시 주변 농업지역을 농업공원으로 지정

도시확산 방지

농촌 어메니티/전통문화 보전

먹거리생산/교류공간으로 활용: 농가소득 다각화와 도시직판 통한 고소득 보장

바르셀로나 농업공원(1998)
3천ha (여의도 10배)

밀라노 남부 농업공원(1990)
46,300ha (서울의 75%)



선진국 사례 (1) 농업공원 agricultural park

자체 브랜드(인증마크) 부여

환경친화산물 품질기준 설정(유기농 국가인증과는 별도)

관리주체의 형성(컨소시엄): 지역농가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

인증품의 농가직판 활성화: 농민장터, 농가직판장(체험연계), 꾸러미사업, 농가식당 등



밀라노 (금/은/동장)

바르셀로나



밀라노 농업공원 내 주요 농장 (소개책자)

vd: 직판장 운영 농장

ad: 체험, 교육활동 운영 농장

a: 농촌관광(숙박, 식당) 운영 농장

p: 공원 핵심방문지점 보유 농장

bio: 유기농 인증 농장

M: 공원 인증마크 보유 농장

선진국 사례 (1) 농업공원 agricultural park

n	azienda	vd	ad	a	p	bio	M
1	CASCINA GRASSINA						
2	CASCINA LA PALAZZINA						
3	CASCINA RIAZZOLO						
4	CASCINA ROSIO						
5	ISOLA MARIA						
6	RIVOLTA IGDORO						
7	CASCINA FELICE						
8	FABE' EMILIO E STEFANO						
9	IL BOSCO DI ARTENIDE						
10	BELLONA ENRICO						
11	CASCINA ZINICO						
12	IL MULINO						
13	CASCINA DELL'ACQUA						
14	BOLDRINI RENATO						
15	FRATELLI MONTANA						
16	SORNETTI						
17	CASCINA FORESTINA						
18	CASCINA RISCHIA						
19	CASCINA RONCAGLIA						
20	CASCINA SCANNA						
21	CASCINA CARLA						
22	CAVIGIANI FABIO						
23	CASCINA GUSTAFALDI						
24	CASCINA MAGGIORRE (VILLA MARINO)						
25	CASCINA MARIANNA						
26	CODEGONI						
27	FRATELLI BOTTONI						
28	GALIMBERTI						
29	SAN VITO						
30	GIARDI LUIGI						
31	IL VISCONE						
32	CASCINA DI IREZZO						
33	FRATELLI DELLA BASSA						
34	CORNALBA						
35	LA VENTURINA						
36	CASCINA GHALZIO						
37	CASCINA MADDOCA						
38	FRATELLI SCOTTI						
39	FRATELLI BRAVERELLA						
40	APICOLTURA VEGA						
41	CASCINA BATTIVICCO alla Barona						
42	CASCINA CAIRAZZO al Parco Ticinello						
43	CASCINA GAGGIOLI						
44	VIVAI NAVIGLIO VERDE						
45	FRATELLI ROSSI						
46	CASCINA ROVERDELLA						
47	CASCINA SAN'ANTONIO						
48	CASCINA SAN GIOVANNI						
49	CASCINA S. AMBROGIO						
50	RED VALLEY RANCH						
51	BONETTI "COLOGNO"						
52	CASCINA CANTALUPO						
53	CASCINA SANTA BREPA						
54	ORTICOLTURA SANT'AMBROGIO						

2015 밀라노 엑스포

지속가능한 먹거리(Feeding the Planet, Energy for Life)

- 밀라노 농업공원이라는 기반과, 관련 프로젝트(Feeding Milano: Nutrire Milano)의 지속, 주체의 준비(슬로푸드, 식량주권연대)
- 기존 엑스포의 혁신: 하드웨어 기념물 대신 소프트웨어(체험, 현장구현)



시카고 도시계획 GOTO 2040



LIVABLE COMMUNITIES

Promote Sustainable Local Food



Facilitate Local Food Production

Urban agriculture — converting under-used urban land to food production, such as by creating community gardens — should be pursued in developed areas across the region. Farmland preservation in rural parts of the region can also support local food production, and counties should continue to pursue these programs. By promoting local food in federal agricultural policy and establishing procurement processes at the state level that favor local food, we can provide additional institutional support to local production.

Increase Access to Healthy Food

Our region can ensure that all residents have access to healthy food by providing financing for grocery stores to reinvest in "food deserts" or by experimenting with demonstration programs such as farm stands, food cooperatives, direct sales from community gardens, and other examples. Hunger assistance programs and local food policy should be addressed as well — for example, by linking urban agriculture with food pantries.

Raise Understanding and Awareness

A regional nonprofit group to coordinate food policy should be identified or created to help understand the emerging issue of local food. Responsibilities should include collecting and analyzing data, providing training, sharing information, and helping local governments to incorporate food issues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로컬푸드 연구모임
세종시 로컬푸드와 먹거리정책
수립을 위한 대토론회



주제발표

서울시 먹거리전략 2020 수립사례
(사)영양과 미래 정해랑 대표

서울시 먹거리 전략 2020 (안) 수립 사례

(주)영양과미래 청해랑



본 내용은 서울시가 지원한 연구과제의 수행 결과로 서울시의 공식 입장이 아님

서울시 먹거리 전략 2020(안)의 수립 과정

- 과제명
 - (식품안전 중장기 로드맵 작성 및 시범사업)
⇒ **서울시 먹거리 전략 2020 및 식품안전 관리 중장기 계획 수립**
 - 연구기간
 - 2012. 5. 29 - 2013. 1. 31 (8개월)
 - 발주부서
 - 서울시 **식품안전과**
-

- 연구내용
 - 먹거리 체계의 이해
 - 서울시 현황 분석
 - 선진 도시 사례 조사
 - 런던시, 뉴욕시, 토론토시 등
 - 서울시 먹거리 전략 안 개발
 - 비전, 과제 도출, 실천방향 제시
 - 연구방법
 - 서울시 관련사업 분석, 조례 수집
 - 주요국, 도시의 정책보고서, 관련단체 활동 조사
 - 워크숍, 자문회의, 집단별 의견 수렴
-

- 인구구성, 사회경제, 식생활과 질병발생 빈도 등

식품안전성 확보율 (%)

97.4 ~ 99.8
96.7 ~ 97.4
95.5 ~ 96.7
95.0 ~ 95.5
93.3 ~ 95.0

Map labels (from top to bottom, left to right): 도봉구, 노원구, 장북구, 성북구, 중랑구, 은평구, 종로구, 동대문구, 강서구, 서대문구, 중구, 성동구, 강북구, 김천구, 양천구, 강남구, 용인구, 강서구, 송파구, 구로구, 동원구, 강남구, 서초구, 금천구, 강서구.

2011년 자치구별 지역사회건강조사 보고서에서 재구성

법 규 명	공 포 일 자	담당 부서
친환경농업 및 주말, 체험영농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2012. 3. 15	생활경제과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012. 10. 31	생활경제과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2012. 1. 5	교육격차해소과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사회적기업정책과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12. 3. 15	서울혁신기획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2011. 12. 29,	노인복지과
문화도시 기본조례	2006. 7. 19,	문화정책과
식품안전 기본조례	2010. 11. 4	식품안전과
식품진흥기금 조례	2011. 12. 29	식품안전과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12. 1. 5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2011. 7. 28	
농업지도자 육성 지원 조례	2011. 12. 29	
사회복지기금 조례	2012. 9. 28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2012. 7. 30	
(건강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	2013. 5. 16	

먹거리 연계 가능한 기존 사업

부서명	사업명
서울혁신기획관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회복 추진
시민소통기획관	시민 눈높이에 맞는 웹사이트 운영 강화
경제진흥실	함께 누리는 서울경제 확립
복지건강실	영양, 식품, 공중위생 분야 관리
기후환경본부	세계 제일의 재활용 도시 구현
행정국	지역 풀뿌리형 거버넌스 구축
	생활밀착형 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한 특별 활동 강화
재무국	시유재산 수익 및 활용도 제고
교육협력국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도시안전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푸른도시국	10분 거리 동네공원 만들기
공원녹지정책과	시민 참여를 통한 도시녹화
도시기반시설본부	환경시설 설치
한강사업본부	공동체 형성 지원 사업
보건환경연구원	학교급식재료 안전성 검사
	식·의약품 안전성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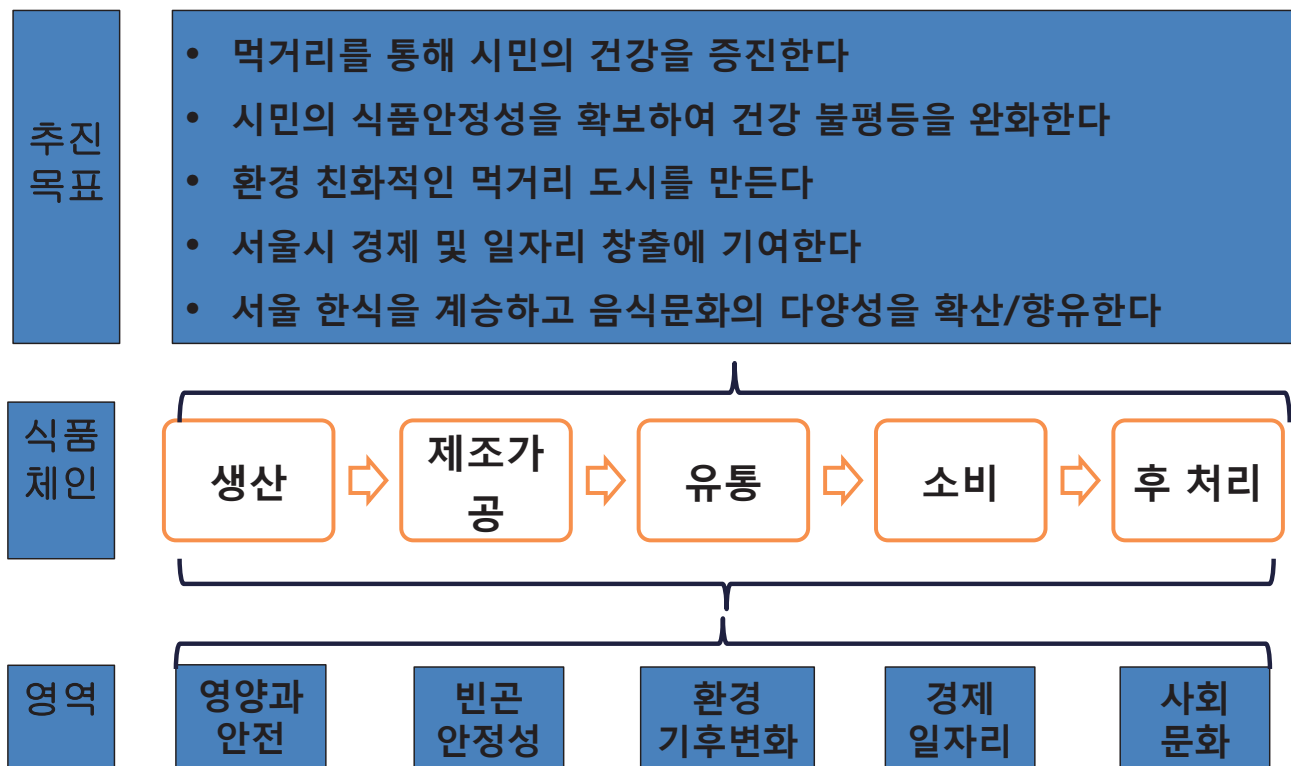
선진 도시 사례 분석

- 런던
 - 2006. Healthy and Sustainable Food for London, The Mayor's Food Strategy
 - 2008. Food Matters
- 뉴욕
 - 2010. 2. FoodNYC: A Blueprint for a Sustainable Food System
 - 2010. 11. FoodWorks: A Vision to improve NYC's Food System
- 토론토
 - 2007. The State of Toronto's Food
 - 2010. Cultivating Food Connections

서울시 먹거리 체계의 평가

현 재	바람직한 방향
대량 생산 중심	건강 중심
먹거리는 시의 중점사업이 아님	식품은 시정 목표 달성의 주요 수단
먹거리 문제는 개인적 차원	먹거리는 사회 지속성 유지의 필수 영역
생산에서 소비까지 식품안전 위주	지속가능성 중시
원가 절감 중심	생산, 가공, 유통에서 환경보호가 핵심
개인행동 수정	개인행동과 더불어 건강 환경 조성
값싼 노동력 위주/시장경제	녹색 경제의 중심/사회적 경제
건강취약 집단 대상	모든 시민 대상
개별적이고 분절적인 사업 수행	목표지향적 사업 수행
정부조직 위주	민관 파트너십

기본방향 도출 :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식품체인과 영역 매트릭스의 분석

	주요 조직	건강/영양	환경/지속가능	경제/일자리/회생/생계	공동체(사회문화, 안정성, 쾌적)
생산	헌법, 도시농부, 협동조합, 농부, 어부	(1) 자연에 대한 접근, 노동기준과 농약 노출, 건강과 안전성, 농민의 복지, 공중보건 및 항생제 사용, 영양소 함량, 동물 사료(품질과 원산지)	(2) 다양성, 에너지/물 사용, 기후 변화, 농약, 유전자재조합, 토양 침식, 환경 관리, 비료, 품질 보증 기준, 오염(물, 대기, 토양), 낚시(불법어획?), 유기농, 친환경	(3) 소득, 고용, 노동 숙련, 시장 접근성, 농사 방법, 다양화, 비식량 작물, 범죄, 보조금, 규모 경제 및 농업 집약도, 품질보증 기준	(4) 자연 접근, 노동기준, 동물복지, 이주 노동, 품질보증 기준, 로컬 푸드, 기술, 생물 다양성, 에너지/물 부족, 유전자재조합 작물, 기후변화, 홍수, 토양 침식, 자금, 인수 질병, 식품 부족
제조/공	제조가공업자, 농부, 해업, 중소기업, 포장업체,	(5) 건강과 안전성, 공중보건(영양, 첨가물), 노동기준, 기후변화	(6) 에너지 사용(난방, 냉방), 기후 변화, 공기 질, 물 사용, 포장, 폐기물 재사용	(7) 고용, 기술, 소득, 시장 접근성	(8) 노동기준, 연료 공급 부족, 인간과 동물의 질병, 식품 부족
유통/판매	운송/물류회사, 도/소매업자, 슈퍼마켓, 음식점, 편의점, 직점 판매, 수입/수출업자, 시장 상인 (길거리, 농장), 공공부문, 음식점,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9) 운송의 영향, 오염(소음과 대기), 혼잡, 하부구조 유지, 영양, 식품안전과 위생, 기후 변화, 신선식품	(10) 운송 방법, 차량 설계, 적재, 운전자 훈련, 연료 종류, 대기 질, 무드 마일리지와 이산화탄소 배출/기후 변화, 에너지 사용, 포장, 혼잡, (생산방법)	(11) 운송 방법 및 비용, 고용, 차량 설계, 적재, 정보와 통신기술, 냉장, 저장 및 창고 가격, 계약기준, 신뢰성, WTO 규정 수출/수입 관세, 품질보증 기준, 전통 시장, 농부의 시장	(12) 노동 기준, 숙련/훈련, 긴급, 석유 의존, 적기 배송, 운송 방법, 하부구조 유지, 국제 관계, 기후 변화, 외식, 비상 공급, 가격, 양, 신뢰성, 식품 접근성, 영양적 가치,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에너지 공급
구매 및 소비	소비자, 공공 부문, 기업, 음식점, 배달업, 기업, 돌봄 시설, 병원, 교육기관	(13) 영양, 소비자 선호, 표시 및 광고, 생활양식, 영양, 기술, 전통 식품, 건강과 안전, 식품 안전과 위생, 표적 집단(영양, 다문화, 임신부), 건강/웰빙, 모유수유, 다이어트, 영양기준, 조리 모임	(14) 에너지와 물 사용, 기후 변화 대기 질, 조리 기술 및 구매 선호, 표시	(15) 가구소득, 식품가격, 소비자 요구와 선호, 신규 시장(예, 윤리적 제품 인터넷 구매), 외식, 관광, 전통 음식, 기업 조달, 공공 조달, 맛/질, 배달, 고용, 조리 기술/기구, 전통시장	(16) 생활양식/습관, 소득, 편이성/ 접근성, 노동 형태, 기술(조리, 전통식품 등), 영양/식품 지식, 교육, 소비자 선호, 표시, 조리 모임, 표적 집단, 문화/특별 이벤트, 가족, 모유수, 구매의 다양성, 시설 및 장비, 식품과 물 오염, 윤리적 소비
소비 후 처리	공동체 집단, 가구, 개인, 지자체, 시장, 제조업자, 공공부문, 소매업자, 음식점, 폐기물 업체, 사회복지단체	(17) 매립, 대기 오염, 냄새, 소각에 따른 건강문제	(18) 기후 변화, 식품관련 쓰레기 및 분해되는 포장, 매립지 부족, 매립지 가스, 소각 배출, 폐기물 운송에 따른 혼잡과 대기 질 문제	(19) 수거 운송비/폐기물 관리비용, 신규 시설에 투자, 재활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20) 폐기물 수집과 처분의 중단에 대한 위협

서울시 먹거리 전략 2020 (안) 도출

비전

함께 만드는 건강한 식품, 함께 누리는 따뜻한 밥상

목표

안전하고
건강한 먹
거리

먹거리를 나
누는 이웃

음식문화를
즐기는 서울

환경을 생각
하는 소비

먹거리 통한
사회적 경제
형성

과제

먹거리시민
양성 등

희망급식소
만들기 등

서울 음식문
화 계승 등

지속가능 음
식점 인증
등

먹거리창업
지원센터 등

추진
전략

비전 공유

시의 기준
정책과 연계

민간참여
거버넌스

모니터링/
결과 환류

하부구조
강화

서울시 먹거리 전략 2020(안) 추진과제

목표

-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통해 시민의 건강을 증진한다.
 -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식품은 높은 수준의 환경, 영양, 건강, 윤리적 기준을 따른다.
- **먹거리를 나누는 이웃**
 - 모든 시민의 먹거리를 보장하여 굶주린 시민이 없게 한다.
 - 가정, 마을, 학교, 직장 등 생활터를 통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제공, 공유한다.
- **음식문화를 즐기는 서울**
 - 서울 한식을 계승하고 음식문화의 다양성을 향유한다.
 - 서울문화의 중심에 다양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둔다.
-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
 - 환경 친화적인 먹거리 도시를 만든다.
 - 먹거리의 생산, 유통과 소비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인다.
- **먹거리를 통한 사회적 경제 형성**
 - 먹거리 산업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사회적 경제를 형성한다.
 - 서울시의 먹거리 활동이 우리 농업을 살리고 하는데 기여한다.

과제 및 영역별 분류

	건강	환경	경제	문화	공동체
1-1.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먹거리 시민 양성(중점)	0	0		0	0
1-2. 공공기관의 먹거리 구매/제공 영양기준 제정(중점)	0	0	0		0
1-3. 공공급식 종사자 교육훈련 사업	0	0	0		
1-4. 학교의 먹거리 생태환경 조성	0	0			0
1-5. 음식점 위생등급 표시 의무제 (중점)	0		0		
2-1. 희망급식소 만들기	0		0		0
2-2. 복지시설 먹거리 인증기준 강화	0	0		0	0
2-3. 마을 먹거리 지도 만들기	0	0	0		0
2-4. 마을 공동부엌 만들기 (중점)	0	0	0		0
2-5. 먹거리 친화마을 만들기	0	0			0
2-6. 마을 먹거리 활동가 양성	0	0	0		0
3-1. 서울 음식문화의 계승	0			0	
3-2. 길거리 음식 특화거리 조성			0		0
3-3. 세계 음식도시, 서울 (중점)		0	0	0	
4-1. 지속가능 건강음식점 인증	0	0	0		
4-2. 신선식품 직거래 판매 확대 (중점)			0		
4-3.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0	0		
5-1. 먹거리 창업 지원센터 설치 (중점)			0	0	
5-2. 먹거리 마당으로서의 전통시장 활성화			0	0	
5-3. 먹거리 사회책임 조달제 도입		0	0		0

1-1.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먹거리 시민 양성 (중점)

- “서울시 먹거리 전략 2020”에 대한 정보 확산
 - 먹거리 통합 웹 사이트 구축
 - 혁신적 정보제공 체계 : 다산 콜센터 활용
- 서울시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의 시행
- “한 사람이 열 가지 요리” – 요리를 즐기는 시민
- 음식점 영양정보 제공 확대
- 먹거리 관련 기술을 시 사업에 통합
 - 취약계층 대상으로 교육, 훈련 후 일자리 연계
 - 이주민 정착 지원사업에 적용 등

1-2. 공공기관의 먹거리 구매/제공 기준 제정(중점)

- 서울시 및 산하기관에서 판매/제공하는 식품/급식의 기준 제정
 - 구내식당을 포함한 급식, 자동판매기 판매 식품, 회의 간식, 카페테리아 등
 - 서울시 공식 행사의 먹거리 기준 제정 및 확산
 - 영양기준에서 시작하여 계절식품, 동물복지, 환경 고려 등으로 확대
 - 건물 내 자동판매기 제품의 칼로리 표시방안 도출
- 운영 매뉴얼 개발 및 관계자 대상 훈련과정 개설
 - 기준에 적합한 식품, 급식 목록 작성 및 배부

1-3. 공공급식 종사자 교육훈련 사업

- 공공급식 종사자 대상 교육과정 개발
 - 건강 요리 레시피 개발 및 보급, 경연대회 개최
 -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실무자
 - 기존의 공공급식 종사자 부터 실시
- 납품업자 대상 교육
 - 환경친화 농축산물 인증제도 (GAP 등),
 - 구매처 정보
- 찾아가는 건강요리 강의를 위한 쿠킹 버스 프로그램 추진

1-4. 학교의 먹거리 생태환경 조성

- 먹거리 생태학교 조성 : 농장에서 학교까지
- 아침밥 클럽 확대와 학교급식 환경개선
- 학교 건강매점 협동조합 모델 개발 및 보급
- 지역 농산물 급식 확대
 - 친환경 도시 농업 교육, 장독대 설치, 학교 텃밭 가꾸기 등
- 교직원에 우호적인 식생활 환경 조성
- 학교 먹거리 정책 개발 및 평가 툴의 개발과 보급

1-5. 음식점 위생등급 표시 의무제 (중점)

- 제도 운영계획 수립
 - 희망업소부터 시작, 장기적으로 전 업소 의무화
 - 위해기반 위생점검표 개발
 - 위생등급과 출입검사 횟수의 연동
- 평가결과 DB 구축 및 공개 체계 마련
 - 업소별 등급, 위생점검 결과 이력
 - 검색 사이트, 앱 개발, 120번을 통한 안내 등
- 평가인력 훈련 및 업무 표준화 작업
- 음식점 업주, 종사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마련
- 시민대상 제도 홍보

2-1. 희망급식소 만들기 (무료 급식소를 희망 급식소로)

- 먹거리 보장 종합계획 수립
 - 서울시민의 먹거리 보장 수준 파악
- 긴급 식품지원 수요 및 무료급식 실태조사
- 희망 먹거리 지원센터 설립
 - 무료급식소에 텃밭 재배, 영양교육, 조리교실 등 도입
 - 시의 주거, 정착, 공동체 구축, 복지사업에 통합
- 무료 급식소 DB 구축 및 검색, 안내 지도 개발
- 중앙정부에 식품지원 프로그램 확대 건의

2-2. 복지시설 먹거리 인증기준 강화

- 먹거리 인증기준 마련 및 시범사업 실시
 - 평가분야 : 영양 서비스, 자동판매기, 매점 등
 - 단계별 인증체계 개발 및 시범사업
- 인증기관에 대한 지원 활동
 - 시민대상 인증기관 홍보
 - 먹거리 환경의 평가
 - 기술적 지원
 - 종업원대상 교육 : 영양기준, 식품위생 지도점검 등
- 희망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
- 서울형 인증제에 우선 반영하고 장기적으로 대상 확대

2-3. 마을 먹거리 지도 만들기

- 먹거리 관련 마을공간 분석
 - 편의점, 슈퍼마켓, 시장 등의 위치, 먹거리 미보장 주민의 수와 위치 등
 - 서울형 마을 먹거리 접근성 지수 개발
- 마을 먹거리 지도 제작
- 먹거리 사막 마을 지원 프로그램 개발
 - 농부의 시장 연계 등

2-4. 마을 공동부역 만들기 (중점)

- 서울형 마을 공동부역의 설계
- 시범사업 실시 및 평가
 - 저소득층 밀집지역 선정
 - 마을의 기존 자산 조사 : 인적, 물적 자원
- 마을 공동부역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 서울시 마을 공동부역 지원단 설립
 - 공동부역 개설 및 운영 지원
 - 마을 먹거리 활동가 파견
 - 공동부역 설립 및 운영 안내문 작성

2-5. 먹거리 친화마을 만들기 (중점)

- 먹거리 친화 마을 지정 기준 개발
 - 지역 내 먹거리 관련 조직과 활동 실태조사, 연계
 - 텃밭 가꾸기 등 도시농업과 주민교육, 일자리, 급식 등을 연계한 공간 구성
 - **마을 아침밥 클럽** 모델 개발 및 보급
 - 먹거리 친화 마을 지정 및 지원
 - **걸어서 갈 수 있는 급식소** 설치 :
 - 종교기관, 부녀회관 등
 - 마을 공동부엌 만들기, 마을 먹거리 활동가 파견
 - **모유수유 권장사업**
-

2-6. 마을 먹거리 활동가 양성

- 마을 먹거리 활동가 양성 사업
- 마을 활동가 활동 지원
 - 마을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키트
 - 활동가 간 네트워크 지원, 플랫폼
 - 활동가 수요처 확보 및 연결
- 마을 먹거리 활동의 홍보 및 마케팅

3-1. 서울 음식문화의 계승

- 전통 '서울 한식'의 발굴을 위한 전통세대의 구술 연구
- 서울 반가나 중인계층에서 실제로 향유한 음식조리법, 식재료 조달법, 식사의례 복원
- 전통 '서울한식'의 보존 및 계승, 체험사업
- 문화상품으로 개발 - 한식체험/ 문화체험/ 스토리 발굴
- 전통 '서울 한식' 체험관 혹은 서울 음식박물관 개관

3-2. 길거리 음식 특화거리 조성

- 길거리식품 판매업소 실태조사
- 길거리식품 관리방안 마련
- 길거리식품 자가품질검사 서비스 실시
- **음식 트럭**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마련
- 길거리식품의 관광 상품화 방안 및 진흥사업 개발
 - 길거리 식품영업자 판매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 전기 및 용수 공급체계 구축 등

3-3. 세계 음식도시, 서울 (중점)

- 서울시 세계 음식축제의 정례화
- 민족음식점(개도국 대상) 지원 사업
 - 시내 민족음식점 실태 조사 : 운영주, 규모, 메뉴, 식재료 확보방안
 - 서울시내 민족음식점 지도 작성, 앱 개발
 - 해당 민족의 역사, 문화와 연계한 스토리텔링
 - 유통체계 연계
- 채식주의 식당 창업 및 지원

4-1. 지속가능 건강 음식점 인증

- 인증 범위의 검토 및 인증 기준 설정
 - 생태환경, 윤리적 소비, 건강한 소비 등
- 건강 음식점 인증 및 지원
 - 업주, 종사자 교육
 - 유통 공급체계 연계
- 시민대상 홍보
 - 건강식당 DB 마련 및 앱 개발, 지도작성

4-2. 신선 식품의 직거래 판매 확대 (중점)

- 생산과 소비의 연결을 위한 정보교환의 장 마련
 - 우수 사례 수집, 제공
- 도시농업, 텃밭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개척 지원
- 농부의 시장과 식품 지원 프로그램의 연계
 - 저소득층에 과일, 야채 구매 쿠폰 지급
 - 무료 요리교실, 영양교육 실시,
- 부녀회 등의 농산물 직거래 활동에 대한 파악 및 통합 방안 모색

4-3.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 개인대상 음식물 쓰레기 감량 실천사항 홍보
 - 음식문화 개선 운동
-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및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
- 건강하면서 기호를 반영한 레시피 개발 보급으로 잔반 줄이기 : 대상별 접근
- 1회용 플라스틱 물병 안 쓰기 운동
 - 자기 컵 들고 다니기
 - 서울시 공식 행사의 먹거리 기준 제정 및 확산
- 급식소 사전 필요량 산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1. 먹거리 창업 지원센터 설치 (중점)

- 먹거리 창업 보육센터 설립 및 운영
 - 서울시 중소기업연구개발, 창업보육센터 설립과 연계하여 추진
- 시제품 생산을 위한 공간 및 기기, 설비 단기 임대 프로그램 운영
 - ※ 고가 실험장비 공동활용 프로그램 참조
- 지원 프로그램 개발 : 창업 전 및 창업 후 운영지원
 - 마을 공동체 기업에 먹거리 부문을 적용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공모 시)
- 판매처 연계 등 마케팅 지원

5-2. 먹거리 마당으로서의 전통시장 활성화

- 전통시장 협동조합 전환 지원
 - 물류 지원, 시설 자금 융자 (주차장, 투명지붕 등), 법률자문, 경영 지원
 - 국내외 모범적인 시장 협동조합 견학
 - 전통시장 협동조합 운영 표준 모델 개발 및 확산
- 전통시장을 먹거리 소통의 장으로 활용
 - 남은 식재료, 음식 등을 푸드뱅크와 연계하여 저소득층을 지원
- 시장 내 음식의 안전성과 건강성 증진 사업

5-3. 먹거리 사회책임 조달제도 도입

- 먹거리 분야 사회책임 조달의 유형 개발
- 법률과 제도의 정비
 - 먹거리 조달에서 농촌과의 계약 재배 가능
 - 학교 건강매점 등에서 협동조합 등 입찰 시 가산점 부여
- 공정무역 제품의 우선 구매 검토
- 먹거리 구매자, 납품업자 대상 교육 실시

추진전략

- 서울시 먹거리전략 2020의 비전 공유
 - 서울시 희망먹거리 헌장의 제정과 선언
- 시의 기존 정책과 연계
- 민간 참여 거버넌스
- 정기적 모니터링과 평가결과의 환류
- 하부구조의 강화
 - “서울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의 제정
 - 추진조직의 지정과 보강 :자문, 행정, 실무조직

서울시 희망 먹거리 선언(안) 의 제안

1. 서울시는 굶주린 시민이 없도록 노력한다.
2. 서울시는 먹거리 보장을 높이는 소득, 고용, 주택, 교통 정책을 실시한다.
3. 서울시와 관련기관에서는 적절한 가격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판매, 제공한다.
4. 서울시는 건강과 사회 및 환경을 고려한 먹거리 조달정책을 실시한다.
5. 서울시는 도시 농업과 텃밭 가꾸기를 권장한다.
6. 서울시는 직거래와 계약재배를 통하여 도시와 농촌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7. 서울시는 시민 자신과 이웃을 위한 다양하고 자발적인 먹거리 활동을 지원한다.
8. 서울시는 모든 시민이 건강과 환경을 고려하는 먹거리 생활을 하도록 교육과 정보를 제공한다.
9. 서울시는 전통 음식문화를 계승하고 세계의 다양한 음식문화를 즐길 수 있는 음식도시로의 발전을 지향한다.
10. 서울시는 위와 같은 일들을 실천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시민단체, 협동조합, 기업 및 다른 정부기관과 협력한다.

□□□□년 서울시 먹거리 체계는□

- **생산단계** : 서울시내/근교에서 생산되는 식품의 종류와 양이 늘 것이다. 구매 양식의 변화로 국내 농업을 살리는데 기여할 것이다
- **가공 및 제조 단계** : 높은 수준의 안전성과 품질을 가진 먹거리가 가공, 생산되고 시가 이를 지원할 것이다.
- **유통단계** :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환경적으로 효율적인 식품 유통 체계를 가질 것이다
- **소매 단계** :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만드는데 판매자가 기여할 것이다
- **소비 단계** : 모든 시민은 환경과 사회적 목적에 기여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식생활과 문화를 즐길 것이다.



Mayoral Candidate Forum on the Future of Food in New York City

WEDNESDAY, JULY 17, 2013

6:00 - 8:00 PM (DOORS OPEN AT 5:00 PM)

**TISHMAN AUDITORIUM AT THE NEW SCHOOL
66 W 12TH ST, NEW YORK, NY 10011**

This year is an important election year for food. The election is an opportunity to reflect on the progress we've made, but also to recognize what is left undone.

Because a Mayor who understands the importance of food is critical to achieving a healthier, fairer, more sustainable, more affordable, and economically stronger food system, several of the city's leading fo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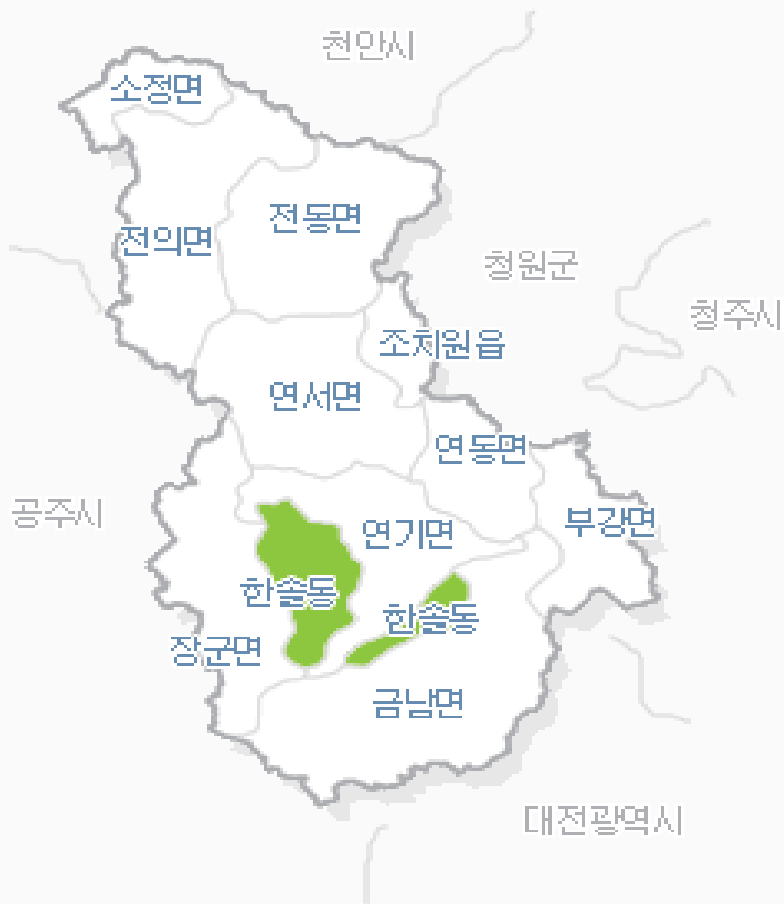
- 6 시장 후보자
- 76 파트너 조직
- 750 청중
- 1,300 온라인청중

system
future
The fo
the De
This ev
togethe
vision



'A Food Primer for Our New Mayor' is supported by the following organizations:²

- | | |
|--|---|
| #QualityACCESS Initiative | Myrtle Avenue Revitalization Project (MARP) |
| Baum Forum | New York City Coalition Against Hunger |
| Bed-Stuy Campaign Against Hunger | New York City Food Policy Center at Hunter College |
| Beth-Hark Christian Counseling Center, Inc. | NRDC Action Fund |
| Brighter Green | NY Faith & Justice |
| Bronx Health REACH | NYC Food and Fitness Partnership |
| Brooklyn Food Coalition | NYC Foodscape |
| Citizens' Committee for Children of New York City | Ocean Hill-Brownsville Coalition of Young Professionals |
| City Harvest | Parent Earth |
| Community Food Advocates | Program in Nutrition, Teachers College |
| Down to Earth Markets | Columbia U |
| East New York Farms | Public Health Solutions |
| Food & Water Watch | Queens County Farm Museum |
| Food Bank For New York City | The River Fund New York |
| Food Chain Workers Alliance | Scenic Hudson Inc. |
| Food Systems Network NYC | Slow Food NYC |
| FoodFight | Slow Money NYC |
| Greenpoint Reformed Church Hunger Program | Southside United HDFC (Los Sures) |
| Harlem Health Promotion Center | St. Edward Food Pantry |
| Hunger Action Network of New York State | St. Mary's Food Pantry and Soup Kitchen |
| Jim Owles Liberal Democratic Club | The Sylvia Center |
| Just Food | Turning Point |
| Karp Resources | Waste to Wealth Ventures |
| Laurie M Tisch Center for Food, Education & Policy | Welfare Rights Initiative |
| Laurie M. Tisch Illumination Fund | Wellness in the Schools |
| Leviticus Church / Five Loaves and Two Fishes | West Side Campaign Against Hunger |
| Local 1500 | WhyHunger |
| LSA Family Health Service | Xavier Mission |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로컬푸드 연구모임
세종시 로컬푸드와 먹거리정책
수립을 위한 대토론회



지정토론

완주군청 로컬푸드 담당 나영삼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먹거리전략 수립 대토론회 (토론문)

타산지석(他山之石)과 실사구시(實事求是)를 위한 몇 가지 전제조건

나영삼 (완주군 농촌활력과 로컬푸드담당)

1. 들어가며

- 한국에서도 지역먹거리정책이 현실화하고 있음. 이는 종합적인 농업농촌위기 및 소비자 건강밥상위기에 대한 사회적 자각과 필요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우리의 지역먹거리 정책에 대한 접근방법은 아직도 담론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지역단위 상황과 조건에 부합하는 전략수립과 조직화는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
- 일각에서는 <로컬푸드=만병통치약>으로 인식하여, 실사구시 가능한 조건과 주체를 마련하기 보다는 성급하게 타 지역 모델을 이식함으로써 모처럼 마련된 우리의 농업과 먹거리질서에 성찰의 기회를 사장시키는 역효과를 낳고 있음
- 한국의 농업생산 및 유통 소비 조건에서는 로컬푸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다품목 소량생산 중심의 지역농업생산의 재편문제, ② 농민가공 촉진의 문제, ③ 다양한 관계형 시장 창출의 문제, ④ 조직화 주체 양성 및 중간운영조직의 공공성 확보문제, ⑤ 지역농정 차원의 종합적인 계획수립 및 배후지원시스템의 구축 문제 ⑥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지역먹거리 네트워크 조직 및 강화문제 등이 지역의 현실속에서 민관거버넌스를 통해 실질적으로 조직되어야 함
- 따라서 로컬푸드가 뿌리내리기 위한 지역단위 실천전략에서 최소한의 필요충분조건을 점검해 보기로 함

2.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실현의 관점 견지 (지역단위 투트랙 조직화 전략)

○ 한국 농업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몇 가지 통계

-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2012년 현재 곡물을 포함한 식량자급률은 22.6%에 불과하며 여기서 쌀을 제외할 경우 5%에도 채 미치지 못함
- 도농간 소득격차도 지속적으로 격차가 벌어져 도시민의 58%수준으로 떨어짐.
- 규모화농업 추진의 결과 농가소득 양극화도 매우 심각해짐. 2012년 농축산물 판매금액 기준, 연소득 1억 이상 농가비율은 전체의 2.6%인 반면 연소득 1천만원 미만 비율은 64.9%에 달함
-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농업농촌의 붕괴는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판단됨

○ 영세 소농을 지역농업을 유지하는 핵심역량으로 제 구축

- 그간 중앙정부의 구조조정시책으로 인해 정책적으로 소외된 지역 영세 소농, 고령농, 여성농, 귀농귀촌인 등을 로컬푸드 참여주체로 조직화
- 규모화 품목은 공동조합법인을 통해 경쟁시장으로, 다품목 소량생산은 지산지소 시장을 통한 직거래로..(3:7/7:3의 원리)

※ 종합적인 도시먹거리정책 차원에서 접근하더라도 결국은 지역농업 제편과 관계형 시장의 유의미한 창출에서 출발해야 함

3. 담론을 넘어 현장중심 실사구시 체계로 : 누가, 무엇을, 어떻게..

1) 누가?

-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에 이르는 전 과정을 누가 주체가 되어 조직할 것인가의 문제
- 가치를 공유하는 지역 내 주체역량 마련이 관건 : 가치의 공유, 실행의지, 단계적 준비
- 지역농정 혁신을 통한 공공형 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는 이유 : 통합적 정책과 예산, 주체역량 강화, 지역 제 주체간 사회적 합의의 측면
- 3가지 영역별 주체 확보와 통합성 견지
 - ① 행정 내 정책생산 및 조율 : 전담조직 설치/ 계약직 제도(민간역량 수혈)

- ② 공공형 중간조직 운영 : 공공형 조직(비영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 ③ 주민교육 등 외부지원조직 : 주체역량 강화 및 농가 조직화 지원
- ※ 민관의 실질적 거버넌스가 구축될 때, 시너지가 생긴다

2) 무엇을?

→ 지역실정에 기초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 ; 종합추진계획

- ① 정책목표 : 정책대상, 정책목표(슬로건)
- ② 정책수단 : 생산 및 가공의 조직화/ 관계형시장 창출/ 2단계 이하 물류시스템 구축/ 안전성 관리체계/ 생산과 소비의 사회적거리 축소/ 지역먹거리 체계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 등
- ③ 공공형 운영조직의 육성 : 정책 실행조직, <로컬푸드 가치> 견지
- ④ 제도적 지원체계 확보 등

3) 어떻게?

① 정밀한 정책설계를 위한 지역 자원과 종합여건 조사

- 지역농업의 실태 파악 : 농업생산구조, 농가형태(대, 중, 소), 생산품목, 유통경로, 가공식품 현황 등
- 지역의 로컬푸드 종합적인 여건 조사 : 소비여건, 관계형시장 특징
- 교육과 토론을 통한 인적자원의 확보(정책영역별 리더)

② 중장기 계획의 수립

- 가칭 <세종시 지역먹거리전략 10년 계획 수립>
- 정책, 예산, 추진조직(행정, 민간), 제도, 단계별 추진 로드맵
- 세종시, 중부지역 거점도시로의 발전로드맵을 반영한 계획 수립
- 시민의 먹거리 접근성 개선과 공공부문 조달을 중심으로 정책 설계

※ 조례가 만들어지면 정책과 예산수립 추진의 직접적 계기가 될 수 있음

③ 다품목 소량 생산의 조직화, 농민가공 조직화 (최우선 과제)

- 정책대상(지역 영세소농 우선)이 중심으로 생산농민 조직화 교육
- 다품목, 연중출하시스템, 안전성, 맛 중심으로 생산방식 전환

- 마을 및 주민협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농민가공 촉진

④ 관계형 시장의 창출 :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방식

- 세종특별자치시의 도시 확장 전략에 발맞추어 단계적으로 적용
- 거점별 상설직판장(시민 생활권)과 공공조달 중심으로 설계
- 공공조달의 경우 다양한 품목의 연중공급능력+가격경쟁력 요구(시중가)

※ 공공조달의 경우, 최저입찰제도의 한계 극복 : 공공조달 지역산 우선 공급의 제도화 노력, 연중 균일가 전략

4. 나가며

○ 누구를 위하여 좋은 올리나? : 지속가능한 지역농업, 소농, 지역소비자

- 종합적인 지역먹거리전략의 마련하되, 실현가능한 지역사례를 현장에서 조직하고 이를 확대해가는 방식이 바람직함
- 지역농정의 혁신, 운영조직의 육성, 생산과 소비의 조직화
-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구조 : 어떤 지점에서 매듭을 만들 것인가?

○ 행정(공공부문)의 능동적 역할이 중요하다

- 새 술은 새 부대에 : 행정 내 전담 조직(본청 내 별도 조직/ 역할 특화)
 - 통합적인 정책, 예산 마련과 조례 제정
 - 생산조직화 : 교육프로그램, 소규모비닐하우스지원, 친환경자재지원
 - 가공조직화 : 마을 및 주민가공, 거점별 농민가공센터 등(슬로푸드, 드레싱, 제과제빵 등)
 - 온고이지신 음식문화 창달 : 농가레스토랑 또는 직판과 연계한 음식문화(정크푸드를 대신할 수 있는 협동조합형 단절여성 일자리)
 - 관계형 시장 관련 하드웨어 : 자치단체 소유(공공성 견지)
 - 로컬푸드형 공공급식지원센터 (학교+공공기관+병원+군부대 등)
- 생산과 소비간 신뢰 증진을 위한 연대프로그램의 기획 추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로컬푸드 연구모임
세종시 로컬푸드와 먹거리정책
수립을 위한 대토론회



지정토론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유통과장 남궁호

로컬푸드 대토론회 토론 자료

□ 들어가기

로컬푸드 운동은 '지역 생산물을 지역 내에서 소비하자'는 것이다.

국내에서 최초로 로컬푸드 인증제를 실시한 강원도 원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농산물 직거래 콘테스트' 직거래 매장 부문에서 최우수 사업자로 선정된 용진농협이 있는 전북 완주군 등 지자체를 비롯하여 최근엔 대형 유통업체도 로컬푸드 운동에 나서고 있다.

외국에선 유럽의 로컬푸드(Local Food), 미국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단순한 판매자와 구매자라는 관계에서 머무르지 않고, 협력관계를 만들어가는 공동체 지원농업(CSA =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일본의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지산지소(地産地消), 우리나라의 국산애용을 위한 신토불이 사상이 있었다.

그동안 세종시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특히 첫마을 중심으로 '첫마을 직거래 사업단'을 조직하면서 로컬푸드와 지역발전을 위한 논의들이 있어왔다.

다만 이러한 자생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다양한 정책변수들이 개별적으로 활동하면서 '이슈 파이팅' 같은 관심 끌기 형태의 일회성 정책은 아닌지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정책을 융합하여 세종시만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한 여러 변수들에 대해 점검코자 한다.

□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여러 변수들

① 로컬푸드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의 문제

안전한 먹거리 지역 식재료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하는 논의가 먼저 있어야 할 것 같다. 외국의 경우 로컬푸드(local food)를 50km내 식재료로 할 것인가 혹은 100~200km까지 넓힐 것인가로 토론한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그런 논의가 전혀 없다. 지역 식재료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

최근 한국에서의 로컬푸드 운동은 3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다. 첫 번째는 농민이 자발적으로 만든 직거래장터 등이고 두 번째는 농협이 만든 직판장, 세 번째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설립한 농업회사법인 또는 민간위탁 등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직판장이다.

지금까지 논의되는 3가지 유형의 로컬푸드 방식으로는 행정구역을 넘어서 운영되거나 활동한 사례를 찾기는 어렵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예산이 투입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수단으로 로컬푸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쉽게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로컬푸드 사업이란 난제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국가 균형발전의 선도도시로 출범한 세종시는 인근 공주, 청원 등 주변도시와의 상생 협력 차원에서 로컬푸드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도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세종시 로컬푸드 사업의 시작은 로컬푸드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의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

② 좋은 지역 식재료를 지역 소비자들이 직접 사기 어렵다

대형유통업체가 문제다. 하나로마트·농협 등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고 있으나, 농민들의 편에 서는 유통업체가 아니다. 거상들은 대규모 자본과 유통망으로 좋은 식자재를 받아 대형유통업체에 넘긴다.

최근 로컬푸드 운동이 활성화되고 국민의 식생활에 대한 의식이 향상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직거래를 통해 중간마진을 없앤 생활협동조합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1990년대 초 한울 등 생활협동조합이 지산지소 운동을 했다. 대전·전주 등 지방의 중소도시는 시장이 좁아서 잘 안 됐다.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이 직접 생산자들을 찾아 미리 공급량과 가격을 결정하므로 판매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이다. 소비자가 조합원이 되기 위해선 소정의 출자금을 내야 한다.

그리고 가격안정기금이라는 추가 가격안정장치 등을 마련, 물품가격이 비싸질 경우 소비자 판매가는 유지하면서, 생산자에게 이 기금을 활용해 납품가를 올려주는 방법도 실시한다.

생협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신뢰를 바탕으로 자발적인 계약 관계를 형성하여 출발한다는 점에서 추진주체의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③ 학교급식을 통한 로컬푸드 활용방안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학교급식은 지역에서 생산된 식재료를 생산자와 학교가 직거래하여 제철의 식재료를 급식에 사용하여 물리

적·사회적·시간적 거리의 측면에서 현실성 있는 로컬푸드 운동이 학교급식이다. 로컬푸드를 활용한 학교급식으로 학교와 농촌, 생산자와 학교와의 일상적 교류, 농장학습 등을 통해 학생들의 인성을 함양시키고 소중한 먹을거리와 우리농업·농촌 그리고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토대가 되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 로컬푸드를 이용한 급식의 식생활교육 효과는 다른 일반적인 학교의 식생활교육 효과보다 광범위하고 빠른 속도로 나타났음을 볼 때 우리의 로컬푸드 운동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④ 누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의 문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로컬푸드 운동의 한계와 오류의 원인으로 농민들이 미리 준비하지 못한 점, 농민단체 또는 품목별 생산자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적이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점, 지역농협의 직거래매장과 장터는 장기적 비전과 계획이 없거나 직매장건립 등 하드웨어 중심으로 고민하는 등 사업의 성공과 안정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등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결국 행정이나 농협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한 자주적인 생산자 조직의 조건을 갖추는 일이 로컬푸드 운동의 성공의 열쇠라고 보는 것이다.

가뜩이나 영세한 농가에서는 좋은 식재료를 내놓기에도 바쁘다.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재료를 엄선해서 지역의 소비자들이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생산형 조직과 판매형 조직을 따로 육성할 필요성이 강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시의 역할과 책임

세종시는 2030년까지 인구 80만 명의 ‘어울림과 창조의 도시’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도시기본계획안이 나왔다.

하지만 세종시의 도시계획에는 런던, 토론토, 밴쿠버, 뉴욕, 암스테르담 등 선진국 주요도시에서 도시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소비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먹거리 정책을 고민한 것과는 달리 먹거리 정책에 대한 반영은 전혀 없는 것 같다. 도시계획 수립이 시민의 행복추구권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시민의 건강을 위한 먹거리 정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서울시 먹거리 전략 2020(안)에서 제시한 공공기관의 먹거리 구매 기준에 제정에 대한 부문은 안전 먹거리에 대한 책무를 지니고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참고할 만한 주요 제안으로 판단된다.

서울시의 안전먹거리 구매기준을 제정 방안은 지방자치 단체가 직접 로컬푸드 산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하는 등 정책방향을 선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변화를 유도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로컬푸드 산업의 궁극적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한다면 전통시장을 먹거리 소통의 장으로 만들고 먹거리 마당으로서의 전통시장 협동조합 운영 표준 모델 개발 및 확산 등 전통시장의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서울시 먹거리 정책은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주민 로컬푸드 인식조사

2013년 5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로컬푸드 연구모임
대표 박영송 의원

I. 서론

1. 조사 목적

로컬푸드(Local Food)는 글로벌푸드(Global Food)의 폐해로부터 지역 생산자를 보호하고,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면서, 지역 농가의 활성화를 통해 식재료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급률을 높여가는 지역중심의 대안농산물체계를 일컫는 말이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로컬푸드 연구모임에서는 세종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주민 로컬푸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주민 로컬푸드 인식조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를 통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로컬푸드 연구모임의 활동에 우리 세종시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활성화의 기반으로 삼고자 한다.

2. 조사 설계

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로컬푸드 연구모임의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주민 로컬푸드 인식조사”는 세종시 지역주민의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 수준을 파악하고 욕구를 조사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2013년 5월 1일부터 5월 16일까지 설문지 조사방법(survey research)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즉, 구조화된 설문을 토대로 일반 지역주민들에 대한 직접조사를 통해 욕구를 파악하고자 하였고, 조사원들이 배포하여 회수한 것을 연구자가 다시 수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총 3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283부(94.3%)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조사대상 및 표집방법

본 조사의 조사대상은 조치원읍과 한솔동 주민을 중심으로 한 세종시 지역주민이었고, 20대 및 60대의 연령층에 대해 단순무작위 추출을 통해 설문조사대상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4. 조사내용

조사 내용은 크게 2가지 영역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일반적 배경,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 및 욕구의 수준을 알아보았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일반적 배경	성별, 연령, 거주지
로컬푸드 인식 및 욕구 수준	인지도, 구매경험, 구매의사, 활성화 방안

5. 자료분석방법

회수된 설문지를 이용해 수집된 자료는 코딩과 오류 검토 작업을 거친 후 SPSS for windows 12.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배경,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 및 욕구를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방법 및 기술 통계(Descriptive Analysis)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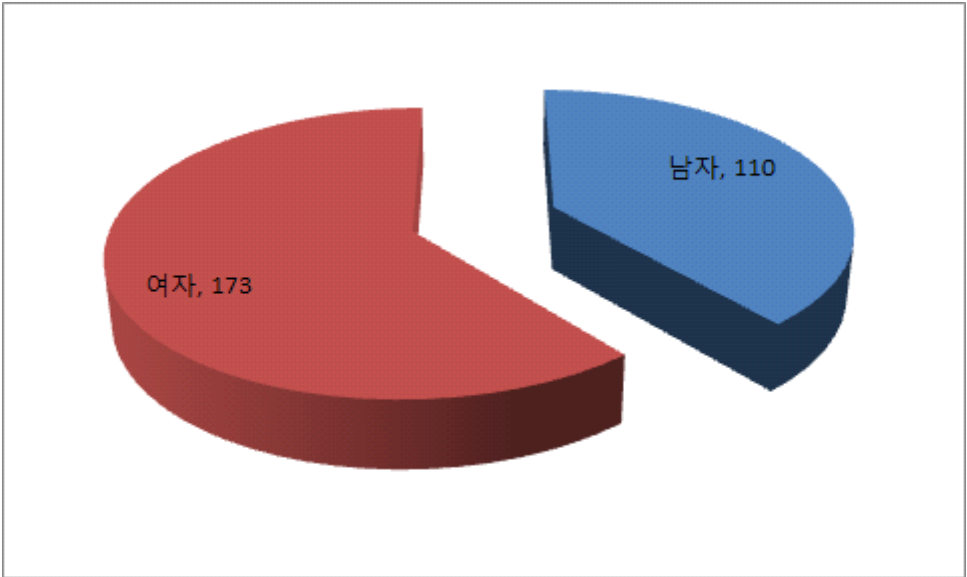
Ⅱ. 조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1) 성별

조사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 250명(34.7%), 여자 471명(65.3%)으로 나타났다.

<그림 1-1> 조사대상자의 성별



<표 1-1> 조사대상자의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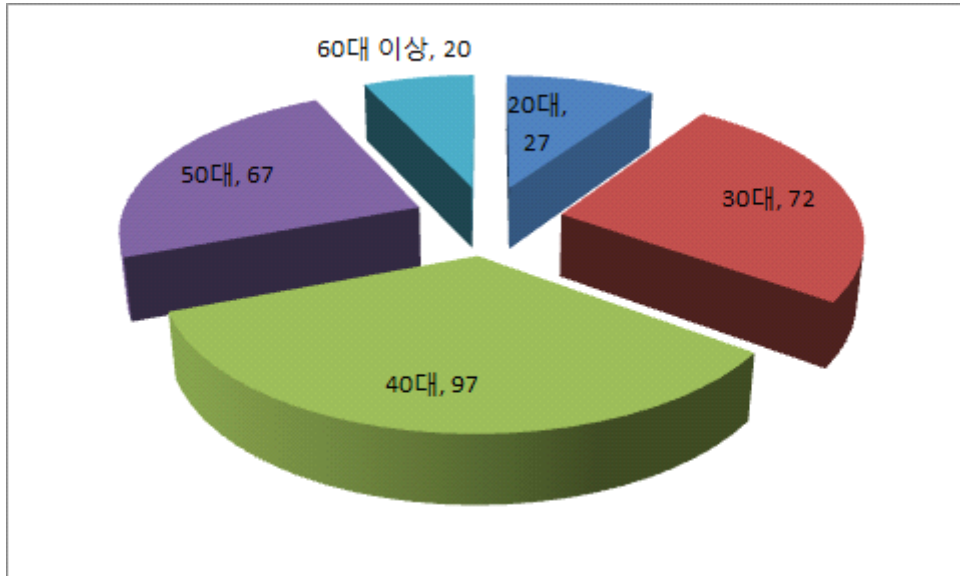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남자	110	38.9
여자	173	61.1
계	283	100.0

2) 연령

조사 대상자의 연령은 20대 27명(9.5%), 30대 72명(25.4%), 40대 97명(34.3%), 50대 67명(23.7%), 60대이상 20명(7.1%)으로 나타났다.

<그림 1-2> 조사대상자의 연령



<표 1-2> 조사대상자의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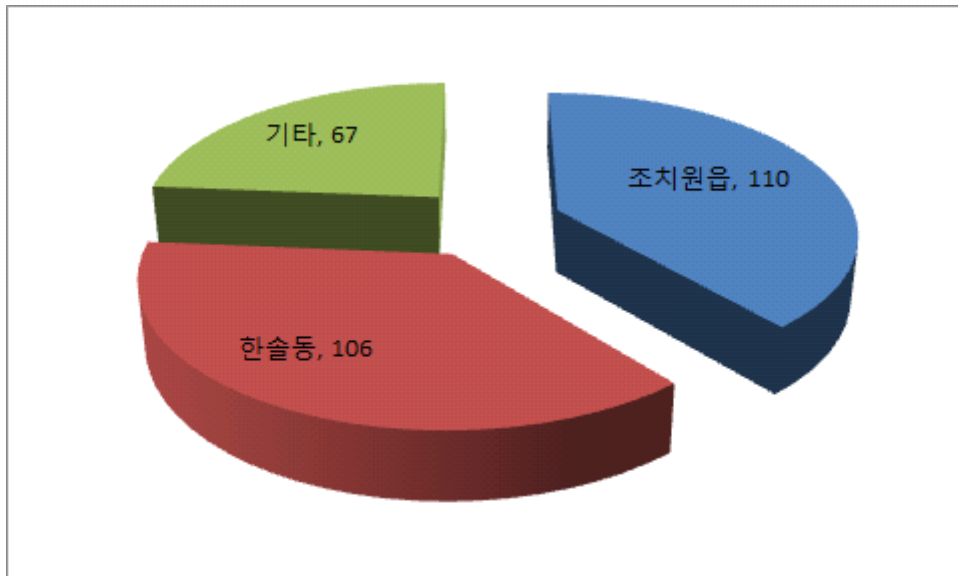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20대	27	9.5
30대	72	25.4
40대	97	34.3
50대	67	23.7
60대 이상	20	7.1
계	283	100.0

3) 거주지

조사 대상자의 거주지는 조치원읍 110명(38.9%), 한솔동 106명(37.5%), 기타(면 지역) 67명(23.7%)으로 나타났다.

<그림 1-3> 조사대상자의 거주지



<표 1-3> 조사대상자의 거주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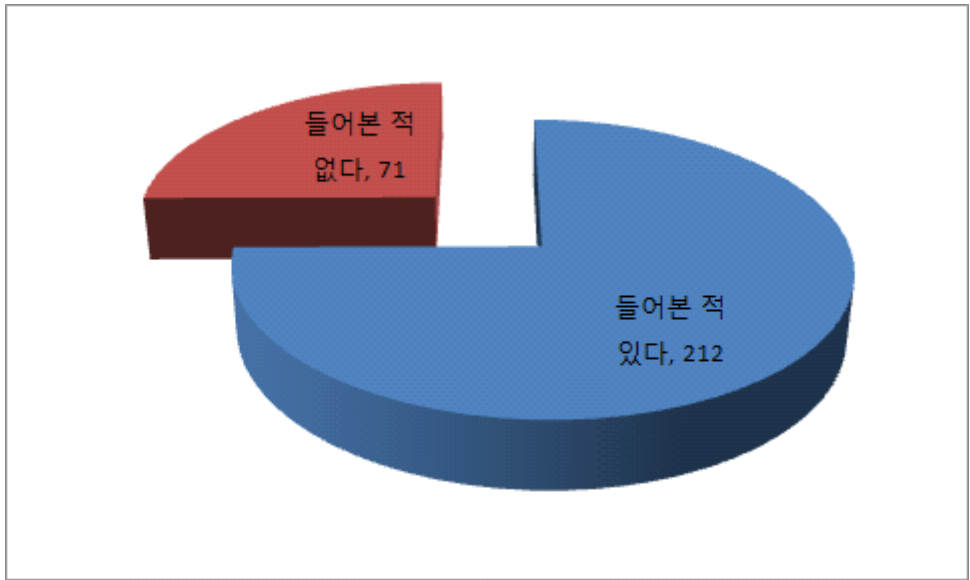
구분	빈도	백분율
조치원읍	110	38.9
한솔동	106	37.5
기타	67	23.7
계	283	100.0

2. 조사대상자의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 및 욕구

1) 로컬푸드 인지도

조사 대상자가 응답한 로컬푸드에 대한 인지도는 “들어본 적 있다”가 212명(74.9%), “들어본 적 없다”가 71명(25.1%)명으로 나타났다.

<그림 2-1> 로컬푸드 인지도



<표 2-1> 로컬푸드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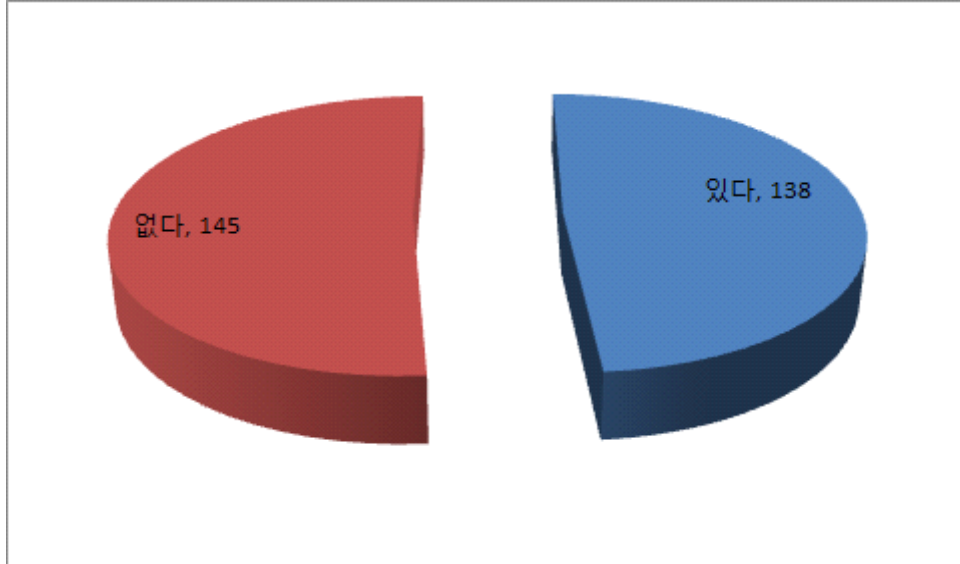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들어본 적 있다	212	74.9
들어본 적 없다	71	25.1
계	283	100.0

2) 로컬푸드 구매경험

조사 대상자가 응답한 로컬푸드 구매경험에 대해서는 “구매경험이 있다”가 138명(48.9%), “구매경험이 없다”가 145명(51.1%)명으로 나타났다.

<그림 2-2> 로컬푸드 이용경험



<표 2-2> 로컬푸드 구매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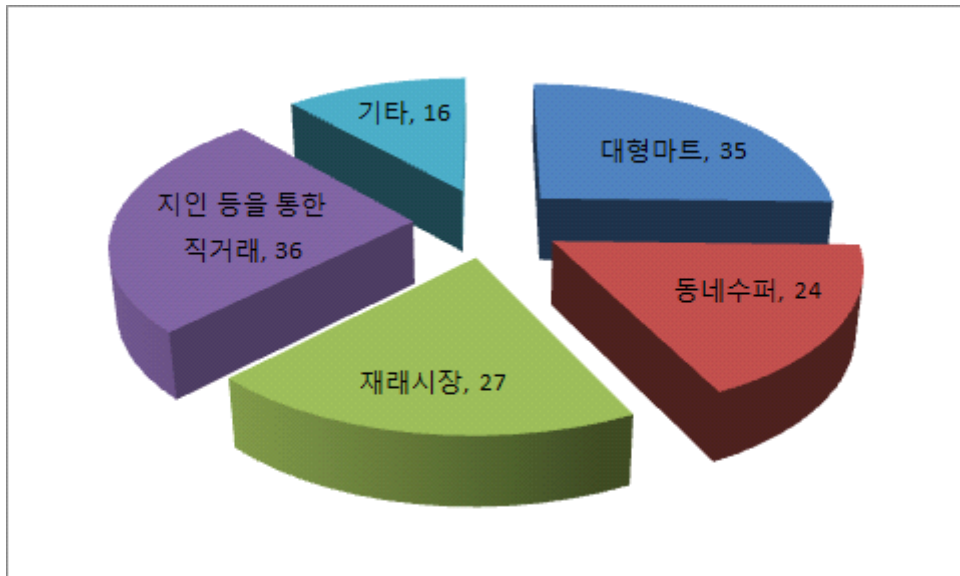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있다	138	48.9
없다	145	51.1
계	283	100.0

2-1) 로컬푸드 구매경험자의 로컬푸드 구매처

조사 대상자가 응답한 로컬푸드 구매경험자의 로컬푸드 구매처는 “대형마트”가 35명(25.6%), “동네수퍼”가 24명(17.5%), “재래시장”이 27명(19.4%), “지인 등을 통한 직거래”가 36명(26.3%), “기타”가 16명(11.3%)으로 나타났다.

<그림 2-3> 로컬푸드 구매경험자의 로컬푸드 구매처



<표 2-3> 로컬푸드 구매경험자의 로컬푸드 구매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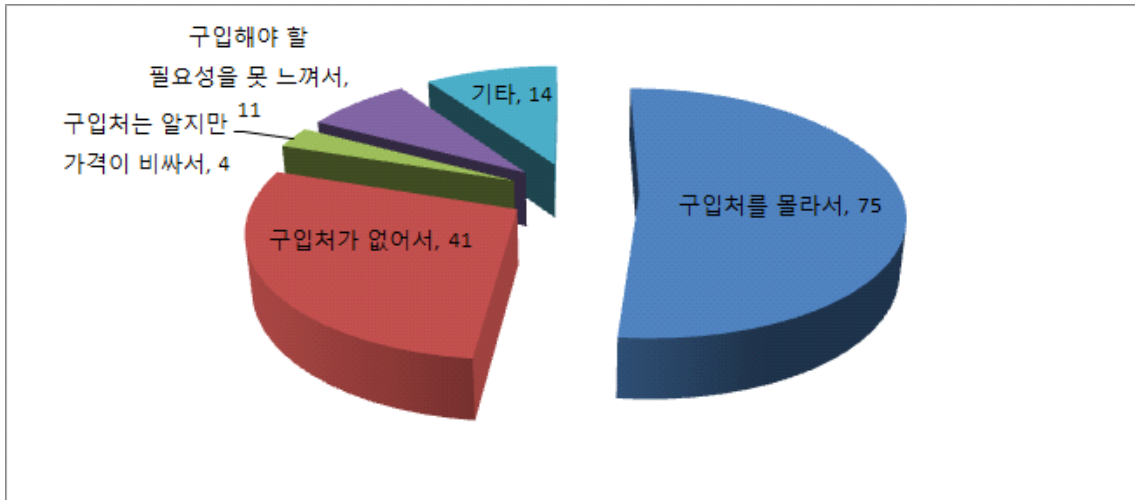
(단위: %)

구분	빈도	백분율
대형마트	35	25.6
동네수퍼	24	17.5
재래시장	27	19.4
지인 등을 통한 직거래	36	26.3
기타	16	11.3
계	138	100.0

2-2) 로컬푸드 구매 무경험자의 이유

조사 대상자가 응답한 로컬푸드의 구매경험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구입처를 몰라서”가 75명(51.7%), “구입처가 없어서”가 41명(28.3%), “구입처는 알지만 가격이 비싸서”가 4명(2.8%), “구입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가 11명(7.6%), “기타”가 14명(9.7%)으로 나타났다.

<그림 2-4> 로컬푸드 구매 무경험자의 이유



<표 2-4> 로컬푸드 구매 무경험자의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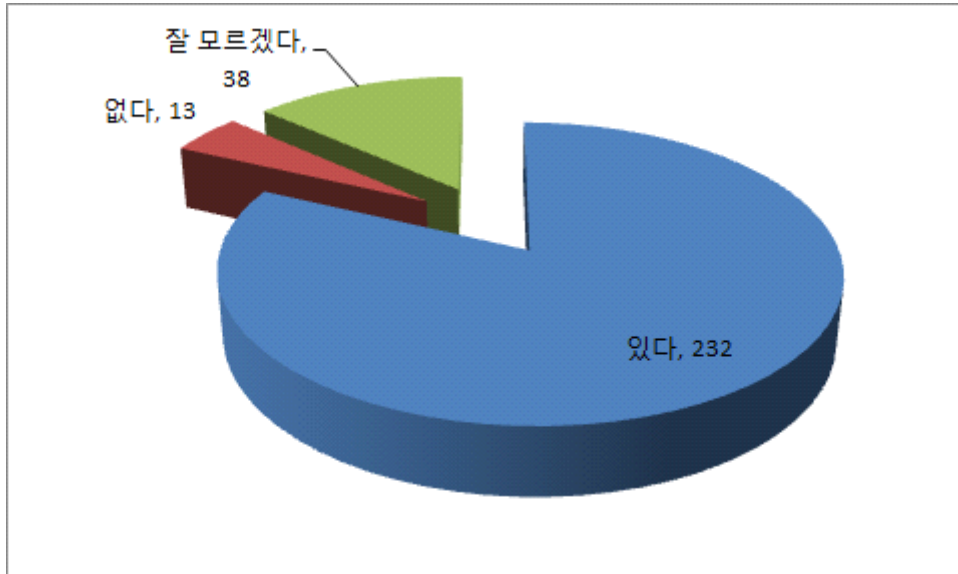
(단위: %)

구분	빈도	백분율
구입처를 몰라서	75	51.7
구입처가 없어서	41	28.3
구입처는 알지만 가격이 비싸서	4	2.8
구입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11	7.6
기타	14	9.7
계	145	100.0

3) 로컬푸드 구매의사

조사 대상자가 응답한 로컬푸드 차후 구매의사에 대해서는 “있다”가 232명(82%), “없다”가 13명(4.6%), “잘 모르겠다”가 38명(13.4%)으로 나타났다.

<그림 2-5> 로컬푸드 구매의사



<표 2-5> 로컬푸드 구매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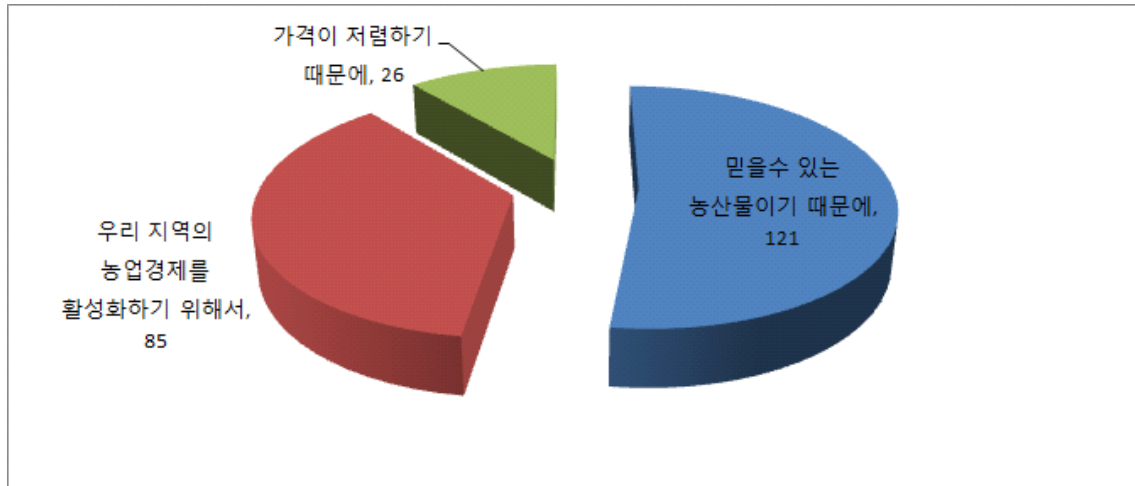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있다	232	82.0
없다	13	4.6
잘 모르겠다	38	13.4
계	283	100.0

3-1) 로컬푸드를 구매하려는 이유

조사 대상자가 응답한 로컬푸드를 구매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믿을수 있는 농산물이기 때문에”가 121명(52.2%), “우리 지역의 농업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가 85명(36.6%),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가 26명(11.2%)으로 나타났다.

<그림 2-6> 로컬푸드를 구매하려는 이유



<표 2-6> 로컬푸드를 구매하려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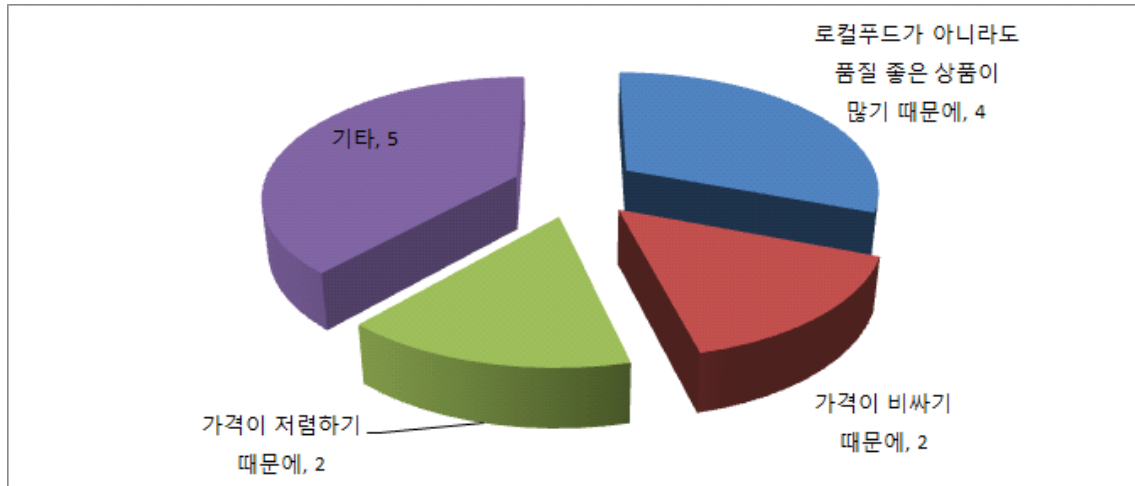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믿을수 있는 농산물이기 때문에	121	52.2
우리 지역의 농업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85	36.6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26	11.2
계	232	100.0

3-2) 로컬푸드를 구매하지 않으려는 이유

조사 대상자가 응답한 로컬푸드를 구매하지 않으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로컬푸드가 아니라도 품질 좋은 상품이 많기 때문에”가 4명(32.5%),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가 2명(16.9%),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가 2명(14.3%), “기타”가 5명(36.4%)으로 나타났다.

<그림 2-7> 로컬푸드를 구매하지 않으려는 이유



<표 2-7> 로컬푸드를 구매하지 않으려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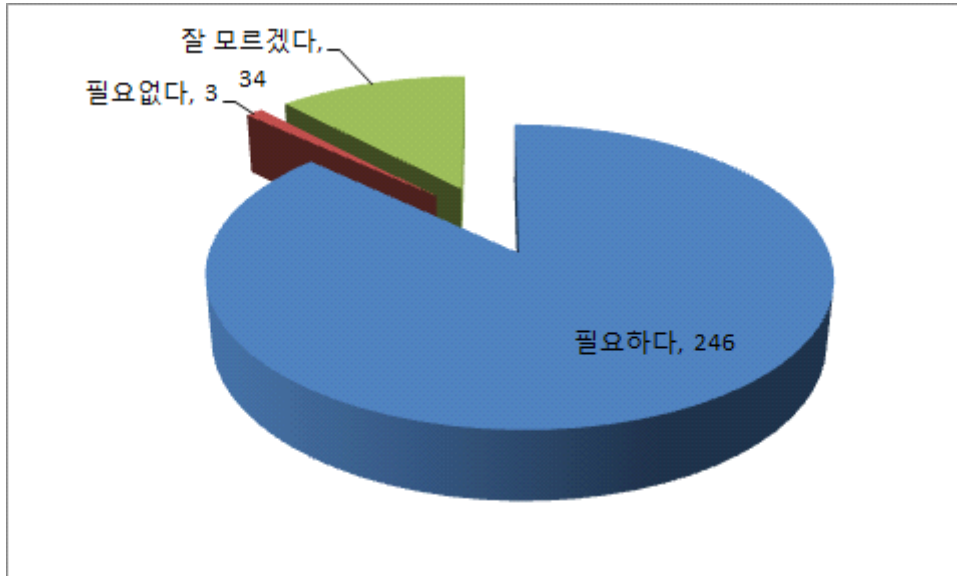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로컬푸드가 아니라도 품질 좋은 상품이 많기 때문에	4	32.5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2	16.9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2	14.3
기타	5	36.4
계	13	100.0

4) 로컬푸드 육성의 필요성

조사 대상자가 응답한 로컬푸드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가 246명(86.9%), “필요없다”가 3명(1.1%), “잘 모르겠다”가 34명(12.0%)으로 나타났다.

<그림 2-8> 로컬푸드 육성의 필요성



<표 2-8> 로컬푸드 육성의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필요하다	246	86.9
필요없다	3	1.1
잘 모르겠다	34	12.0
계	283	100.0

Ⅲ. 결론 및 제언

1. 결론

1. 일반적 사항

본 조사결과 성별은 남자 110명(38.9%), 여자 173명(61.1%)으로 나타났고, 연령은 20대 27명(9.5%), 30대 72명(25.4%), 40대 97명(34.3%), 50대 67명(23.7%), 60대 이상 20명(7.1%)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의 거주지는 조치원읍 110명(38.9%), 한솔동 106명(37.5%), 기타 면지역이 67명(23.7%)로 나타났다.

2.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 및 욕구

로컬푸드에 대한 인지도에 있어 “들어본 적 있다”가 212명(74.9%), “들어본 적 없다”가 71명(25.1%)으로 나타났다. 구매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있다”가 138명(48.9%), “없다”가 145명(51.1%)로 나타났다.

구매경험이 있는 138명에 대하여 구매처에 대한 질문을 한 결과 “대형마트”가 35명(25.6%), “동네수퍼”가 24명(17.5%), “재래시장”이 27명(19.4%), “지인 등을 통한 직거래”가 36명(26.3%), 기타 16명(11.3%)으로 나타났으며, 구매경험이 없는 145명에 대하여 구매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구입처를 몰라서”가 75명(51.7%), “구입처가 없어서” 41명(28.3%) 등으로 나타났다.

로컬푸드를 차후 구매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232명(82%)가 “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없다”가 13명(4.6%), “잘 모르겠다”가 38명(13.4%)로 나타났다. 구매할 의사가 있는 232명에게 그 이유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믿을수 있는 농산물이기 때문에”가 121명(52.2%), “우리 지역의 농업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가 85명(36.6%),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가 26명(11.2%)으로 나타났다. 로컬푸드를 구매하지 않으려고 대답한 13명에게 질문한 결과 “로컬푸드가 아니라도 품질 좋은 상품이 많기 때문에”가 4명,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가 2명 등으로 응답하였다.

향후 로컬푸드의 육성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246명(86.9%)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필요없다”가 3명(1.1%), “잘 모르겠다”가 34명(12%)으로 나타났다.

2. 제언

1. 세종시 지역 농민과 조치원읍, 한솔동, 중앙정부청사의 소비자를 연결하는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하여 “세종시형 로컬푸드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2. 생산기반확대 등 세종시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지역 농민들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지역주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세종로컬푸드지원센터(가칭)”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마켓, 직거래장터 확대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조사자	
-----	--

설문지 번호			
-----------	--	--	--

코딩여부	
------	--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주민 로컬푸드 인식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는 지역에서 생산하여 지역에서 소비하는 로컬푸드의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는 목적으로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로컬푸드(Local Food)는 글로벌푸드(Global Food)의 폐해로부터 지역 생산자를 보호하고,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면서, 지역 농가의 활성화를 통해 식재료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급률을 높여 가는 지역중심의 대안농산물체계를 일컫는 말입니다.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본 설문지에 생각하시는 그대로 성실히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조사는 무기명으로 실시되고, 그 결과는 통계 처리가 되므로 절대적인 비밀보장을 약속드립니다.

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3년 5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로컬푸드 연구모임
대표 박영송 의원
Tel. 044-300-7177

I.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사항에 V표 하거나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10대 이하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이상

3. 귀하의 거주지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조치원읍 ② 한솔동 ③ 기타()

II. 다음은 귀하의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사항에 V표 하거나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는 로컬푸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

- ① 들어본 적 있다. ② 들어본 적 없다.

2. 귀하는 로컬푸드를 이용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

- ① 있다. (☞ 아래 2-1번으로 이동) ② 없다. (☞ 아래 2-2번으로 이동)

2-1. (이용경험이 있으시다면) 로컬푸드를 어디에서 구매하셨나요? ()

- ① 대형마트 ② 동네수퍼 ③ 재래시장 ④ 지인 등을 통한 직거래
⑤ 기타()

2-2. (이용경험이 없으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 ① 구입처를 몰라서 ② 구입처가 없어서 ③ 구입처는 알지만 가격이 비싸서
④ 구입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⑤ 기타()

3. 귀하는 로컬푸드를 이용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

- ① 있다. (☞ 아래 3-1번으로 이동) ② 없다. (☞ 아래 3-2번으로 이동)
③ 잘 모르겠다.

3-1. (로컬푸드를 이용할 의사가 있으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 ①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이기 때문에(품질이 좋기 때문에)
② 우리 지역의 농업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③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④ 기타()

3-2. (로컬푸드를 이용할 의사가 없으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 ① 로컬푸드가 아니어도 품질이 좋은 상품이 많기 때문에
②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③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④ 기타()

4. 귀하는 우리 세종시의 로컬푸드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 ① 필요하다. ② 필요없다. ③ 잘 모르겠다.
④ 기타()

※ 본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로컬푸드에 대한 인증 및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제18조)
- 로컬푸드 통합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9조, 제20조)
- 로컬푸드 농산식품 생산·가공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1조, 제22조)
- 로컬푸드 소비 촉진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3조~제26조)
- 로컬푸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7조~제2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나. 행정규제 : 해당 없음

다. 예산조치 : 8,450백만원(비용추계결과<5년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로컬푸드 연구모임 결과보고서

기타자료

1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3년 12월 5일

나. 발 의 자 : 김 장 식 의원 (찬성자 6명)

다. 회부일자 : 2013년 12월 6일

라. 상정일자 : 2013년 12월 17일

마. 의결일자 : 2013년 12월 17일

- 제1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차 정례회 제6일차 산업건설위원회

바. 의결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가. 제안 이유**

- 세종특별자치시가 시민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지역 농식품을 원활히 공급하여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함과 동시에 생산자에게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제5조)
- 로컬푸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제13조)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시민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지역 농산식품을 원활히 공급하여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고 생산자에게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이하 "로컬푸드"라 한다)란 생산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물류센터를 통한 2단계 이하의 유통단계를 거쳐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공급되는 농산물과 식품(이하 "농산식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방법"이란 지역 내 자원순환 및 에너지 저투입 등의 친환경적 방법을 통해 지구온난화 방지 및 생물의 다양성 확보에 이바지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3. "기획생산"이란 소비처를 염두에 둔 상황에서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기준에 따라 계약재배 등의 방식을 통해 안정되게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4. "공동체"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는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조직 또는 마을집단 개념을 가진다.
5. "참여주체"란 로컬푸드의 생산 및 소비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생산자·가공자·유통자·소비자를 말한다.
6. "제휴푸드(提携food)"란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요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농산식품에 한해 인근 시·군 지역에서 신뢰할 만한 생산자단체로부터 조달하는 우수 농산식품을 말한다.

제3조(로컬푸드 참여주체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증 식품의 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식생활 교육·홍보 및 자료조사와 인력양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인 주민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로컬푸드 농산식품 중 인증 받은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생산자인 농업인은 생산주체로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인증 취득 및 유지를 통해 농업의 안정과 주민의 건강 유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농산식품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하고 품질 좋은 인증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환경보전, 도시와 농촌의 상생, 그리고 소비자인 시민의 건강이 식생활을 통하여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 수립·추진

제4조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이하 "육성·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지원의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가공·유통·소비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농산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4.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로컬푸드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육성·지원계획 추진)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육성·지원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사업비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 육성·지원 등에 관한 정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기구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로컬푸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6조(로컬푸드위원회 설치) 로컬푸드 육성·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각종 지원사업의 선정·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경제산업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급식업무 담당국장
3. 로컬푸드 관련 생산·가공·유통·소비분야의 사회단체 등 대표
4.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연구소·컨설팅기관 종사자
5. 그 밖에 로컬푸드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로컬푸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계된 기관과 단체에게 자료의 제출, 위원회 출석, 그 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가나 단체 등을 통하여 조사·연구하게 하거나 공청회·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로컬푸드에 대한 인증 및 표시

제14조(로컬푸드의 인증) ① 로컬푸드의 안전성과 이동거리 단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에서 생산·가공된 농산식품에 대하여 로컬푸드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증의 고유성 및 정체성 확보를 위하여 참여주체와 협력하여 농산식품의 생산·유통·판매가 조직적·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농산식품 품질의 표준화 및 공동 브랜드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후속조치 및 정책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인증의 내용을 「상표법」 제6조에 따라 상표로 등록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인증을 신청한 내용을 심사하고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인증의 표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인증에는 지역의 농업인 등이 생산한 안전한 농산식품임을 나타내는 세종특별자치시라는 지명을 사용하여야 하며, 필수 표기사항(농산식품의 명칭·무게·성분·생산자 및 가공자의 주소·이름 등과 인증마크)과 선택 표기사항(농산물 재배지 주소, 수확연도, 로고, 고유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선택표기사항은 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인증을 받지 아니한 생산자 등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다.

⑦ 인증의 기준, 신청·표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인증의 유효기간)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그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인증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4조제7항의 인증기준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로컬푸드 관련 기관 및 협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생산자 등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인증을 해서는 안 된다.

제17조(인증기관의 지정) 시장은 로컬푸드 인증절차에서 필요한 분석 및 심사 등 직접 수행 기관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18조(로컬푸드 인증지원센터 지정 등) ① 시장은 인증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로컬푸드 인증지원센터(이하 “인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인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로컬푸드 인증에 대한 심사·평가
2. 로컬푸드 인증 전문인력의 양성
3. 로컬푸드 인증 관리프로그램 개발
4. 로컬푸드 인증에 대한 컨설팅
5. 로컬푸드 인증사례 등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등
6. 로컬푸드 인증 및 소비인증 촉진을 위한 각종 연구·조사 및 홍보
7. 그 밖에 로컬푸드 인증 및 소비인증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인증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인증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지정기간,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로컬푸드 통합센터 설치·운영

제19조(통합센터 설치) ① 시장은 로컬푸드의 생산·가공·유통·소비의 효율적인 조직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통합센터(이하 “통합센터”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1. 품목별 기획생산 지원사업
2. 통합물류 등 로컬푸드 직거래유통 활성화사업
3. 온-오프라인 통합마케팅사업
4. 식문화 교육 및 생산자와 소비자 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사업
5. 로컬푸드 확산에 필요한 캠페인·홍보·교류협력사업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통합센터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센터부지 또는 지역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통합물류시설 : 순회수집·저장·가공·선별·포장·저온물류시스템

2. 전처리(前處理)시설 : 1차 농산물의 세척, 박피, 절단 또는 세절하는 등의 단순 가공

3. 전통발효식품단지 : 장류·김치·반찬류 등을 기획 생산하는 시설

4. 신선식품가공시설 : 제빵·제과·음료 등의 농식품 가공시설

5. 교육시설 : 로컬푸드 관련 교육·상담·자문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③ 시장은 로컬푸드 농식품 유통단계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로컬푸드 확산을 위한 통합마케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제20조(통합센터 운영) ① 시장은 통합센터를 직영하거나 공개모집을 통해 공공성과 전문성 및 도덕성을 갖춘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사업자는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회적 기업·생산자 단체 등 생산 및 유통, 마케팅을 실현 할 수 있는 전문조직으로서, 사업수행능력과 자질을 갖추어야 하며 시와 협력하여 로컬푸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③ 수탁사업자는 시장에게 통합센터 운영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통합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로컬푸드 농산식품 생산·가공에 대한 지원

제21조(로컬푸드 농산식품 생산) ① 로컬푸드 농산식품 생산은 다품목 소량생산 방식으로 하고, 다수의 지역 농업인이 참여하여 환경농업을 실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 품목의 다양성 확보 및 소규모 생산자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획생산 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품목별 기획생산단위(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 활성화 지원
2. 환경농업 촉진 및 정착을 위한 친환경자재 및 이력관리 지원
3.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 회사급식용의 맞춤형 식품생산단위 활성화 지원
4. 안전·안심 축산물과 가공단위 활성화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2조(로컬푸드 농산식품 가공) ① 로컬푸드 농산식품 가공은 먼저 마을 단위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방향에서 시작하고 생산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로컬푸드 가공단지를 별도로 조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 농산식품 가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권역별 농업인 가공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소규모 농업인 가공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농업과 농산식품 산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주민에게 품질 좋은 농산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연구개발, 농산식품 산업시설의 설치 및 운영, 농산식품 소기업 유치 등의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7장 로컬푸드 소비 촉진 활성화

제23조(전문판매장의 설치 및 장터의 활성화) ① 시장은 농업인 소득증대 및 로컬푸드 저변확대를 위해 로컬푸드장터(이하“장터”라 한다)를 개설·운영할 수 있으며 로컬푸드 전문판매장 설치와 시설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터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순회수집·소포장·홍보·캠페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지역생활협동조합운동의 활성화) ① 시장은 일반 소비자의 지속가능한 로컬푸드의 소비촉진을 위해 건강밥상 꾸러미사업이 원만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지역생활협동조합운동의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을 또는 권역 단위 건강밥상 꾸러미사업단을 조직·육성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포장·포장박스·직배송 및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사회적 거리단축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교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복지와 연계한 로컬푸드 활성화) ① 시장은 보육시설 및 복지시설(노인·청소년·장애인 등)·저소득 계층(어린이·노인 등)에 대한 급식에 로컬푸드가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 소비촉진을 목적으로 행정 및 민간단위의 관련 사업을 연계되도록 하고 로컬푸드 확산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로컬푸드 소비촉진을 위한 지원) ① 시장은 지역 내 공공기관, 공공시설 및 회사의 단체급식에 로컬푸드가 우선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강한 학교밥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역 내 학생에게 로컬푸드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급식에 로컬푸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로컬푸드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의 회사와 다양한 협동조합의 구성원과 이용자들이 로컬푸드 판매장이나 장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달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8장 로컬푸드 협력체계 구축

제27조(로컬푸드 정보시스템 구축) ① 시장은 로컬푸드 참여주체에게 로컬푸드에 대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로컬푸드의 생산·가공·유통·소비의 과정과 인증지원센터·통합센터 등의 활동정보를 제공하는 전용 홈페이지 제작·운영 등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로컬푸드 참여주체와 각종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은 제1항과 관련된 정보를 생산·변경한 때에는 그 정보가 로컬푸드 정보시스템에 신속히 등록·갱신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농산식품의 실

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한 부가적인 정보시스템 구축도 병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로컬푸드 정보시스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로컬푸드의 날) 시장은 로컬푸드의 소비촉진과 인증 농산식품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로컬푸드의 날’을 지정하여 매년 각종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시 소재 로컬푸드관련 법인·단체 등에게 기념행사를 개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제휴푸드 활성화 및 국내외 협력) ① 시장은 특정 농산식품이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는 인근 시·군과 협약을 체결하여 품질과 안전성이 보장된 먹을거리를 조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의 국내외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인력·기술 교류, 농업 관련 국내외 활동의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로컬푸드와 관련하여 지원 받았거나 시행된 것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 로컬푸드 통합센터 구축·운영
 - 생산·가공·유통·소비의 효율적 조직화 지원
- 로컬푸드 농산식품 생산 활성화 지원
 - 마을기업·사회적 기업 활성화, 친환경자재 및 이력관리 지원, 학교급식 등 맞춤형생산단위 활성화, 축산물 등 가공단위 활성화
- 로컬푸드 농산식품 가공 활성화 지원
 - 권역별 농업인가공지원센터 설립 등
- 로컬푸드 농산식품 소비촉진 활성화
 - 농업인장터 활성화 및 로컬푸드 전문판매장 설치
 - 지역생산·소비협동조합운동의 활성화
 - 로컬푸드 소비촉진 지원
- 로컬푸드 협력체계 구축
 - 로컬푸드 정보시스템 구축, 로컬푸드의 날 행사 지원

□ 관련 조문

-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16조(로컬푸드 인증지원센터 지정 등), 제17조(통합센터 설치), 제18조(통합센터 운영), 제19조(로컬푸드 농산식품 생산), 20조(로컬푸드 농산식품 가공), 제21조(농업인장터의 활성화 및 전문판매장의 설치), 제22조(지역생산·소비협동조합운동의 활성화), 제23조(복지와 연계한 로컬푸드 활성화), 제24조(로컬푸드 소비촉진을 위한 지원), 제25조(로컬푸드 정보시스템 구축), 제27조(로컬푸드의 날)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로컬푸드 전문판매장 설치는 2014년부터 연차적으로 거점단위별 설치
- 로컬푸드 통합센터 설립, 농업인가공센터 설치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가 필요한 국비지원 사업으로 2015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전제하였음.

나. 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 연 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총 비 용	0	680	3,750	3,310	710	8,450
로컬푸드 통합센터 설립·운영			2,000	2,000	300	4,300
농산식품 생산 활성화 지원		200	200	200	300	900
농업인가공지원센터 구축			1,000	1,000		2,000
로컬푸드 전문판매장 설치·운영		400	400			800
농업인장터 활성화		30	30	40	40	140
로컬푸드 소비 촉진		30	30	30	30	120
지역생산·소비협동조합운동의 활성화		20	20	20	20	80
로컬푸드의 날 행사			20	20	20	60
로컬푸드 정보 시스템 구축			50			50

다. 비용추계 상세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량	예산액			산출기초
		계	국비	시비	
계		7,450	3,000	4,450	
통합센터설립	1개소	4,300	2,000	2,300	-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사항(국비확보), - 주요시설 : 통합물류시설, 전처리시설, 전통발효식품단지, 신선식품가공시설, 교육시설 등
농산식품 생산 활성화 지원	1식	200		200	마을기업·사회적 기업 활성화, 친환경자재 및 이력관리 지원, 학교급식 등 맞춤형 생산단위 활성화, 축산물 등 가공단위 활성화
농업인가공지원 센터 구축	1개소	2,000	1,000	1,000	-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사항(국비확보) - 주요내용 : 제철김치류, 밀반찬류, 천 연조미료 가공 등 마을공동체단위 소규모 가공활성화 지원
로컬푸드 전문판매장 설치	2개소	800		800	전문판매장 설치 (개소당 자부담 400만원)
농업인장터 활성화	1식	30		30	농업인장터 개설 및 운영 지원 (순회수집·소포장·홍보·캠페인 등)
로컬푸드 소비 촉진 지원	1식	30		30	로컬 푸드 사업 지원 (학교밥상, 공공기관, 회사단체급식 등)
지역생산·소비협 동조합운동의 활성화	1식	20		20	건강밥상 꾸러미사업단 조직육성 지원 (소포장·포장박스·직배송 및 교류사업)
로컬푸드의 날 행사 지원	1식	20		20	개최 및 행사관련 부대경비
로컬푸드 정보 시스템 구축	1식	50		50	전용 홈페이지 제작·운용 등

작성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장식 의원(300-7173)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농업: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2.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농업인: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 어업인: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염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어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어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어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어업, 농어업 관련 산업, 농어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 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어업·농어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 수산자원 및 해안의 보전

바. 농어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10. "수산자원"이란 수중(水中)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로서 국민경제 및 국민 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11. "어장"이란 수생생물이 사는 내수면, 해수면, 갯벌로서 어업에 이용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인·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어업 인력 육성, 농어업인과 농어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② 농어업인과 농어촌주민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어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단체는 농수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개선, 농어업경영의 효율화,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기능 제고 등을 통하여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어업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소비자는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수산물과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농업의 범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제5조(농수산물의 범위) ① 법 제3조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2조의 농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 ② 법 제3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3조제1호나목의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제6조(식품산업의 범위) 법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농수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가공·제조·조리하는 산업
2. 제1호의 산업으로부터 생산된 산물을 포장·보관·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

제7조(농어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 지원기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농어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운영지원 또는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지원대상 단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

다. 생산자단체

2. 지원하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법 제4조에 규정된 각 책무를 관련 단체가 회원 공동으로 실현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

나. 단체의 회원 및 농어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에 필요한 시설의 건축비 또는 기자재 구입비

3. 제1호와 제2호의 지원기준 외의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언론자료 스크랩

충청투데이

2013년 02월 20일
15면 (지역)



18일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로컬푸드 연구모임 창립대회를 가졌다.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 로컬푸드 연구모임 창립대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3개의 연구모임 중 하나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로컬푸드 연구모임'이 18일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창립대회를 가졌다.

로컬푸드 연구모임(대표 박영송 의원)은 세종시의 로컬푸드 생태계의 진단 및 생산, 유통 활성화 대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지역 농산물 생산과 소비 사이의 생태계 및 유통 실태를 분석하고, 농산물의 공급 활성화 전략을 연구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번 창립대회에서는 로컬푸드의 중요성과 활성화를 공유하였고 매달 1회 정기적으로 만나 연간 사업계획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 로컬푸드의 개념과 세종시의 농산물 생산·가공·소비의 생태계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완주군 현장답사도 논의했다.

대표 박영송 의원은 "세종시의 로컬푸드 운동의 기반은 갖추어져 있다. 생산자에게는 생산·가공·판매 등 기반조성을 위한 정책과 예산 지원을 강구하고 소비자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세종시의회 로컬푸드 연구모임을 더욱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로컬푸드 연구모임 회원은 박영송 의원(대표), 이병철 BC팜 영농조합 대표(간사), 김장식 의원, 고준일 의원, 허남혁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신은주 세종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임현필 세종시 농업유통과장 등이다.

세종=황근하 기자 guest11@cctoday.co.kr

(8.2*17.6)cm

大田日報

2013년 02월 21일
08면 (지역)



세종시의회 로컬푸드 연구모임이 18일 창립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들어갔다.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세종 로컬푸드 연구 활발

농민 구성 연구회 창립

농기센터 내일 초청강연회

지역 농산물 소비를 위한 로컬푸드 연구 활동이 활발하다. 18일 세종시의회 로컬푸드 연구모임 결성에 이어 22일 농민들로 구성된 로컬푸드 연구회가 창립한다.

시의회 로컬푸드 연구모임(대표 박영송 의원·사진)은 세종시의 로컬푸드 생태계 진단 및 생산, 유통 활성화 대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지역 농산물 생산과 소비 사이의 생태계 및 유통 실태를 분석하고, 농산물의 공급 활성화 전략을 연구한다.

이 연구모임을 로컬푸드의 중요성과 활성화를 공유하기 위해 매달 1회 정기적으로 만나 연간 사업계획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향후 로컬푸드의 개념과 세종시의 농산물 생산·가공·소

비의 생태계에 대한 조사를 수행할 방침이다.

박 의원은 "세종시의 로컬푸드 운동의 기반은 갖추어져 있다. 생산자에게는 생산·가공·판매 등 기반조성을 위한 정책과 예산 지원을 강구하고 소비자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세종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세종시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택)도 새로운 시장확보와 농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찾기 위한 로컬푸드 연구회 창립총회와 초청강연회를 22일 농기센터에서 갖는다. 농기센터는 정부부처 이전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며 첫마을 등에 도시민이 대거 유입되는 가운데 도농상생의 발판을 만들기 위해

로컬푸드 연구회를 조직했다.

연구회는 이날 연구회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회 정관 제정, 연중 사업계획 수립, 연구회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또 임정엽 완주군수로부터 '로컬푸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란 주제의 강연도 가질 예정이다.

초대회장에 선출된 홍성용 씨는 "앞으로 회원들과 지속적인 정보교류 및 선진기술 교육 등을 통해 세종시 로컬푸드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농민장터, 생산자 직판장, 밤상구미미사업 등의 활동을 통해 세종시 농산물 브랜드화에 힘써 향후 로컬푸드 사업이 활성화하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곽상훈 기자

(15.1*14.5)cm

중부매일

2013년 06월 13일
02면 (종합)

로컬푸드 활성화 토론회

세종시의회 연구모임

통합시스템 도입 고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3개의 연구모임 중 하나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로컬푸드 연구모임'은 11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시의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로컬푸드 활성화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허남혁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세종시 로컬푸드 활성화 의의와 방안'이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이어 지정토론에서는 좌장인 박영송 세종시의회 의원과 이기용 로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로컬푸드 연구모임은 11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로컬푸드 활성화 토론회를 가졌다.

푸드 연구회 회장, 김영희 한솔동 주부, 신은주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박영범 지역농업네트워크 대표가 토론을 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장식 의원은 "세종시 로컬푸드 활

성화를 위해서는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해 소비자는 안전한 밥상을, 생산자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생하는 먹거리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세종시 지역 여건에 맞는 로컬푸드 생산, 유통, 판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시스템을 고민해 보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상연 / 세종

(20.6*8.8)cm

대전투데이

2013년 06월 13일
02면 (종합)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 토론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3개의 연구모임 중 하나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로컬푸드 연구모임'은 세종시 로컬푸드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11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지역주민들을 포함한 시의원, 관계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가졌다.

발제자로 나선 허남혁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세종시 로컬푸드 활성화 의의와 방안이라는 주제를 발표하였고, 지정토론에서는 좌장인 박영송 세종시의회 의원과 이기용 로컬푸드연구회 회장, 김영희 한솔동 주부, 신은주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박영범 지역농업네트워크 대표가 활발하게 토론을 하였다.

한편, 토론회를 주관한 김장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세종시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여 소비자는 안전한 밥상을, 생산자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생하는 먹거리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세종시 지역 여건에 맞는 로컬푸드 생산, 유통, 판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시스템을 고민해 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이상수 기자

(5.1*16.6)cm

중도일보

2013년 06월 13일
07면 (지역)

로컬푸드 활성화 나서 시의회 토론회

세종시의회 3개 연구모임 중 하나인 '세종시의회 로컬푸드 연구모임'은 11일 저녁 7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로컬푸드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 관계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허남혁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세종시 로컬푸드 활성화 의의와 방안'이라는 주제를 발표하고, 지정토론에서는 좌장인 박영송 의원과 로컬푸드연구회 이기용 회장, 김영희 한솔동 주부, 신은주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박영범 지역농업네트워크 대표가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장식 의원은 "지역 여건에 맞는 로컬푸드 통합시스템을 고민해 보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공배 기자

(5.0*10.5)cm

중앙매일

2013년 06월 13일
07면 (대전/충남)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 토론회

세종의회 로컬푸드 연구모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3개의 연구모임 중 하나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로컬푸드 연구모임'은 세종시 로컬푸드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11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지역주민들을 포함한 시의원, 관계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가졌다.

발제자로 나선 허남혁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세종시 로컬푸드 활성화 의의와 방안이라는 주제를 발표하였고, 지정토론에서는 좌장인 박영송 세종시의회 의원과 이기용 로컬푸드연구회 회장, 김영희 한솔동 주부, 신은주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박영범 지역농업네트워크 대표가 활발하게 토론을 하였다.

한편, 토론회를 주관한 김장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세종시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여 소비자는 안전한 밥상을, 생산자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생하는 먹거리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 / 황대선 기자

(5.1*15.2)cm

“로컬푸드, 생산자·소비자 공생 먹거리 환경 필요”

시의회 연구모임 활성화 토론회

“생산-유통-판매 연계 고민해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연구모임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로컬푸드 연구모임’은 세종시 로컬푸드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11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지역주민들을 포함한 시의원, 관계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가졌다.

발제자로 나선 허남혁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세종시 로컬푸드 활성화 의의와 방안’이라는 주제를 발표하였고, 지정토론에서는 좌장인 박영송 세종시의회 의원과 이기용 로컬푸드 연구회 회장, 김영희 한솔동 주부, 신은주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박영범 지역농업네트워크 대표가 활발한 토론을 가졌다.



세종시의회 로컬푸드 연구모임이 11일 기술센터 대강당에서 토론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제공

토론회를 주관한 김장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세종시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여 소비자는 안전한 밥상을, 생산자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생하는 먹

거리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세종시 지역 여건에 맞는 로컬푸드 생산, 유통, 판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 시스템을 고민해 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황근하 기자** guest@ccoday.co.kr

(19.1*10.8)cm

세종시 먹거리 전략계획 수립 추진

시의회 로컬푸드 연구모임 대토론회 방안 모색

세종시의회 3개의 연구모임 중 하나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로컬푸드 연구모임’은 13일 오후 2시 시민,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세종시 로컬푸드와 먹거리 정책 수립을 위한 ‘세종시의회 로컬푸드 연구모임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허남혁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세종시 로컬푸드와 먹거리정책 수립 방안’이라는 주제를 발표했고, 정해량 (사)영양과 미래 대표는 ‘서울시 먹거리전략 2020 수립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서 좌장인 박영송 세종시의회 의원과 신정고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의 사회로 나영삼 원주군청 로컬

푸드 담당, 정용화 로컬푸드생산협의회장, 남궁호 세종시 농업유통과장이 토론을 했다.

한편 토론회를 주관한 박영송 의원은 “최근 선진국 도시들이 도시농업과 로컬푸드 활성화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먹거리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먹거리 정책연구회를 구성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세종시 먹거리전략계획 수립 및 이를 시행할 거버넌스 기구 확립과 도시와 농촌의 균형있는 발전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시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건강도시 및 복지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남은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 서종권 기자** sjg0133@naver.com

(14.2*9.6)cm

세종시의회 로컬푸드연구모임 토론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3개의 연구모임 중 하나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로컬푸드 연구모임’은 13일 오후 2시 시민,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세종시 로컬푸드와 먹거리 정책 수립을 위한 ‘세종시의회 로컬푸드 연구모임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허남혁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세종시 로컬푸드와 먹거리정책 수립 방안’이라는 주제를 발표하였고, 정해량 (사)영양과 미래 대표는 ‘서울시 먹거리전략 2020 수립사례’를 발표했다. **세종=황근하 기자**

(6.2*7.2)cm

